

2017 JEJU 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among Islands with Exile Culture

## 2017년 유배문화심과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제주국제학술대회



“Overcoming Disconnection with Communication”

- Historical and Cultural Exchange among Exile Islands

"다절을 넘어 소통으로"

- 유배섬의 역사와 문화교류

Jan. 12, Thursday, 2017, Jeju KAL Hotel(Jeju Si, Korea)

Hosted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ganized by the Society for Jeju Studies

• 일시 : 2017년 1월 12일(목)

09:30~17:30

• 장소 : 제주KAL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사)제주학회

---

**2017년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제주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회**

---

- 위원장 : **오영주**(제주학회 회장, 제주한라대)
- 위 원 : **이종무**(제주학회 사무국장, 제주한라대), **윤용택**(제주대)  
**고광명**(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좌혜경**(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강경희**(제주대), **강창화**(제주고고학연구소), **김원희**(제주한라대)

## “단절을 넘어 소통으로” – 유배섬의 역사와 문화교류

### ○ 1월 11일(수)(1일차)

10:00 ~ 17:30

제주 유배유적 답사

### ○ 1월 12일(목)(2일차)

■ 제1부 [ 개 회 식 ]		사회: 이종무(제주한라대학교)	
10:00 ~ 10:20	△ 개회사 오영주 제주학회 회장 △ 환영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축 사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제2부 [ 학술토론회 ]			
10:30 ~ 11:00	기조강연 △ 제주문화유산으로서 유배문화의 가치 / 양진건 (제주대학교)		
11:00 ~ 11:10	휴식		
제1세션: 바깥에서 본 제주의 유배 역사·문화		좌장: 이성규(단국대학교)	
11:10 ~ 11:50	△ 원(元)나라에서 고려로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 (Юань улсаас Солонгост цөлөг дөж байсан Монголын язгууртнууд) - 출몬(Sodnom.Tsolmon) ( Mongolia, Ulaanbaatar State University), 양해숙(통역)		
12:00 ~ 13:00	점심 식사 및 휴식		
13:00 ~ 13:30	△ 유배지로서의 탐라(耽羅) : 명초(明初) 20년의 위치와 운명- 윈난(雲南)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作为流配地的耽罗: 明初20年的位置和命运—以云南蒙古人流寓轨迹为中心) - 테무르(特木勒) (中国 南京大学)		
13:30 ~ 14:00	△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본 제주의 유목문화 - 박원길 (칭기스칸 연구센터)		
14:00 ~ 14:10	휴식		
제2세션: 중국과 일본의 유배역사와 문화		좌장: 심규호(제주국제대학교)	
14:10 ~ 14:40	△ 당오대 유배관리의 시기와 지역분포에 관한 정량 분석 (唐五代贬官之时期与地域分布的定量分析) - 상용량(尚永亮) (中国 武汉大学)		
14:40 ~ 15:10	△ 아마미에 유배 온 사이고 다카모리(奄美に流された西郷隆盛) - 츠하 다카시(津波高志) (일본 류큐대학교)		
15:10 ~ 15:40	△ 당송 시기 유배지 치엔저우(黔州)에 대한 약술(略论唐宋时期的贬谪地黔州) - 주앙이원(庄逸云) (中国 四川师范大学)		
15:40 ~ 15:50	휴식		
■ 3부 [ 종합토론 ]		'유배섬의 역사가치와 문화교류 방안'	
		좌장: 김진영(제주대학교)	
15:50 ~ 17:20	토론자		
	△ 윤치부 (제주대학교)		





# “Overcoming Disconnection with Communication”

## – Historical and Cultural Exchange among Exile Islands

### ● January 11 (Wednesday) – Day 1

10:00 ~ 17:30                      Exploring the Remains of Jeju Exile

### ● January 12 (Thursday) – Day 2

■ Part 1: Opening Ceremony		MC: Lee, Jong-Mu (Cheju Halla Univ.)
10:00 ~ 10:20	△ Opening Address: Oh, Young-Ju,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Jeju Studies △ Welcome Address: Won, Hee-Ryeong,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Congratulatory Address: Shin, Kwan-Hong, Chairman, Council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Part 2: Academic Presentations		
10:30 ~ 11:00	△ The Value of Exile Culture as Jeju Cultural Heritage – Yang, Jin-Geo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 R.O.Korea)	
11:00 ~ 11:10	Break	
1st Session: Jeju Exile History and Culture as Seen Outside MC: Lee, Seong-Gyu (DanKook Univ.)		
11:10 ~ 11:50	△ The Mongolian Nobels exils from Yuan Dynasty to Goryeo – Speaker: Sodnom Tsolmon (Professor, Ulaanbaatar State Univ. Mongolia) Interpretor: Yang, Hye-Suk (Ulaanbaatar State Univ. Mongolia)	
12:00 ~ 13:00	Luncheon	
13:00 ~ 13:30	△ As the Place of Exile Tamna: the Early Ming Dynasty 20 years of Position and Destiny – Speaker: Temur Temule (Professor, Nanjing Univ. China)	
13:30 ~ 14:00	△ A Study on Nomad Culture of Jeju Island by Confucian scholars' perspectives in Chosen Dynasty – Speaker: Park, Won-Kil (Director, Research Center for Chinggis Khan Studies, R.O.Korea)	
14:00 ~ 14:10	Break	
2nd Session: The Exile History and Culture of China and Japan MC: Shim, Kyu-Ho (Jeju International Univ.)		
14:10 ~ 14:40	△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Time and Area distribution of the Exiles in Tang(唐) Dynasty and Five Dynasties(五代) – Speaker: Shang Youngliang(Professor, Wuhan Univ. China)	
14:40 ~ 15:10	△ Takamori Saigo Exiled to Amami – Speaker: Takashi Tsuha (Professor emeritus, Univ. of the Ryukyus, Japan)	
15:10 ~ 15:40	△ Qian Zhou's Place of Exile During Tang and Song Dynasties – Speaker: Zhuang Yiyun (Professor, Sichuan Normal Univ. China)	
15:40 ~ 15:50	Break	
■ 3rd Session: Discussion Forum “The Historic Value and Plans for Exchange of the Exile Island” MC: KIM, Jin-Young (Jeju National Univ.)		
15:50 ~ 17:20	Discussants: △ Yoon, Chi-Boo (Jeju National Univ.) △ Kim, Il-Woo (Jeju Research of Sharing History and Culture) △ Yang, Jeong-Pil (Jeju National Univ.)                      △ Choa, Hye-Kyung (Jeju Studies Center) △ Choi, Seong-Hwan (Mokpo National Univ.)                      △ Lee, Jong-Mu (Cheju Halla Univ.)	
17:30	Dinner Reception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 어둠을 가르는 청명한 붉은 닭의 울음소리로 희망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밝은 햇살이 가득하시어,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김홍두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 제주를 찾아주신 몽골 울란 바타르 대학교 출몬교수님, 중국 남경대학교 테무르 교수님, 칭기스칸연구센터 박원길 박사님, 중국 무한대학교 상용량 교수님, 일본 류큐대학교 츠하 다카시 명예 교수님, 중국 사천사범대학교 주앙이원 교수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국제학술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기초발제를 위해 힘써주신 제주대학교 양진건 교수님, 각 세션에서 좌장을 맡아주실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이성규 소장님, 제주국제대학교 심규호 교수님, 제주대학교 김진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학회는 지역학으로서의 ‘제주’를 주제로 한 언어, 역사, 민속, 문학,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국학회로서 그 위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해녀문화의 가치 정립과 보존 및 전승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해녀 국제학술심포지움” 또한 6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유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지역학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3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제주학회 회원님들의 제주학(濟州學)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연구 성과가 밑거름이 되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단절을 넘어 소통으로 – 유배섬의 역사와 문화교류’라는 학술주제 아래,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국내외 저명학자들을 모시고 유배문화와 역사 관련 연구논문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학술적 접근을 통해 동아시아 다른 나라의 유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21세기 현재 글로벌(Glocal)한 제주도의 문화정체성을 동아시아 유배문화 속에서 찾아보고, 제주문화의 세계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학술대회를 통해, 단절된 절망 속에서 소통의 꽃을 피워내었던 동아시아의 유배 문화가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학회는 앞으로도 동아시아 유배문화의 인문적 가치의 발굴과 학술교류를 위해, 여러분들과 꾸준히 매진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곳 ‘평화의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섬’ 제주에서 후회없이 ‘소통’ 하시고 제주의 풍광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제19대 (사) 제주학회 회장 오 영 주

## 환영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제주국제학술대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제주학회 오영주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몽골에서 귀한 걸음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네 나라 모두 ‘유배’라는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배는 유배자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형벌이었지만 유배인들은 유배지의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휴양관광지이지만 과거 조선시대 제주에는 2백여 명이나 되는 귀양객들이 유배를 살던 곳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광해군을 비롯해서 추사 김정희, 우암 송시열, 면암 최익현 등의 문인과 학자, 정치가들이 제주 곳곳에 역사와 인간적 고뇌의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발굴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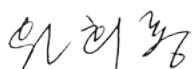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제주유배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한 소중한 제언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네 나라의 문화적 유사성과 유대감을 기반으로 유배문화 발전방안을 함께 공유하는 문화외교도 활짝 꽃피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와 환경, 기술, 교육 등으로 교류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술대회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4개국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계자연유산 제주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각국에서 오신 석학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장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 벽두에, 2017년 유배섬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제주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단절을 넘어 소통으로 – 유배섬의 역사와 문화교류’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 유배문화의 가치를 키우고, 유배문화의 교류와 활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유배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영주 회장님과 제주학회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각국의 석학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제주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제주문화는 사실상 유배문화가 주를 이뤄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배지 1위가 바로 우리 제주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지리적 이유 때문입니다.

유배는 형벌의 의미가 크지만, 추사체를 완성시킨 김정희 선생의 경우처럼 속박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문학과 예술, 문화, 그리고 지역민에 대한 지식전수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런 유배문화를 재조명하는 것은 제주문화를 재조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의해 제주문화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고, 이를 토대로 유배문화의 세계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유익한 시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관홍



# 목 차

## ■ 기조강연

- 제주문화유산으로서 유배문화의 가치  
· 양진건(제주대학교)..... 11

## ■ 제1세션: 바깥에서 본 제주의 유배 역사·문화

- 원나라에서 고려로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  
· Sodnom 출몬(국립 울란바아타르대학교, 몽골) ..... 31
- 유배지로서의 탐라(耽羅) : 명초(明初) 20년의 위치와 운명  
- 원난(雲南)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 테무르(남경대학교, 중국) ..... 51
-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본 제주의 유목문화  
· 박원길(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 ..... 69

## ■ 제2세션: 중국과 일본의 유배역사와 문화

- 당오대(唐五代) 유배 관리의 시기와 지역분포에 관한 정량(定量) 분석  
· 상용량(무한대학교, 중국) ..... 115
- 아마미에 유배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 츠하 다카시(류큐대학 명예교수, 일본) ..... 131
- 당송시기 유배지 치엔저우에 대한 약술  
· 주앙이원(사천사범대학교 문학원 교수, 중국) ..... 153





기조강연

## 제주문화유산으로서 유배문화의 가치

양진건(제주대학교)



# 제주문화유산으로서 유배문화의 가치

양진건(제주대학교)

## I

### 1. 유배문화

유배문화(流配文化)는 어떤 특정 지역에 유배된 사람들과 그 유배지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만들어진 지역의 독특한 문화이다. 중죄를 저지른 자를 차마 죽이지 못해서 먼 곳으로 격리시키는 벌로, 사형 다음 가는 무거운 형벌이 유배였다. 유배는 각 나라마다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배문화 역시 인류의 오래된 양식의 문화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오래 된 유배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李光盛의 『중국유인사(中國流人史)』(1995) 연구가 BC 2070년경의 하(夏) 왕조로 부터 시작될 만큼 중국의 역사 자체가 유배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유배형이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은나라 때부터이며 진나라와 한나라 때부터는 사형, 도형, 장형, 태형과 함께 다섯 가지 형벌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서양에서도 위험인물을 전 시민에 의한 비밀투표로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던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 ostracism) 같은 것이 BC 487년경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을 만큼 유배형은 일찍부터 활용되었다. 그리스의 파트모스 섬은 로마의 유배지로 활용되었는데 AD 95년 예수의 제자인 성 요한이 유배되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곳으로 유명하고 이 때문에 1999년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에 기록이 보일 정도로 유배의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다.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에도 유배는 계속 시행되었지만,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5~16세기에는 벼슬아치 네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유배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시대의 이름난 벼슬아치 치고 유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당쟁이 격화되던 중기 이후 가면 갈수록 유배의 정도가 심해졌다. 유배의 장소는 한양과 더 멀어졌고, 궁벽한 곳으로 정적을 내몰았다. 나중에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 등의 절해고도로 유배를 보내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내모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배문화였던 것이다.

한반도의 그 많은 섬 가운데 제주도는 특히 멀고 크고 궁벽했던 이유로 정치적 추방 및 격리를 위한 최적의 유배지로 각광을 받았다. 300명에서 500여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감금시켰고 유폐시켰던 유배의 섬이 바로 제주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유배인들과 제주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전개된 다양한 활동 및 그로인해 발생한 독특한 문화양식과 그 저반에 깔려있는 문화적 인식이 ‘제주유배문화(濟州流配文化)’이다. 제주유배문화는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전역을 문화권역으로, 시간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그 간접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까지, 유배와 관련된 선행, 후행적, 물질적, 비물질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것, 또한 그것을 이용한 모든 파생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주유배문화는 제주도의 성씨를 다채롭게 하는 등의 기능적 가치 외에도 내용적으로 교학활동, 예술활동은 물론 제주도 특유의 저항활동 등의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요한다. 중국 蘇東坡의 해남도 유배생활을 놓고 “동파는 불행했지만 해남은 행복했다”고 가치 평가를 하듯이 “유배인은 불행했지만 제주는 행복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제주유배문화 역시 그러한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속칭 “셀프유배”, “자발적 유배”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문화이주, 귀농, 귀촌과 같은 한달 평균 1,000여명이 넘는 이주자들의 순유입 증가로 새로운 유형의 이주문화가 제주도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이주문화를 “새로운 제주유배문화”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제주유배문화는 과거처럼 폐쇄, 감금, 고독의 의미가 아니라 힐링, 휴식, 창조라는 새로운 생명적 화두를 갖게 되어 그 의미가 새로워지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 II

### 2. 세계유산으로서 유배문화

우리 주변에서 유배문화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UNESCO의 세계문화유산 정책이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UNESCO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유배문화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였다.

현재 등재되어 있는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유배문화와 관련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솔로베츠키 제도 문화역사 유적군 (Cultural and Historic Ensemble of the Solovetsky Islands) , 러시아, 1992년 등재

솔로베츠키 섬에는 수도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혁명으로 폐쇄되고 섬은 정치범들을 구금하는 특별수용소가 되었다. 당시 소련에는 굴락(GULAG)이라는 수용소 집합체가 있었으며, 각각은 수백 개, 심지어는 수천 개의 개별 수용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내용은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1973)를 통

해서 알려졌는데 수용소들을 군도(群島)에 비유했고 솔로베츠키 섬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 **2) 로벤 섬 (Robben Island), 남아프리카공화국, 1999년 등재**

남아프리카의 로벤 섬은 17세기말부터 정치범들을 수감하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흑인인권운동가이자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18년 동안 수형생활을 했던 곳이다. 로벤 섬과 감옥은 억압을 이겨낸 인간 정신,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 **3) 성 요한 수도원과 파트모스 섬 요한계시록 동굴 (Historic Centre (Chorá) with the Monastery of Saint John), 그리스 , 1999년 등재**

초기 기독교 시대의 종교 의식이 아직도 그대로 계승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곳이다. 성 요한이 유배생활을 하며 복음서와 계시록을 집필했던 곳이다.

## **4) 르몬 문화경관 (Le Morne Cultural Landscape), 모리셔스, 2008년 등재**

18세기~19세기 초에 도망친 노예나 유배인이 숨어 살던 바위투성이 산으로 이곳은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 부근에 있으며 무성한 숲으로 가려져 보호되어 있었다. 도망친 노예들은 르몬 산꼭대기나 부근 동굴에 작은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 **5)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 (Australian Convict Sites), 오스트레일리아, 2010년 등재**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지역은 18, 19세기 주요 유럽 국가의 기존 강제 노역과 국가 감옥 체계에서 대영제국의 식민지 계획의 일부였던 식민지 강제 노역과 추방의 체계로 변환된 방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유적은 영국의 영토 개발로 인해 많은 물질적 요소가 필요함에 따라 생겨난 유배 식민지의 다양한 방식을 보여 준다.

### III

## 3. 유배로 악명 높은 섬

문화유산만이 아니라 관광 차원에서도 유배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협회에서 발간하는 『스미스소니언 매거진』(Smithsonian Magazine)은 2010년 6월 ‘유배로 악명 높은 10개의 섬(Ten Infamous Islands of Exile)’이라는 특집을 게재하면서 이색 관광으로서 유배지 관광을 권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파트모스(Patmos) 섬, 그리스
- 사도(Sado) 섬, 일본
- 생뜨마흐그히뜨(Île Sainte-Marguerite) 섬, 프랑스
-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섬, 칠레
- 악마의 섬(Devil's Island), 프랑스령 기아나
- 세인트 헬레나(St. Helena)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 코이바(Coiba) 섬, 파나마
- 갈라파고스 섬(Galápagos Islands), 에콰도로
- 로벤(Robben) 섬, 남아프리카공화국
- 엘카트래즈(Alcatraz) 섬, 미국

### 1) 사도(Sado) 섬, 일본

AD 722년부터 황제를 비판한 귀족과 예술가들이 유배되기 시작하여 1220년에 가마쿠라 막부와 쿠데타를 시도한 황토황제와 1271년에 급진적인 불교를 설교한 니치렌이 유배되기도 했다. 그 덕분에 전통 뮤지컬인 노가쿠(能樂)가 발전해 현재 34곳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300여년의 역사를 갖는

인형극 분야닌교(文彌人形)도 발전해 현재 10개의 극단이 매일 공연을 하면서 “공연예술의 섬”으로 자리매김했다.

## 2) 세인트 헬레나(St. Helena) 섬 ,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 마니아들의 성지는 황제가 6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세인트 헬레나 섬이다. 그 섬에서도 유배 생활하던 룽우드가 단연 인기다. 이들 마니아 덕분에 나폴레옹 관련 드라마, 다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의 힘은 세인트헬레나 커피를 세계3대 커피의 하나로 만들 정도이다. 또한 그들은 나폴레옹이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즐겨 마셨던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와인’을 ‘나폴레옹 와인’이라고 칭송하며 세계3대 주정강화주로 만들기도 하였다.

## 3) 로빈슨 크루소 섬

1704년 영국의 선원인 알렉산더 셀커크는 그의 선장과의 다툼으로 인해 마스아띠에라 섬에 버려진다. 그는 이 황량한 섬에서 4년간 혼자 살게 된다. 지나가던 선박에 구조된 셀커크의 일화는 이후 1719년 출간된 다니엘 테포의 그 유명한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모티브가 된다.. 칠레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1966년 마스아띠에라 섬의 이름을 로빈슨 크루소 섬으로 개명했다.

## 4) 악마의 섬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마의 섬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유배지였다. 1854년 나폴레옹 3세가 이 섬을 유배지로 지정한 이래, 1938년까지 형사범, 스파이, 정치범을 포함한 8만 여명의 프랑스 죄수들이 수감되었다. 악마의 섬은 ‘건조한 기요틴’이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질병, 중노동과 배고픔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하루의 별채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한 죄수들은 밥을 먹지 못했으며 약 5만여 명이 섬에서 목숨을 잃었다.



1960년대 중반, 감옥이 폐쇄된 후로는 버려졌던 악마의 섬을 프랑스 정부가 우주센터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프랑스는 섬을 발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들였고, 1980년에는 감옥들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시작했다.

악마의 섬에 수감된 가장 유명한 죄수는 반역죄로 누명을 쓰고 1895년 수감된 드레퓔스 대위였다. 또 다른 유명인은 앙리 샤리에르이다. 그는 악마의 섬 탈출기를 1968년 자전적 소설 『빠삐용』에 담아냈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화 되었다.

관광객들은 우주센터는 물론이고 드레퓔스 대위와 그를 구하기 위해 ‘나는 고발한다’라는 유명한 기사를 썼던 프랑스의 문호 에밀 졸라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했던 걸작 영화 「빠삐용」에 얹힌 스토리텔링을 맛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다.

## IV

### 4. 유배문화 상품의 개발

#### 1)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

18세기 식민지를 가진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의 쓰레기’들을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유배를 활용하였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유배된 사람의 수가 무려 16만명 정도였다. 이 때문에 유배지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여러 곳에 생겨났는데 노퍽(Norfolk) 섬도 그 중 하나였다. 2000년대 들어 노퍽 섬 지방정부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유배문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유배의 섬 컨퍼런스’ (Isles of Exile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노퍽섬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와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과 유배지로서의 유산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그 대표적인 섬으로 타즈마니아, 뉴칼레도니아, 괌, 코이바 섬, 칠레의 도슨 섬, 페루의 이슬라 고르고나, 하와이의 몰로카이, 러시아의 사할린 섬 등이다.

‘유배의 섬 컨퍼런스’는 유배지로서의 섬들이 갖는 중요한 역사와 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유배지들의 유산을 보호보존하고 이해하여 다음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0월에 열린 컨퍼런스는 6개의 테마별로 각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문화유산과 역사유적 프로젝트 담당자인 비즐리(O.Beazley)는 “유배의 섬 : 세계유산 리스트에서의 기억의 장소”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발표하였고, 태평양 역사가인 메이왈드(B.Maywald)는 “과거의 유배지, 누구를 위한 철학적 유산인가?”를 발표하였다. 그런가하면 여행가 가드(S.Gadd)라는 “타즈마니아가 유배유적 투어로 얻는 이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0년 오스트레일리아 교토소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 2) 유배지 투어

나폴레옹의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의 투어를 “나폴레옹 투어”라고 한다. Royal Mail Ship 여행사 주관하여 2010년 10월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루어졌던 나폴레옹 투어는 옥스퍼드와 케이프타운 서머스쿨 대학 강사를 겸임하는 나폴레옹 전문가 크리스토퍼 댄지거와 동행하는 투어로 선상 프로그램과 섬 관광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다.

스케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나폴레옹 투어 >

### ■ 선상 투어 스케줄

-10/24: 케이프타운 관광

-10/25: 케이프타운에서 출발, 휴식

-10/26: 10시 30분에 메인 라운지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간단한 토론을 함

주제 : “세인트 헬레나 섬의 발견과 정착과정”

-10/27: 세인트 헬레나와 나폴레옹의 인생에 대한 강연

-10/28: 휴식

-10/29: 세인트 헬레나: 사람, 사회, 경제, 미래에 대한 강연

-10/30: 세인트 헬레나 섬 도착

\*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선상 크루즈, 토론회, 강연회에 참여할 수 있음

### ■ 섬 관광 프로그램 스케줄

-10/31: 제임스타운 산책 - 제이콥의 사다리, 성 야고보 성당, 법정, 성, 정원 등 풍광 감상.

-11/1: 전날에 비해 장거리를 이동하여 요새 유적, 석회 가마 탐방.

-11/2: 룽우드로 이동. 나폴레옹이 살았던 곳을 방문. 룽우드 하우스 박물관과 정원 감상. 밀레니엄 포레스트로 이동하여 자연 풍광 감상. 디드우드로 이동하여 세인트 헬레나에 자생하는 새 감상. 제임스 타운으로 돌아와 나폴레옹의 무덤, 성 마태오 성당, 허츠 게이트, 헬리 전망대 감상.

-11/3: 배를 타고 세인트 헬레나의 절벽과 새, 해안의 요새를 감상.

-11/4: 자유활동. 조지 벤자민의 세인트 헬레나 고유 식물에 대한 강연. 이후 하이피크로 이동하여 실제로 식물 감상. 세인트 헬레나 성당과 십자가 감상. 이후 샌디 베이 분지를 구경하며 지역의 화산활동 흔적 탐방. 마나티 베이와 스피리 섬 관광.

-11/5: 자유활동 혹은 옵션 관광으로 식민지 유적 구경. 플랜테이션 하우스

로 이동하여 세인트 헬레나 총독 관저 구경. 근처의 성당과 보어 무덤 방문.  
프린스 라지를 방문하여 지역의 역사가 담긴 석판 인쇄화 구경.

-11/6: 자유활동 혹은 옵션 관광으로 세인트 헬레나 국립공원 구경.

-11/7: 출발 - 돌아오는 도중 선상에서 세인트 헬레나 감상에 대한 작은 토론회 개최

-11/12: 케이프타운 도착

-11/13: 투어 마무리

### <굴락 투어>

러시아에는 세계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유배지 여행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굴락 투어’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리투아니아의 굴락 투어다. 이 프로그램은 50달러를 내고 소련의 악명 높은 유배지 생활에 참여하는 리얼리티 쇼다. 그래서 이 체험은 더욱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소련의 어느 유배지에 있다고 믿게 된다.

투어 운영자들에 의하자면 여기서는 소련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데 초점이 있지,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리투아니아의 굴락 투어는 실제로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차별화된 리얼리티 쇼를 지향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잠시 현실을 떠나 소련 유배지의 상황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리얼리티 쇼는 매우 교육적이다. 누구든 도망칠 수 없는 곳에 갇혀서 알아듣지 못할 말로 폭언을 들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 3) 유배캠프

독일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포기한 10대 문제아를 러시아의 오지 시베리아로 보내 개과천선시키는 유배캠프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기센시 당국은 청소년들을 유배지로 유명했던 시베리아의 세텔니코보로 청소년들을

보내 9개월간 머물면서 갱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세텔니코보는 영화 55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지로 인구는 약 5000명 되는 마을이다. TV는 물론 인터넷도 없으며 난방을 위해선 장작을 스스로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독일에서 못된 성질을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된 문제아들은 평균 기온 영하 55도의 시베리아로 보내져 러시아어를 하는 가이드 1명과 함께 화장실도 없는 외딴 오두막집에 살며 빨래와 취사까지 직접하게 된다.

기센시 청소년국은 “이 프로그램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며 “독일의 과도한 소비문화 유혹에서 소년을 격리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한다. “과정의 절반을 마친 소년이 도우미와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혹독한 여건에서 살면서 자신감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길렀다”고 평가했다. 독일 청소년 선도단체 AGJ는 한해 약 600명의 불량 청소년에게 외국에서 갱생 프로그램을 받게 했다. 그 가운데 시베리아에서 했던 유배캠프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 V

### ■ 제주유배문화의 가치

#### 1) 문화예술향, 학술적 가치

유배문화의 가치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문학적 가치라고 해도 무방하다. 경상남도도가 「남해유배문학관」을 건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유배인들이 남긴 漢詩나 歌辭, 書簡, 紀行文 등등의 양과 질은 제주유배문학만을 독자적으로 강조하기에도 모자람이 없다. 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자료 발굴과 해석 등을 통해 더욱 심도있

게 진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계획과 연계해 「제주문학관」이 2018년에 조성될 예정인데 그 안에 어떤 콘텐츠들이 구비될지 모르지만 결코 제주유배문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와 함께 추사체나 전각, 세한도 등 제주유배문학의 예술적 가치도 간과 할 수 없다. 자발적 유배인들이라 할 수 있는 이중섭이나 이왈중 나아가 최근의 보헤미안 브루조아지라는 BOBOS들의 제주도에 서의 문화예술활동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제주유배문화에 대한 국문학은 물론 역사학, 사회학, 교육학,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가치도 매우 크다. 제주학회의 유배문화에 대한 학술대회도 이러한 학술적 가치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산업적 가치

제주유배문화는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가치나 학술적인 가치 외에도 그 자산을 활용해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문화산업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유배문화의 산업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런 제주유배문화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제주유배문화의 산업적 가치가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필자는 「제주유배문화관」을 건립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현재 대부분의 제주유배문화 자원은 통상적인 문화재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유적, 사적 또는 유물, 보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역사 흔적에 해당된 것은 아니다. 적거터와 같이 역사의 흔적임에도 형상이 남아있지 않거나 그 확보가 불분명한 자원에 대해서는 안내판 또는 표지석이 경계석 위, 화단 위 등에 체계없이 설치되어 있을 뿐 이것이 설치된 위치에 대한 정보도 누락되어 있는 곳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 제주에서는 유배문화 자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제주 유배의 대표적인 인물인 추사 김정희와 관련하여 추사적거지 재정비

및 추사관 건립이 진행 되었지만 이는 추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테마전시관으로 제주 유배문화 전체를 담기에는 시설 적, 콘텐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의 성격 역시 정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드러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12월, 전남 강진군은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四宜齋”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공모에 들어갔다. 필자는 일찍부터 “추사관”의 민간위탁을 주장해 왔다. 제주도 공영관광지 30곳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 “추사관”은 2013년부터 28, 29, 27위를 기록하면서 매년 2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최고의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체험프로그램이나 유배상품개발에 대한 의지와 열의가 미약한 탓이다. 공무원들에게 유배프로그램이나 상품을 개발을 기대한다는 것이야말로 착각인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에서 유배문화를 연구, ‘제주유배길’ 조성, “유배영화제”, ‘유배음악회’, “유배꽃차전시회” 등 개최, “광해 빛의 바다로 가다”와 같은 음악창작극 발표, 추사유배지 생생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제주유배문화를 소개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활동적인 작업이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나 시설이나 시스템적인 한계로 지속성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제주유배문화관의 건립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충실한 콘텐츠는 물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적 마련이 병행되어 제주의 유배관련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배의 역사를 바르게 알리며, 새로운 관광과 문화산업자원으로 재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 수 있어야 한다. 제주유배문화관을 기반으로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때 그 확장성이나 지속성이 클 것이라 여겨진다.

### 3) 교육적 가치

제주도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출구가 거의 유배뿐이었던, 닫힌 시대도 있었다. 그런 시대에도 유배인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제주도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생명의 대사활동을 부지런히 했었다. 가장 단혀있었지만 활발한 교육활동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열려있던 시대이기도 했다.

유배인들 대개가 사대부였다. 사대부란 현·전직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유교적 지식계급을 말한다. 그들은 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고 정치인이면서 또한 학자였다. 그렇기에 그들이 유배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제한될 도리밖에 없었다. 대신에 자연스레 학자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런 신분적 특징 때문 추사만이 아니라 여러 유배인들은 ‘조용히 지내며 책을 읽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이야말로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유배인들은 자신의 인격수양은 물론 많은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유배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명도암선생이 굴림서원이라는 212년의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학을 창건하고 이러한 전통이 후일 제주의 근대, 현대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대사활동과 무관치 않다. 그러기에 “귀양 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짚어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장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개발되어 문채 나는 아름다움은 서울풍이 있게 되었다.” 고 추사 김정희는 전한다.

제주도 사람들의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필자는 유배인들의 교학활동과도 관련이 깊다고 여긴다. “추사는 불행했지만 제주는 행복했다” 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추사 같은 유배인 덕분에 교육활동이 가능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 최근 지난 11년간의 “지역별 수능 1-2등급 비율변화 조사”에서 제주는 수능 우수 학생의 비율로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유지했고 작년에는 1위를 했는데 고입연합고사제도가 학력성장을 주도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제주유배문화라는 역사적인 해석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최근, 통계패함이 예상되었던 시외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 증가도 자발적 유배인 자녀들의 순수입 증가와 당연히 관련이 크다.



#### 4) 통합적 가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주이주민들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2016 제주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이주민 증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48.9%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인식은 22.5%로 조사됐다. 28.6%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이주민 증가는 경제성장과 다양성 확보 등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쓰레기 대란, 환경문제, 집단 간 갈등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따라서 지역주민과 이주민간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유대관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마치 “유배인들이 나날이 늘어나 마치 섬 전체에 가득 찬 것 같아 제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웃고 한편으로는 한탄한다” 고 하던 한말의 제주유배인 김윤식이 『속음청사(續陰晴史)』에서 걱정하던 상황과도 흡사하다.

그런데 제주유배문화는 제주도민과 이주민간 상생 협력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여겨진다. 필자는 2016년 한 해 동안 “자발적 제주유배인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제주 한림 이시돌 목장의 P.J.맥그린치신부님에 대한 장편 다큐멘터리 <돼지신부>를 감독으로 직접 촬영하였고 올해 개봉할 예정이다. 25세의 아일랜드 청년이 자발적으로 제주도를 찾아와 88세 노인이 되기까지 평생을 제주도를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이에 맞춰 제주대 양영철교수도 그분의 평전 『오병이어의 기적, 제주한림 이시돌 맥그린치신부』를 완성하였고 그와 함께 <돼지신부>가 개봉이 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유배인들의 헌신에 대해 비슷한 감동을 맛보리라 여겨진다.

이는 제주도민과 이주민간에는 이해가 우선 필요하고 그 이해가 선행이 될 때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유배문화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1세션

# 바깥에서 본 제주의 유배 역사 · 문화

- 원나라에서 고려로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
  - S. 출몬(국립 울란바야타르대학교, 몽골)
  
- 유배지로서의 탐라(耽羅) : 명초(明初) 20년의 위치와 운명
  - 원난(雲南)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 테무르(남경대학교, 중국)
  
-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본 제주의 유목문화
  - 박원길(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



제1세션

원(元)나라에서 고려로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

S. 출문 (국립 울란바야르대학교, 몽골)



## "Юань улсаас Солонгост цөлөгдөж байсан Монголын язгууртнууд"

С.Цолмон

(Улаанбаатарын их сургууль, Монгол улс)

1990 онд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хоёр улс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хорин тав гаруй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рдэмтд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 улам бүр гүнзгийрч, өргөжсөөр байна.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нэг чухал асуудлын нэг нь Юань Гуули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юм. Өгүүлэн буй үеийн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асуудлаас захидал харилцааны бичиг, худ ургийн асуудал нэлээд судлагджээ. Харин XIII-XIV зууны үед монголын алтан ургийн язгууртнуудыг цөлж байсан Гуулин улсын Дайчөн-до, Инъмүл-до, Корань-до, Йөым-до, Инбүн-до, Пайгрйөн-до, Оя-до, Йөнхын-до, Жовөл-до, Оань-до, Тамна зэрэг арлуудаас зөвхөн Тамна л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Японы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удалсан эрдэмтдийн бүтээлд өөр асуудлуудаар дам хөндөгдснийг эс дурдвал монголын түүх бичлэгт энэ асуудал судлагдаагүй байна.

XIII-XIV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Японы харилцааг судалсан доктор Б.Лхагва<sup>1</sup>, доктор Т.Мөнхцэцэг<sup>2</sup> нарын бүтээлд Жэжү арал нь далайн зам харилцааны чухал боомт, цэргийн стратеги, монгол цэргүүдийн чухал түшиц газар байсныг дам дурдаад газар зүйн хувьд эх газраас Япон руу гарах гүүр, гарц нь Жэжү арал хэмээн үзэж эх газрын соёл гол төлөв Гуулин улсаар дамжин Японд хүрч байсан гэж үзжээ.

Сүүлийн үед хэвлэгдэн гарсан зарим зохиолын дотор тухайлбал Мин улсын эхэн үед Чиүван Хэн гэгчийн зохиосон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ы түүх”<sup>3</sup>, БНХАУ-ын судлаач Сугдаржавын орчуулж тайлбарласан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 дахь хатад хийгээд сул хатдын шашдир<sup>4</sup>, МУ-д Д.Идэрийн “Их Юань улсын хатад”<sup>5</sup> зэрэг ном хэвлэгдэн гарсан ба бидний сонирхон буй цөллөгийн тухай асуудал бага боловч хөндөгдсөн нь уг асуудлыг тодруулахад чухал мэдээ өгч байгаагаараа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Онцлон дурдах нэг зохиол бол БНСУ-ын эрдэмтэн, доктор Пак Вонгилийн монгол хэлээр орчуулагдан гарсан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удлах нь”<sup>6</sup> зохиол бөгөөд түүнд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рын мэдээг шүүн үзэж Гуулин улсын арлуудад урт боло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гаар цөлөгдөж байсан монголын ноёд язгууртны тухай тусгайлан авч үзэж түүнийгээ хүснэгтээр харуулсан нь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д чухал үнэ цэнэтэй шинэ мэдээ байна. Дээр дурдсан мэдээнүүдийн зарим нь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 болон бусад

<sup>1</sup> Б.Лхагва,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уламжлалаас, Сөүл, 1996

<sup>2</sup> Т.Мөнхцэцэг, XIII-XIV зууны Монгол-Японы харилцаа, УБ., 2006

<sup>3</sup> [Мин] Чиүван Хэн,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ы түүх. Модон барын эхийг Балжуур монголчилов. Ч.Алтансүмбэр, Буянт монголчилж тайлбарлав. Үндэсний хэвлэлийн хороо, Бээжин, 2005

<sup>4</sup>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 дахь хатад хийгээд сул хатдын шашдир”- Сугдаржав орчуулж тайлбарлав. ӨМ-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ик мэргэжлийн хэвлэлийн хороо, Улаанхад, 2011

<sup>5</sup> Д.Идэр, Их Юань улсын хатад, УБ., 2016

<sup>6</sup> Пак Вонгил.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удлах нь-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 С.Цолмон, Пак Вонгил., УБ., 2014, т. 76-88

сурвалжийн мэдээтэй уялдаж байгаа нь уг асуудлыг бага боловч тодруулах боломж олгож байгаа юм.

Миний энэхүү илтгэл монголын цөлөх ялын тухайд хийсэн анхны оролдлого бөгөөд сурвалж бичгүүдийн зөрүүтэй байдал, адил нэртэй хүмүүс олон байснаас үүдэн алдаж эндсэн зүйл байхыг үгүйсгэхгүй бөгөөд засч залруулж дэмжлэг үзүүлнэ гэдэгт итгэж байна.

2016 онд “Монгол сурвалж бичгийн өв” цувралын тэргүүн дугаарт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ын Дандаа хэмээх Дэмчигдоржийн орчуулгыг зургаар хэвлэн гаргасан<sup>7</sup> нь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түүх, Монгол-Гуули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асуудлыг гүнзгийрүүлэн үзэх боломжийг нэмэгдүүлэв.

1917 оноос Дэмчигдорж Юань улсын судрыг орчуулж эхлээд дундаа 1920-1923 онд монгол орон дайн самуунтай байсан үед түр завсарлаад дахин үргэлжлүүлж 1928 онд 210 ботийг бүрэн орчуулж дуусгасан билээ. Уг орчуулга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нийтийн номын санд гар бичмэлээр байсан нь эрдэмтэн судлаачдаас өөр хүн ашиглах боломж нь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байсан юм.

Дандаагийн монгол орчуулгын Юань улсын судрын 208-р дэвтэр, Гадаад аймгийн шашдирын ерэн тавд Гаоли улсын түүхийг бичжээ. Тийнхүү бичихдээ дотор нь дэд сэдэв болгон залгуулан Тан лу улс хэмээн тусад нь өнөөгийн Жэжүгийн тухай товч бичсэн нь сонирхол татаж байна. Гаоли улсад олон арал байхад бичээгүй атлаа Жэжүг тухайлсан гарчгийн дор тусад нь бичсэн, текстийн дотор Тан лу-г улс хэмээн тэмдэглэсэн нь бусад арлаас арай бие даасан байдалтай байсныг зааж байсан болов уу? хэмээн санана. Үүнд: Тан лу нь Гуулины хамаарсан улс болай ..... гээд шууд улс гэрдор (Юаньд) хавсруулсан тулд гуйх нь хуучин хэвээр болгох болов уу? хэмээсэнд хаан өгүүлрүүн энэ нь бага хэрэг эргүүлэн Гаоли-дур харьяатуулбаас болмой<sup>8</sup> хэмээв. Үүнээс даруй басхүү Гаоли-дур хавсруулжээ гэснээс үзэхэд Жэжүг харьцангуй сүүлд Гаоли улсад нэгтгэсэн мэт санагдана.

Японы эрдэмтэн Окада Хидэхиро: “Корёчуудын 30 гаран жилийн тэмцэл дуусгавар болж нутаг дэвсгэр нь Юаны харьяат болсон тэр үеэс Жэжү арал нь монголчуудтай холбогдож нягт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болсон. Самбёлчогийн бослого дэгдсэн нь Япончуудын хувьд таатай хэрэг болов. .... 1276 онд Тарачи гэдэг Юаны даргач 160 морь авчирч бэлчээр болгожээ. 1294 онд Хубилай хааныг нас барсны дараа Корё ван Төмөр хаанаас Жэжүг эргүүлэн өгөх хүсэлт гаргасан” хэмээн тус арлын талаар чухал мэдээллийг өгч байна.<sup>9</sup>

<sup>7</sup>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 18 боть. //Монгол сурвалж бичгийн өвийн цувралын тэргүүн дугаар. Орчуулсан Дандаа чянсан хэмээх Дэмчигдоржийн орчуулга, Эрхлэн хэвлүүлсэн Г.Аким, М.Баярсайхан, УБ.2016

<sup>8</sup>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 Боть 18. CXCVI-II CX дэвтэр. 95 дугаар дэвтэр. //Монгол сурвалж бичгийн өвийн цувралын тэргүүн дугаар. Орчуулсан Дандаа чянсан хэмээх Дэмчигдоржийн орчуулга, Эрхлэн хэвлүүлсэн Г.Аким, М.Баярсайхан, УБ.2016. т.490-492

<sup>9</sup> Окада Хидэхиро. Монголын эзэнт улсаас Манжийн эзэнт улс руу, Фүживара Шётэн.2010. тал 174-176. Т.Мөнхцэцэгийн орчуулгаар ашиглав.



Хубилай хаан Тан лу-г чухалчилж байсны учрыг өмнө Юань улсын судрын текстийн дотор “Өмнө Сүн улс, Жи бэний их замын чухал тул мөнхүү санаа агуулжээ”<sup>10</sup> хэмээснээс харж болно.

Юань улсын үед монголын алтан ургийн язгууртан хүмүүсийг Гуулин улс руу цөлж байсан тухай өгүүлэхийн өмнө Монголд цөлөх ял байсан эсэх эсвэл суурин орныг эзлээд түүний нөлөөгөөр ийм ял буй болсон уу? гэдгийг нягталж үзэх хэрэгтэй юм.

Их Монгол улс болон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бичгүүдэд И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еийн цөллөгийн тухай мэдээ маш бага буюу бараг үгүй гэж хэлж болно.

Чингис хааны үед цөлөх ялаар шийтгэж байсан тухай ганц нэгэн мэдээ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sup>11</sup> болон перс хэлний түүхэн сурвалж Рашид-ад-Диний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тэмдэглэгджээ.

Рашид-ад-Диний “Судрын чуулган”-ыг перс хэлнээс монгол хэлнээ орчуулсан орчуулга энэ хир гараагүй байгаа ба 1946, 1952, 1960 онуудад Л. А. Хетагуров, О. И. Смирнов, Ю. П. Верховский, А. К. Арендс нарын перс хэлнээс орос хэлнээ хөрвүүлсэн орчуулгаас<sup>12</sup> Ц.Сүрэнхорлоогийн орчуулсан “Судрын чуулган”-ы монгол орчуулга<sup>13</sup>, нөгөө нь Харвард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эрдэмтэн В.Такстон перс хэлнээс англи хэлэнд орчуулсан 1999 оны англи орчуулгаас<sup>14</sup> Г.Акимын орчуулсан<sup>15</sup> 2 монгол орчуулга байгаа билээ.

Бид өөрсдийн өгүүлэн буй сэдэвт холбогдох мэдээг хоёр орчуулгаас нь хайж үзэхэд ганц мэдээ л олдсон юм. Дээрх хоёр орчуулгын мэдээг харьцуулж үзье.

Ц.Сүрэнхорлоогийн орос орчуулгыг баримтлан орчуулсан орчуулгад: Чингис хаан “Хэрэв миний ургийнхнаас хэн нэгэн нь тогтоосон яса хуулиа зөрчвөл үгээр сургамжилдаг, хэрэв түүнийг дахин зөрчвөл бэлэгдэлийн дагуу цээрлүүлдэг, харин гуравдахь удаагаа зөрчвөл алс холын нутаг Балжин-Кульжурт (хөлчүр-т) явуулаг. Тэр тийшээ яваад эргэж ирэхдээ ухаарах болно. Хэрэв тэр засраагүй байвал дөнгөлөөд харанхуйд хориг, тэр хэрэв тэндээс гарахдаа төрх төлөв нь засарсан, ухаалаг болсон байвал тэр чинээ сайн хэрэг,чингээгүй байвал түүний ойрын ба холын бүх төрлүүд нь

<sup>10</sup>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 Боть 18. СХСХVI-ПСХ дэвтэр. 208 дугаар дэвтэр. //Монгол сурвалж бичгийн өвийн цувралын тэргүүн дугаар. Орчуулсан Дандаа чянсан хэмээх Дэмчигдоржийн орчуулга, Эрхлэн хэвлүүлсэн Г.Аким, М.Баярсайхан, УБ.2016. т.490

<sup>11</sup>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Сонгомол эх. Ш.Бира нар УБ.,2005. §227

<sup>12</sup> Рашид ад-Дин. Сборник летописей / Пер. с персидского Л. А. Хетагурова, редакция и примечания проф. А. А. Семенова. — М.,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52. — Т. 1, кн. 1. Рашид ад-Дин. Сборник летописей / Пер. с персидского О. И. Смирновой, редакция проф. А. А. Семенова. — М.,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52. — Т. 1, кн. 2. Рашид ад-Дин. Сборник летописей / Пер. с персидского Ю. П. Верховского, редакция проф. И. П. Петрушевского. — М.,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60. — Т. 2. Рашид ад-Дин. Сборник летописей / Перевод А. К. Арендса. — М.,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46. — Т. 3.

<sup>13</sup> Рашид ад-Дин. Судрын чуулган, 3 боть, Орос хэлнээс эх хэлнээ хөрвүүлсэн Ц.Сүрэнхорлоо. УБ.,2002.

<sup>14</sup> Rashiduddin Fazlullah. JAMI'U'T- TAWARIKH Compendium of Chronicles. A History of the Mongols. 3 Vol., Translated and Annotated by W.M.Thackston. Harvard University.1999.

<sup>15</sup> Рашидаддин Фазлуллах. Шашдарын чуулган хэмээх монголчуудын түүх оршивой. 2 боть. Англи хэлнээс орчуулж, уялга үг бичиж, тайлбар зүүлт үйлдсэн Хатагин Готовын Аким. Хоёрдах хэвлэл. УБ.,2013(тэргүүн боть), 2015(дэд боть)

хуран цуглаж, эелдэн зөвлөлдөж яахаа шийдэг”<sup>16</sup> гэжээ. Англи хэлнээс монгол хэлнээ орчуулсан Г.Акимын орчуулгад “Хэрэв миний ургийнхнаас хэн нэгэн нь нэгэнт тогтоосон Их засаг хуулийг зөрчвөл амаар сургамжлатугай, хэрэв түүнийг дахин зөрчвөл чанга донгодтугай, харин гурав дахиа зөрчвөл алс холын Дөрвөлжин Хулчунд нутаг заатугай. Тэр тийшээ яваад эргэж ирэхдээ ухааран гэмших болмуй заа. Хэрэв тэр засраагүй байвал [дөнгөлөөд] хар гэрт хорьтугай. Тэр хэрэв тэндээс гарахдаа төрх төлөв нь засарсан, ухаалаг болсон байвал тэр чинээ сайн хэрэг, чингээгүй байвал түүний ойр, холын бүх төрлүүд нь хуран цуглаж, эетэлдэн зөвлөлдөж түүнийг яахыг шийдэгтүн”<sup>17</sup> гэжээ.

Энд нэг гол анхаарах зүйл бол Их засаг хуулийг зөрчсөн алтан ургийн хүнийг үе үе шаттайгаар шийтгэх тухай өгүүлээд гуравдах удаагаа зөрчвөл цөлөх тухай өгүүлжээ. Зарим орчуулгад цөлөх гэдэг үгээр бус хууль зөрчсөн гэмтнийг газар нутгийн нэр зааж явуул гэсэн байгаа нь агуулгаараа цөлөх гэдэг утга нь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гаа гэж үзэж болно. Дээрх 2 орчуулга агуулгын хувьд адил боловч нэг онцлон өгүүлэх зүйл нь цөллөгт явуулах газрын нэр зөрүүтэй байгаа юм. Орос хэлнээс орчуулсан Ц.Сүрэнхорлоо гуайн орчуулгад цөллөгт явуулдаг газрын нэрийг Балжин- Кульжур гэсэн бол англи хэлнээс орчуулсан Г.Аким гуайн орчуулгад Дөрвөлжин- Хулчун гэжээ.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д дурдагддаг газар усны нэрийг судалсан болон монгол орны газрын нэрийг судалсан эрдэмтдийн судалгаанд Дөрвөлжин Хулчун гэсэн нэр одоогоор хараахан тохиолдоогүй байна<sup>18</sup>. Харин Балжин-Кульжур гэдэг газар бол нягтлан үзвэл уг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ж болох мэт.

Балжин-Кульжур гэдэг газрыг түүхэн үйл явдлаар нь баримжаалж Балжун нуур байж болох юм гэж таамагл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нэ түүхт газар Чингис хаанта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хэд хэдэн удаа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д дурдагдсан байдаг. Тухайлбал Балжун нуурт байхад нь сартагтайн Асан хэмээх худалдаачин ирж худалдаалж байсан<sup>19</sup> ба мөн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дурдснаар Чингис хаан Халзан Элээтийн тулалдаанд ялагдаад ухрахад цэргийн олонхи түүнээс салж одсон ажгуу. Чингис хаан Балжуна тийш одсон нь, тэр газар хэдэн жижиг булагтай хүн мал хүртэлцэхгүй байжухуй. Тиймээс тэд шавраас ус шавхан гаргаж ууж байжухуй. .... Тэр цагт Балжунад Чингис хаантай хамт байгсад цөөн бөгөөд тэднийг Балжунагийнхан гэж нэрлэдэг нь хаанаас урвалгүйгээр тэнд ирэгсэд гэсэн утгатай ажаам.<sup>20</sup> гэсэн үйл явдлуудтай холбон дурдагддаг. Балжун нуурын уснаас ууж андгай тангараг тавьж байсан Чингис хааны үнэнч андууд андгай тангаргаасаа урвалгүй эцсээ хүртэл явж Их улсыг байгуулсан

<sup>16</sup> Рашид ад-Дин. Судрын чуулган, Нэгдүгээр боть, Хоёрдугаар дэвтэр, Орос хэлнээс эх хэлнээ хөрвүүлсэн Ц.Сүрэнхорлоо. УБ.,2002, т.400

17 Рашидаддин Фазлуллах. Шашдарын чуулган хэмээх монголчуудын түүх оршивой. Тэргүүн боть. Англи хэлнээс орчуулж, уялга үг бичиж, тайлбар зүүлт үйлдсэн Хагагин Готовын Аким. Хоёрдах хэвлэл. УБ..2013 т. 453-454

18 Пэрлээ Х.”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ы газар усны нэрийн тухай урьдчилсан мэдээ.1948-/Х.Пэрлээ. Бүтээлийн чуулган. III боть. УБ.,2012., Монгол газрын нэрийн нэгэн зүйл. 1968-/Х.Пэрлээ. Бүтээлийн чуулган. II боть. УБ.,2012., С.Бадамхатан Э.Равдан нар Дэлхийд тархсан монгол газар нутгийн нэр. III дэвтэр. УБ.,2013. Бадамхатан С., Чингис хаан: Би энд нойрсно. УБ., 1997.

<sup>19</sup>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Сонгомол эх. Ш.Бира нар, УБ.,2005. §182

<sup>20</sup> Рашидаддин Фазлуллах. Шашдарын чуулган хэмээх монголчуудын түүх оршивой. Тэргүүн боть. Англи хэлнээс орчуулж, уялга үг бичиж, тайлбар зүүлт үйлдсэн Хатагин Готовын Аким. Хоёрдах хэвлэл. УБ..2013. т. 291

билээ. Тиймээс тэдний эдлэх эрх дарх бусдаас дээгүүр байсан билээ. Харин Кульжур гэдэг үгийн тухайд одоохондоо тайлбар өгөх боломжгүй байна.

“Их засаг”-ийн хуулийн заалтыг зөрчсөн хожмын алтан ургийнханд сануулга болгож, ухааран бодох боломж олгох зорилгоор зориуд энэхүү түүхэн газрыг сонгон явуулдаг байсан байж болох юм.

Мөн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д Чингис хаан хэшигтэн цэргийг өргөтгө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даа “Хэшигтэн хүн хэшиг огоорвоос, тэр хэшиг огоорсон хэшигтнийг гурван бэрээ шүүтүгэй! Мөн хэшигтэн бас ахин хэшиг огоорвоос, 7 бэрээ шүүтүгэй! Бас мөн хүн бие хараа өвчин үгүй, хэшигийн ноёноос хэлгүй бас мөн хэшигт гурвантаа хэшиг огоорвоос, 37 бэрээ шүүгээд, бидэнтэй явахдаа бэрхшээсэн ийм хүнийг эчнээ хол газар илгээе” хэмээн зарлиг болсон тухай, Чингис хаан “надтай зөвшилцөлгүйгээр миний хэшигтнийг бүү буруутгагтүн”<sup>21</sup> гэж зарлиг болсон тухай өгүүлжээ. Дээр дурдсан мэдээнүүд нь И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ед цөлөх ял байсан тухай мэдээ өгч байна.

Харин Хубилай хаан Юань улсыг байгуулсны дараа шинэ хаан сонгох буюу төрийн эргэлт хийх гэсэн оролдлого, бослого тэмцэл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алтан ургийн язгууртнууд, хан хөвгүүд, хатад нутаг заагдан цөлөгдөж байсан тухай мэдээ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т цөөнгүй тэмдэглэгджээ.

Хубилай хаан монголын улс төрийн төвийг өмнө зүг нүүлгэж Хятадад төвлөн суух болсноор төрийн гол хэргийг Дайдуд шийдэх болов.

Хубилай хаанаас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 хүртэл нийт 108 жил монгол хаад Дайдуд төр тэтгэн суухад төрийн эсрэг гэмт хэрэг болон хилс хэргээр олон хүн цаазаар авагдаж, ял сонсч байжээ. Бид цаазаар авах болон бусад ялын тухай үл өгүүлэн өөрсдийн сонирхож байгаа асуудалтай холбогдох цөллөгийн тухай асуудлыг товч авч үзье.

Юань улсын үед гол төлөв хаан ширээний төлөөх тэмцлийн улмаас цаазаар авагдах буюу цөллөгөнд явж байсан бөгөөд гол цөллөгийн газар нь Хятадын Юань, Гуанси, Дун ань жоу, Гуулин улсын Дайчөн-до, Иньмүл-до, Корань-до, Йөым-до, Инбүн-до, Пайгрйөн-до, Оя-до, Йөнхын-до, Жовөл-до, Оань-до, Тамна зэрэг арлуудад цөлж байжээ. Ямар ялтныг нь Хятадад болон ямрыг нь Солонгосын арлуудад цөлж байсныг ялгаж үзэхэд төвөгтэй байна.

Юань улсын үед хаан ширээний төлөө тэмцэл гүнзгийрч хаадын амь насанд халдах ноцтой болсон учир цөлөх газар нь хүнд хэцүү, буцах боломжгүй түүний дээр зарим үед хойноос нь хүн явуулж алуулах тохиол ч гарч байжээ. Хубилай хааны үед түүнийг эсэргүүцэн тэмцсэн Аригбөх, Наян нарыг дэмжиж тэмцсэн хүмүүсийн нэлээдийг Солонгос руу цөлсөн байж магадгүй байна. Хубилай хааныг эсэргүүцсэн Ляодунгийн хязгаарт гарсан Наян, Хадаан нарын бослогыг Баян жанжин дарсан ба Хайдугийн цэргийн хүчин баруун талаас довтлоход Хубилай хаан, Гамала хан хөвүүн, Баян нарыг Хархорумд их цэргийг удирдуулж, түүний эсрэг хөдөлгөсөн. Мөн Гүрөгийн Чүн Нёл вангийн цэргийг ардаас нь илгээсэн байна. Тэдгээр цэргийн хүчин бослогыг дарж олзны этгээдүүдийг зүг бүрт хуваан олгож байсны дотор солонгосын оролцогсдод хувь оногдож нутаг руугаа авч явсан байхыг үгүйсгэхгүй. Мөн доктор

<sup>21</sup>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Сонгомол эх. Ш.Бира нар, УБ., 2005. §227

Пак Вонгилийн хүснэгт 1-ээс харахад ч дээрх бослогуудад оролцсон хан хөвгүүд, алтан ургийн гишүүд ч бас байгаа юм.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т дурдагдаж буй цөлөх ялын тухайт мэдээг нэгэн илтгэлийн дотор бүгдийг хамран оруулах боломжгүй учир доктор Пак Вонгилийн “Т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т дурдагдсан зарим хүмүүсийн намтрын мэдээг бусад сурвалжийн мэдээгээр нэмэн тодруулахыг оролдъё.

Пак Вонгил докторын хүснэгт 1-ний <sup>22</sup> эхэнд дурдагдаж байгаа Аячийг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т Хубилай хааны зургадугаар хөвүүн Аячи их ван. <sup>23</sup> Эх нь тодорхойгүй.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8 дахь хөвгүүн. Түүний эх нь Хүшин аймгийн Уругал ноёны охин Хушинжин гэжээ. <sup>24</sup> Жи Юань-ий 24-р он 1287 онд урвасан ван Шидурыг дарахаар цэрэг тулалдаж ялсан. Жи Юань-ий 28 дугаар он буюу 1290 онд хаан түүнд алтан тамга соёрхов. Аячид олгох жил бүрийн цалин пүнлүү нь 50 лан мөнгө, 1000 хэлхээ Жун Тунгийн цаасан мөнгө, 1656 хэлхээ Жи Юань-ий цаасан мөнгө билээ. Жил бүрийн татвар нь 544 хэлхээ цаасан мөнгө. 1312 онд Буянт хаан түүнд Шао У, Гуанзи-гийн 13640 өрхийг соёрхсон тухай өгүүлжээ. <sup>25</sup>

Мөн хүснэгтийн хоёрт дурдагдаж буй Ширэги нь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Мөнх хааны гуравдугаар хүү Ширэги, Баяужин нэртэй бага хатнаас төрсөн гэжээ. <sup>26</sup>

Хубилай-Аригбөх нарын хаан ширээний тэмцэлд Хубилай ялж 1268 онд Ширэгийг Хэпин вангаар өргөмжилсөн. 1267 оноос эхлэн Умардыг түвшитгэх ван Номухан, Нин ван Хөхчү нарын удирдсан цэрэгт багтаж, Хайду ханы цэргээс сэргийлж Алтайн чинадад суусан. 1276 онд Хубилай хааны их цэрэг, Өмнөд Сүн улстай дайтаж байхад бослого гаргаж, тэднийг барьцаалж Хайду ханд хүргэж өгсөн. Гэтэл Хайду хан тэднийг авахаас татгалзаж, олзны хүмүүсээс Антуныг өөртөө авч, Хөхчү, Номухан нарыг Мөнхтөмөр ханд хүргэж өгчээ. 1276-1277 онд хонгирад аймгийн Зургаадай ноён хамтаар Хархорум хот, Инчан хотыг эзлээд, Инчан хот, Туул голд Баян ноён, Тутуха ноён нарын их цэрэгт ялагдаж Алтайн нуруу тийш зугтан оджээ. 1277-1280 он хүртэл өөр хоорондоо хаан ширээний төлөө байлдаж, эцэстээ Мөнх хааны ач хүү Сарбан нь Ёмухур, Ширэги нарыг барьж Хубилай хаанд бууж өгсөн.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Хубилай хаан Ширэгийг авч, түүнийг далайн эрэгрүү халуун газар явуулсан учир тэндээ үхсэн ажгуу <sup>27</sup> гэжээ.

Мөн хүснэгтийн гуравдугаарт дурдагдаж буй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т дурдснаар Хөхдэйг их ван гэснээс алтан ургийн шууд удмын хүн болох нь тодорхой. Түүний

<sup>22</sup> Пак Вонгил.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удлах нь-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С.Цолмон, Пак Вонгил., УБ.,2014, т.77-78

<sup>23</sup>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 Боть 10. ХСІХ- СХІІІ дэвтэр. 107 дугаар дэвтэр. //Монгол сурвалж бичгийн өвийн цувралын тэргүүн дугаар. Орчуулсан Дандаа чянсан хэмээх Дэмчигдоржийн орчуулга, Эрхлэн хэвлүүлсэн Г.Аким, М.Баярсайхан, УБ.2016. т. 447

<sup>24</sup> Рашид ад-Дин. Судрын чуулган, Хоёрдугаар боть, Орос хэлнээс эх хэлнээ хөрвүүлсэн Ц.Сүрэнхорлоо. УБ., 2002, т.177

<sup>25</sup>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 Боть 9..LXXXIX-ХСVІІІ дэвтэр. 95 дугаар дэвтэр. //Монгол сурвалж бичгийн өв. УБ.2016. тал 374-375

<sup>26</sup> Рашидаддин Фазлуллах. Шашдарын чуулган хэмээх монголчуудын түүх оршивой. Дэд боть. Англи хэлнээс орчуулж, уялга үг бичиж, тайлбар зүүлт үйлдсэн Хатагин Готовын Аким. Хоёрдах хэвлэл. УБ.,2015, т.591

<sup>27</sup> Рашид ад-Дин. Судрын чуулган, Хоёрдугаар боть, Орос хэлнээс эх хэлнээ хөрвүүлсэн Ц.Сүрэнхорлоо. УБ., 2002, т.590

цөлөгдсөн цаг үе болон байдлаас үзэхэд Наяны бослогод оролцсон, Чингис хааны дүү Зочи Хасар, Тэмүгэ-отчигин, Хачиун нарын зэрэг зүүн жигүүрийн ханы удмын хойчис бололтой. Цөлөгдсөн арал нь Дайчин-до гэжээ.

Түүнтэй нэр ойролцоо мөн Гуулин улсад цөлөгдөж байсан Хөхчүг түүнтэй харьцуулан үзэхэд амьдарч байсан цаг хугацаа зөрүүтэй учир нэг хүн гэж үзэх боломжгүй байгаа ба цөлөгдөж байсан хүний тоог нэгээр нэмж байна.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Хубилай хааны 9-р хөвүүн Нин ван Хөхчү (?-1313) Жи Юаний 26-р он буюу 1289 онд Хайду ханы их цэрэгтэй байлдсан тул Нин Юань ван (寧遠王) цол шагнаад Яст мэлхийн бариулт алтадмал мөнгөн тамга олгож, Монгол газарт бас цэрэг захируулан суулгасан. 1310 онд ялд унаж, Гуулин улс руу цөллөгт явсан. Тэрээр Аюурбарбад буянт хаанын үед цөллөгнөөс нь суллаад Даду хот руу буцаасан ч ирэх замдаа нас нөгчсөн гэжээ. Энэ хүний тухайд цаашид нягтлан үз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хэмээн бодож байна.

Доктор Пак Вонгилийн хүснэгтийн 15-д дурдагдсан Юань улсын Инзун гэгээн хаан Содбал хааны үед 1324 оны 1 сараас 1329 оны 3 сар хүртэл Дайчин-до аралд цөлөгдсөн тайж Пай-жа буюу Бор бидний анхаарлыг татаж байгаа юм.

1311 оны үед Аюурбарвад Их Юань улсын хаан ширээнд өргөмжлөгдөөд тэрээр Байжу-г баруун гарын тэргүүлэгч сайдаар томилжээ.

Байжу ноён (1298-1323) нь Жалайр аймгийн Мухулай ноёны удмын Антун ноёны ач хүү бөгөөд Юань улсын Буянт хаан, Гэгээн хааны төрд хүчин зүтгэж байсан монгол төрийн шударга сайд байжээ.

1320 онд Содбал хаан ширээнд суугаад Байжу-г үргэлжлүүлэн ажилуулсан эсэх нь тодорхойгүй ч хожм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аас нь харахад ажилла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1323 оны 9 сарын 4-нд Содбал гэгээн хаан, Байжу чинсангийн хамт нийслэл Дайдугаас гарч Шанду орох замд Морины өвчүү (Наньпу) гэдэг газар буухад Тэгш, Чинтөмөр нар цэрэг дагуулан ирж 20 настай Содбал хаан, Байжу чинсан нарыг хороожээ.” гэсэн байдаг. Гэтэл хүснэгтэд дурдагдсан Пай-жа 1324 оны 1 сараас Дайчөн-до аралд цөлөгдөж 5 жил болсон гэсэн мэдээ нь сонирхолтой бөгөөд цаашид нягтлаж үзүүштэй санагдлаа.

Хүснэгтийн 16-д дурдагдаж буй Тогоонтөмөрийн тухай авч үзье. 1332 онд Тугтөмөр хаан Шанду хотод нас нөгчив. Баруун гарын тэргүүлэгч сайд Элтөмөр Раднаадарийн дүү Элтөгсөөр их суурийг залгамжлуулахаар өргөн мэдүүлсэн байна. Элтөгс нь Будашир (Бодьшир) хатны төрсөн хөвгүүн юм. Будашир хатан ихэд болгоомжлон тэргүүлэгч сайд Элтөмөрийн айлтгалыг дагалгүй өгүүлсэн нь: “Урьдах хааны гэрээс зарлигт намайг тэнгэрт одсоны дараа их ах хутагт хааны хөвгүүнээр их орыг залгамжлуул” хэмээжээ. Тухайн үед Хүслэн хааны ахмад хөвгүүн Тогоонтөмөр зэрэг цол, эрхээ хасуулж, Жьин жьиан-гийн газарт цөллөгт яваад байжээ. Хоёрдугаар хөвгүүн Фү ван Ринчинбал дөнгөж долоон нас хүрч байв. Гэтэл Будашир хатан энэхүү завшааныг ашиглан Фү ван Ринчинбалыг их сууринд өргөмжлөөд төрийн эрхийг өөрөө атгах болжээ.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 эрийн цээнд хүрээд эцэг Хүслэн хааныг хорлогдож үхсэнийг мэдээд туйлын ихээр харуусан гашууджээ. Ингээд 1340 онд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 жуу бичиг буулгаж эцэг Хүсэлэ хааныг хороож алсан гол буруутан Тугтөмөр хааны сүмийн

шүтээний суурийг гарган хаяж, улмаар Будашир хатныг Дун ань жоу-д цөлөн явуулж, удалгүй Будашир хатан, хун тайж Элтөгс нарыг хорлон алжээ хэмээн тэмдэглэжээ.

Харин Юань улсын сүүлч үеэс Мин улсын эхэн үед Чиүван Хэний бичсэн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ы цадиг”<sup>28</sup>-т 1330 онд Тугтөмөр хааны зарлигаар Тогоонтөмөрийг Корё улсын Да чин аралд нутаг заан суулгаж, гаднах хүмүүстэй уулзахыг цаазлан хориглов. 1332 онд Гуань сьи-гийн Жьин жьиан чөлгөөд шилжүүлэн суулгасан гэжээ.

Дээр дурдсныг нэгтгэн дүгнэвэл:

Чингис хааны үед цөлөх ял нь сургамжлан ойлгуулах хандлага нь илүүтэй байсан бол Юань улсын үе болоход нэлээд чанга цаазын нэг болон хувирчээ. Төрийн эргэлт, хаан ширээ залгамжлуулах эгзэгтэй мөчид хуйвалда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сadyг хатуу чанадаар цээрлүүлж цаазаар авч байсан ба түүний дараах ял нь нутаг заан цөл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Цөлөх нь тодорхой хугацаатай зарим нь бүх насаар нь явуулж байв. Энэхүү ялд хааны их хатад, хан хөвүүд цөөнгүй тоогоор хамрагдсан нь тухайн үеийн улс төрийн байдал нэлээд тогтворгүй түгшүүртэй, ноцтой байсныг илтгэж байна.

Цөллөгөт олон тооны язгууртан түшмэл, алтан ургийн ноёд, түүний дотор их хатад цөөнгүй байсан нь олон хан хөвгүүдийн дундаас өөрсдийн хүүг хаан ширээ залгамжлуулахаар өрсөлдөж хуйвалдаан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буюу оролцдог байсантай холбоотой байна.

Энэ асуудлыг гүнзгийрүүлэн судлах нь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тодорхойгүй олон зүйлийг тодруулахад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Солонгос хэлээр орчуулсан : Ян Хесүг ( Улаанбаатарын их сургууль )

\*\* The Society for Jeju Studies, The 2017 JEJU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for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with a relegation culture of the islands, “Beyond the cut-off to communication - History and Culture Exchange of a relegation culture of the Islands”, 2017.1.11~12, Jeju

<sup>28</sup> [Мин] Чиүван Хэн,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ы түүх. Модон барын эхийг Балжуур монголчиллов. Ч.Алтансүмбэр, Буянт монголчилж тайлбарлав. Үндэсний хэвлэлийн хороо, Бээжин, 2005

## 원나라에서 고려로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

S.출몬 (Tsolmon)

(국립 울란바아타르대학교, 몽골)

1990 년 몽골과 한국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25 여 년간 몽골과 한국학자들의 공동 연구 활동과 그 범위도 한층 심화, 확대되고 있다.

몽골과 한국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원과 고려의 관계이다. 이 시대의 양국 교류의 문제 중 서간문, 혼인사는 상당히 연구되었다. 그러나 13-14 세기에 몽골 황금씨족의 귀족들을 유배 보냈던 고려의 대청도(大靑島), 인물도(人物島), 고란도(高鸞島), 여음도(與音島), 잉분도(荇盆島), 백령도(白翎島), 오야도(烏也島), 영흥도(靈興島), 조월도(祖月島), 오안도(烏安島), 탐라(耽羅) 등의 섬들 중에서 단지 탐라만 몽골·한국, 몽골·일본 교류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논저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다른 섬들로 유배간 자들에 대해서는 몽골의 역사논저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13-14 세기 몽골·한국, 몽골·일본의 교류를 연구한 B.하과(Lkhagva)<sup>1</sup>, T.멍흐체첵(Munkhtsetseg)<sup>2</sup> 박사 등은 논저에서 제주도에 대해 해상교류상 중요 항구, 군사적 전략, 몽골군대의 중요 기지였음을 간접적으로 기술하였다. 즉, 대륙문화가 주로 고려를 거쳐 일본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지리적으로 육지에서 일본으로 가는 가교, 출구였다고 보았다.

근래 출간된 일부 서적 중, 명대 權衡의 <<庚申外史>><sup>3</sup>, 중국의 속다르잡(蘇格德日扎布)이 역주한 <<元史·后妃傳>><sup>4</sup>, 몽골의 D.이데르(Ider)의

<sup>1</sup> B.하과, <<한국, 몽골-한국의 전통으로부터>> 서울, 두솔출판사, 1996 (키릴문)

<sup>2</sup> T.멍흐체첵, <<13-14 세기 몽골과 일본의 교류>> 울란바아타르, 2006

<sup>3</sup> [明] 權衡, <<庚申外史>>, 발조르 목판본에서 고전몽골문으로 전사, Ch.알탄숨베르(阿騰生卜尔), 보안트 譯註, 民族出版社, 北京 2005

<sup>4</sup> 蘇格德日扎布 譯註, <<元史·后妃傳>>,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赤峰, 2011 (고전몽골문)

<<대원의 황후들>><sup>5</sup> 등이 출간되었으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배에 대한 문제가 약간이나마 다루어졌는데, 이는 동 문제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기할 논저는 몽골어로도 번역, 출간된 한국의 박원길 박사와의 공저 <<한국·몽골 교류사 연구>><sup>6</sup>이다. 박원길은 이 연구서에서 <<高麗史>>의 기사를 중심으로 고려의 섬들에 장기간 또는 단기간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들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고, 이를 도표로 제시한 바, 이는 몽골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있다. 상기의 기사들 중 일부는 <<元史>>의 기사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동 문제를 조금이나마 규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발표자의 본 발표문은 몽골의 유배형 고찰에 대한 첫 시도이며 사료들의 불일치성, 동명의 인물들이 많아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 바, 제학자들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2016 년에 ‘몽골사료유산’ 총서 제 1 호로 단다(Dandaa)라고도 알려진 뎀치도르지(Demchigdorj)가 번역한 <<원사>>가 사진본으로 출간<sup>7</sup> 된 바, 이는 몽골제국사, 몽골·고려의 관계 문제를 심화시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더해주고 있다.

1917 년부터 뎀치도르지는 <<元史>>를 번역하기 시작하여 중간에 1920-1923 년 몽골지역에 전란이 발생했던 시기에는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며, 1928 년 210 권 전권을 완역하였다. 동 번역본은 몽골국립공공도서관에 필사본으로 소장되어 있어 연구자들 이외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단다의 몽역본 <<元史>> 중 卷 208, 外夷列傳 95 에 高麗(Qauli)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 기술에 이어 耽羅(Tang Lu) 國이라 하여 별도로 지금의 제주에 대하여 소주제로 간략히 기록한 점이 주목을 끈다. 고려에 많은 섬이 있어도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으면서 제주를 별도의 목차 아래 따로 기술하고, 본문에서도 탐라를 나라(ulus)로 표기한 바, 이는 다른 섬보다 좀 더 독립적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탐라는 고려의 관할국이다 ..... [고려왕이 상언하여 .....] 바로 조정(즉, 元)에

<sup>5</sup> D.이데르, <<대원의 황후들>> 울란바아타르, 2016

<sup>6</sup> 박원길, <한국·몽골 문화교류사 연구> - 박원길, S.출문, <<한국·몽골 교류사 연구>> 제 1 부에 수록, 울란바아타르, 2014, pp.76-88

<sup>7</sup> <<원사>> 전 18 책, 몽골사료유산 총서 제 1 호, 단다 창상으로 불리는 뎀치도르지 몽역, G.아킴, M.바야르사이한 책임출간, 울란바아타르, 2016 (고전몽골문 사진본)



예속시키려고 하니 아무쪼록 예전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이는 조그만 일이다, 되돌려 고려에 환속시키면 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다시 고려에 종속되었다”<sup>8</sup> 라고 한 기사로 볼 때, 제주를 비교적 나중에 고려에 합병시킨 듯 여겨진다.

일본학자인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는 “고려인들이 30 여 년간의 투쟁을 마치고 영토가 원에 예속된 그 때부터 제주도는 몽골인들과 관련되어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다. 삼별초의 난이 발발한 것은 일본인들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다. .... 1276 년에는 타라치라는 원의 다로가치가 말 160 필을 가져왔다. 1294 년 코빌라이 카간이 사망한 후 고려의 왕이 터머르 카간에게 제주를 환속시켜 달라는 청원을 했다”라고 하며 이 섬의 독립성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였다.<sup>9</sup>

코빌라이 카간이 탐라를 중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원사>> 본문에 “남송과 일본의 요충지임으로 해서 주목하였다”<sup>10</sup>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원대 몽골 황금씨족 출신 인물들의 고려 유배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 몽골에 유배형이 존재했었는지의 여부, 또는 정주국가를 정복하면서 그 영향으로 이러한 형벌이 생겼는지를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대몽골국 및 몽골제국의 역사와 관련 있는 몽골의 사료에는 대몽골국시대의 유배에 대한 기사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칭기스칸의 시대에 유배형으로 다스렸다는 유일한 기사는 <<몽골비사>><sup>11</sup>와 페르시아어 사료인 라시드 앗 딘의 <<집사>>에 기록되어 있다.

라시드 앗 딘의 <<집사>>를 페르시아어에서 몽골어로 번역한 번역본은 아직 없지만, 1946 년, 1952 년, 1960 년 L.A.헤타구로브(Khetagurov), O.I.스미르노브(Smirnov), Yu.P.베르홉스키(Verkhovskiy), A.K.아렌드스(Arends) 등이

<sup>8</sup> <<원사>> 제 18 책, 권 LXXXIX-XCVIII 수록 중 권 95, 몽골사료유산 총서 제 1 호, 단다 창상으로 불리는 뎀치도르지 몽역, G.아킴, M.바야르사이한 책임출간, 울란바야타르, 2016, pp.490-492

<sup>9</sup> 岡田英弘,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東京, 藤原書店, 2010, pp.174-176. T.멍흐체첵의 일본어 번역을 이용했음.

<sup>10</sup> <<원사>> 제 18 책, 권 LXXXIX-XCVIII 수록 중 권 208, 몽골사료유산 총서 제 1 호, 단다 창상으로 불리는 뎀치도르지 몽역, G.아킴, M.바야르사이한 책임출간, 울란바야타르, 2016, p.490

<sup>11</sup> <<몽골비사>> 정선본, Sh.비라 외, 울란바야타르, 2005, 제 227 절

페르시아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한 본<sup>12</sup>에서 Ts.수렝호를로가 번역한 <<집사>>의 몽골어 번역본<sup>13</sup>, 하버드대학교의 학자 W.M.썹스톤(Thackston)이 페르시아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1999년도 영역본<sup>14</sup>에서 번역한 G.아킴(Akim)의 몽골어 번역본<sup>15</sup> 등 2종의 몽역본이 있다

본 발표자는 서술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 있는 기사를 상기의 몽역본 2종에서 살펴 보았으나 단 1건의 기사만 찾을 수 있었다. 상기의 몽역본 2종의 기사를 비교해 보겠다.

노역본을 저본으로 한 Ts.수렝호를로의 몽역본에는: 칭기스 카간이 “만약 나의 친족들 중에서 누구라도 정해진 법령을 어긴다면 말로써 충고하라, 만약 이를 다시 어긴다면 성훈에 따라 징벌하라, 허나 세 번째 어긴다면 머나먼 곳인 발진-쿨조르 (Балжин-Кульжур) (хөлчүр)에 보내라. 그 쪽으로 갔다가 돌아 올 때는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뉘우치지 않는다면 칼을 씌워 어둠에 가두어라, 그가 만약 그곳에서 나와 행실을 바르게 하고, 정신을 차렸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가깝거나 먼 모든 친인척들은 모여서, 사이좋게 상의하여 어찌할지를 결정하라”<sup>16</sup> 라고 하였다. 영역본에서 몽역한 G.아킴의 번역본에는 “만약 나의 친족들 중에서 그 누구라도 이미 정해진 법령을 어긴다면 말로써 충고하라, 만약 이를 다시 어긴다면 엄중하게 질책하라, 허나 세 번째 어긴다면 머나먼 더르벌진-쿨촌 (Дөрвөлжин Хулчун)이라는 곳에 보내라. 그 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각성하겠지. 만약 그가 뉘우치지 않는다면 [칼을 씌워] 검은 게르에 가두어라. 그가 만약 그곳에서 나와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정신을 차렸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sup>12</sup> Рашид ад-Дин. Сборник летописей / Пер. с персидского Л. А. Хетагурова, редакция и примечания проф. А. А. Семенова. — М.,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52. — Т. 1, кн. 1. Рашид ад-Дин. Сборник летописей / Пер. с персидского О. И. Смирновой, редакция проф. А. А. Семенова. — М.,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52. — Т. 1, кн. 2. Рашид ад-Дин. Сборник летописей / Пер. с персидского Ю. П. Верховского, редакция проф. И. П. Петрушевского. — М.,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60. — Т. 2. Рашид ад-Дин. Сборник летописей / Перевод А. К. Арндса. — М.,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46. — Т. 3.

<sup>13</sup> 라시드 앳 딘, <<집사>> 3 권, Ts.수렝호를로, 노역본에서 몽역, 울란바아타르, 2002

<sup>14</sup> Rashiduddin Fazlullah. JAMI'U'T- TAWARIKH Compendium of Chronicles. A History of the Mongols. 3 Vol., Translated and Annotated by W.M.Thackston. Harvard University. 1999.

<sup>15</sup> 라시드 앳 딘 파즈롤라흐, <<집사-몽골인들의 역사>> 2 권, 하타긴씨족 G.아킴, 영역본에서 몽역, 머리말 및 해제, 제 2쇄, 울란바아타르, 2013(제 1 권), 2015(제 2 권)

<sup>16</sup> 라시드 앳 딘, <<집사>> 제 1 권, 제 2 편, Ts.수렝호를로, 노역본에서 몽역, 울란바아타르, 2002, p.400

가깝거나 먼 모든 친인척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상의하여 그를 어찌할지를 결정하라”<sup>17</sup>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대법령을 어긴 황금씨족 출신 인물의 단계적 징계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3 번째 어기면 유배라고 기술하고 있다. 일부 번역에는 ‘유배’라는 단어가 아니라 법을 어긴 죄인에 대해 지명을 지칭하면서 보내라고 한 바, 이는 내용상 ‘유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기의 번역 2 종은 내용상 동일하지만 특기할 사항은 유배지 명칭에 차이가 있다. 노역본에서 몽역한 Ts.수령호를로의 번역본에는 유배지 명칭을 ‘발진-쿨조르(Балжин- Кульжур)’라고 한 반면, 영역본에서 몽역한 G.아킴의 번역본에는 ‘더르벌진-쿨촌(Дөрвөлжин- Хулчун)’이라고 하였다.

<<몽골비사>>에 기록된 산천지명을 연구하였거나 몽골지역의 지명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서 ‘더르벌진 홀촌’이라는 이름을 아직 마주치지 않았다.<sup>18</sup> 반면, ‘발진-쿨조르’라는 곳은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와 관련되는 듯 하다.

‘발진-쿨조르’라는 곳에 대해 역사적 사건으로 추정해 볼 때, ‘발조나 호수(Балжун нуур < Baljuna nagur)’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 역사적 장소는 칭기스칸과 관련하여 몇 차례 <<몽골비사>>에 언급되었다. 예를 들면, 일례로, 발조나 호수에 있을 때 사르탁태 아산이라는 상인이 와서 거래하였다.<sup>19</sup> 또한 <<집사>>의 기록에 따르면, “칭기스칸이 칼잔 엘레에트 전투에서 패하여 퇴각할 때 군사 대부분이 그와 떨어져 갔다. 칭기스칸은 발조나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몇 개의 조그만 샘이 있었지만, 사람이나 가축에게도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진흙에서 물을 짜내어 마셨다. .... 당시 칭기스칸과 함께 있던 이들은 수가 적었는데, 그들을 발조나에 같이 있던 사람들(Балжунагийнхан)라고 부르는데, 이는 칸을 배신하지 않고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20</sup> 라는 사건들과 연관해 기술되어 있다. 발조나

<sup>17</sup> 라시드 앳 딘 파즈롤라흐, <<집사-몽골인들의 역사>> 제 1 권, 하타긴씨족 G.아킴, 영역에서 몽역, 머릿말 및 해제, 제 2 판, 울란바야타르, 2013, p.453-454

<sup>18</sup> Kh.페를레, <”몽골비사”의 산천지명에 대한 예비 정보>, 1948- Kh.페를레, <<논총>>제 3 권, 울란바야타르, 2012 에 재수록; Kh.페를레, <몽골 산천지명 일고>, 1968- Kh.페를레, <<논총>>제 2 권, 울란바야타르, 2012 에 재수록; S.바담하탄, <<칭기스칸: 나 여기에 잠들다>>, 울란바야타르, 1997

<sup>19</sup> <<몽골비사>> 정선본, Sh.비라 외, 울란바야타르, 2005, 제 182 절

<sup>20</sup> 라시드 앳 딘 파즈롤라흐, <<집사-몽골인들의 역사>> 제 1 권, 하타긴씨족 G.아킴, 영역에서 몽역, 머릿말 및 해제, 제 2 책, 울란바야타르, 2013, p.291

호수물을 마시며 맹세했던 칭기스칸의 충직한 의형제들은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며 대국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누릴 특권은 다른 이들보다 상위에 있었다. 그러나 ‘쿨조르(Кульжур)’라는 단어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풀이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령’의 조항을 어긴 후대의 황금씨족의 구성원에게 경고하면서, 각성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일부러 바로 이 역사적 장소를 선정해 보냈을 수도 있다.

또한, <<몽골비사>>에는 칭기스칸이 친위군(keshigten)을 확대 조직 할 때 “친위의 임무가 있는 자가 당직을 태만히 한다면 그 당직을 태만히 한 친위병을 3 대의 매를 때려 교도하도록 하라. 그 친위병이 또 다시 당직을 태만히 한다면 7 대의 매를 때려 교도하도록 하라. 또 같은 자가 몸에 병도 없이, 당직 노안들에게 말도 없이, 다시 그 친위병이 3 번째 당직을 태만히 한다면 37 대의 매를 때려 교도하도록 하고, 우리와 하기 어려운 이런 자를 눈에 띄지 않는 먼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성지를 내린 것에 대하여, 그리고, 칭기스칸이 “나와 상의 없이 나의 친위병을 질책하지 말라”<sup>21</sup>는 성지를 내린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상기의 기사들은 대몽골국 시대에 유배형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코빌라이 카간이 원나라를 세운 이후 새 카간을 선택하려거나 역모시도나 반란에 연루된 황금씨족 출신의 귀족, 왕자, 황후들이 지정된 곳으로 유배당했다는 기사가 <<원사>>에 적잖이 기록되어 있다.

코빌라이 카간은 몽골 정치의 중심을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중국에 자리잡으면서 주요 정사를 대도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코빌라이 카간부터 토곤테무르 카간에 이르는 총 108 년 동안 몽골 카간들이 대도에서 정사를 돌보면서 반역이나 무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형을 받았다. 본 발표자는 사형 및 여타 형벌에 대하여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유배에 대한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원대에 주로 카간위 계승투쟁으로 인하여 사형이나 유배형이 내려졌으며, 주된 유배지는 중국의 雲南, 廣西, 東安州, 고려의 大靑島, 人物島, 高鸞島, 與音島, 苐盆島,

---

<sup>21</sup> <<몽골비사>> 정선본, Sh.비라 외, 울란바야타르, 2005, 제 227 절

白翎島, 烏也島, 靈興島, 祖月島, 烏安島, 耽羅 등의 섬들이었다. 어떠한 죄인을 중국에, 어떤 경우에 고려의 섬에 유배시켰는지를 구분해 살펴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원대 제위 계승 투쟁이 격화되어 카간의 생명을 해칠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에 유배지는 험난하고 돌아올 수 없거나, 심지어 때로는 뒤따라 사람을 보내어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코빌라이 카간의 시대에는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릭 버케와 나얀을 지지하면서 맞섰던 인물 상당 수를 고려로 유배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코빌라이 카간에 반기를 들며 요동 변방에서 일어났던 나얀, 카다안 등의 반란을 바얀 장군이 진압하였다. 그리고, 카이도의 군대가 서쪽에서 공격하자 코빌라이 카간, 감마라 왕자, 바얀이 카라코룸에서 대군을 지휘하면서 그에 대응하였다. 또한, 고려 충렬왕의 군대를 뒤이어 파견하였다. 이들 군대는 반란을 진압하고 포로들을 사방으로 분산시켰는데 그 중 고려의 참전자들에게도 배당되어 귀환하면서 대동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박원길 박사가 작성한 도표 1에서 보더라도 상기의 반란들에 참여한 황금씨족의 일원들도 역시 있다.

<<원사>>에 기록된 유배형에 대한 기사를 발표문 한편에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고려사>>에 기록된 일부 인물에 대한 박원길 박사의 분석을 여타 사료의 기사를 더해 밝히고자 한다.

박원길 박사가 작성한 표 1<sup>22</sup>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아야치(愛牙赤)는 <<원사>>에는 코빌라이 카간의 여섯째 아들 아야치 대왕 이라 했으며<sup>23</sup>, 모친은 성명 미상이다. 반면, <<집사>>에는 여덟째 아들이고, 그의 모친은 후신부족의 오로갈 노얀의 딸인 쿠신진이라고 하였다.<sup>24</sup> 아야치는 지원 24년(1287년) 반란을 일으킨 시도르를 진압하여 승전하였다. 지원 28년(1290년) 카간이 그에게 금인(金印)을 하사하였다. 아야치에게 歲賜를 내려준 바, 銀 50 錠, 中統交鈔 (折鈔) 1000 錠,

<sup>22</sup> 박원길, <한국·몽골 문화교류사 연구> - 박원길, S.출문, <<한국·몽골 교류사 연구>> 중 제 1부, 울란바아타르, 2014, pp.77-78

<sup>23</sup> <<원사>> 제 18책, 권. XCIX- CXIII 수록 중 권 107, 몽골사료유산 총서 제 1호, 단다 창상으로 불리는 뎀치도르지 몽역, G.아킴, M.바야르사이한 책임출간, 울란바아타르, 2016, pp.447

<sup>24</sup> 라시드 앓 딘, <<집사>> 제 2권, Ts.수령호를로, 노역본에서 몽역, 울란바아타르, 2002, p177

至元寶鈔(折鈔) 1656錠이었다. 매년 세금 計鈔는 544錠이었다. 1312년 보얀트 카간은 그에게 邵武路 光澤縣 의 13640호를 나누어 주었다.<sup>25</sup>

이 표 1의 두 번째에 언급된 시리기(室刺只, 昔里吉; ?-1280?)는 <<집사>>에 따르면 멍케 카간의 세째 아들 시레기이며, 바야오진 후비의 소생이다.<sup>26</sup>

코빌라이와 아릭 버케 사이의 제위투쟁에서 코빌라이가 승리한 후 1268년 시리기는 河平王에 봉해졌다. 시리기는 1267년부터 北安王 노모간(那木罕)과 寧王 커케추(闊闊赤)가 지휘하는 군대에 소속되었으며, 카이도 칸의 군대에 대비해 알타이 너머에 주둔하였다. 1276년 코빌라이 카간의 대군이 남송과 전투할 때 시리기는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을 붙잡아 카이도 칸에게 보냈다. 그러나, 카이도 칸은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포로들 가운데 안톤(安童)만 수용하고, 커케추와 노모간을 멍케 테무르 칸에게 보냈다. 시리기는 1276-1277년 옹기라드씨족의 조르가아다이 노얀과 함께 카라코룸과 응창부를 점령하였으며, 응창부와 토올강에서 바얀 노얀과 토토카 노얀의 대군에 패하여 알타이산맥 너머로 도망쳤다. 1277-1280년까지 서로 제위 계승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멍케 카간의 손자인 사르반은 요모코르, 시리기 등을 붙잡아 코빌라이 카간에게 항복시켰다. <<집사>>에 따르면, 코빌라이 카간이 시리기를 수용했고, 시리기를 바닷가 더운 지방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는 그 곳에서 죽었다.<sup>27</sup>

이 표 1의 세 번째에 언급되어 있는 <<고려사>>에 기록된 커케데이(闊闊歹)는 대왕이라는 칭호로 미루어 황금씨족의 직계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가 유배되었던 시기와 상황을 볼 때 나얀의 반란에 가담했었던, 칭기스칸의 동생인 조치 카사르, 테무게 오토치긴, 카치온 등 동방왕가의 후예로 보인다. 유배섬은 대청도라고 한다.

커케데이와 이름이 유사하면서 역시 고려에 유배되었던 커케추의 경우, 그와 비교하면 생존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볼 수 없어 유배인의 수를 한 명 추가한다. <<집사>>에 따르면, 코빌라이 카간의 아홉째 아들인 寧王 커케추(闊闊出, ?-

<sup>25</sup> <<원사>> 제 9 책, 권 LXXXIX-XCVIII 수록 중 권 95, 몽골사료유산 총서 제 1 호, 단다 창상으로 불리는 뎀치도르지 몽역, G.아킴, M.바야르사이한 책임출간, 울란바아타르, 2016, pp.374-375

<sup>26</sup> 라시드 앓 딘 파즈롤라흐, <<집사-몽골인들의 역사전>> 제 2 권, 하타긴씨족 G.아킴, 영역에서 몽역, 머리말 및 해제, 제 2 책, 울란바아타르, 2015, p.591

<sup>27</sup> 라시드 앓 딘, <<집사>> 제 2 권, Ts.수령호를로, 노역본에서 몽역, 울란바아타르, 2002, p.590

1313) 는 지원 26 년, 즉 1289 년 카이도 칸의 대군과 전투를 벌여 영원왕(寧遠王)에 봉해지고, 거북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도금된 은 인장(金鍍銀印龜紐)을 받았으며, 몽골지역에서도 군대를 통솔하며 주둔시켰다. 1310 년 형벌을 받아 고려로 유배되었다. 그는 仁宗 아요르바르바드 보안트 카간 때 유배에서 풀려나 대도로 귀환하다가 귀로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향후 이 인물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원길의 표 1 중 15 번 째 언급되었으며, 원의 英宗 소드발代에 1324 년 1 월부터 1329 년 3 월까지 대청도에 유배되었던 패자 태자(享刺 太子) 즉 보로(亨羅)가 주목을 끈다.

1311 년 仁宗 아요르바르바드는 대원의 카간으로 추대되었으며 바이조(拜住)를 중서우승상(中書右丞相)에 임명하였다.

바이조 노얀(1298-1323)은 잘라이르씨 모칼리 노얀의 가계인 안톤(安童) 노얀의 손자이며, 원나라 仁宗, 英宗 시대에 활동했던 몽골 조정의 충직한 승상이었다.

1320 년 英宗 소드발의 즉위 후 바이조가 계속 기용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후의 활동으로 볼 때 활동했던 듯 하다.

1323 년 9 월 4 일 英宗 소드발 계겐 카간이 바이조 승상과 함께 수도인 대도에서 나와서 상도로 오는 길에 南坡라는 곳에 머물 때, 텍쉬, 칭터머르 등이 군사를 끌고 와 20 세이던 소드발 카간과 바이조 재상을 살해했다고 한다. 그런데, 도표에 언급된 패자가 1324 년 1 월부터 대청도에 유배되어 5 년을 지냈다는 기사는 흥미로우며, 향후 상세히 살펴볼 만하다고 여겨진다

이 표 1 의 16 번째에 언급된 토곤 테무르 카간에 대해 살펴보자. 1332 년 톡 테무르 카간이 상도에서 봉어하였다. 중서우승상 엘 테무르가 라드나다르의 동생인 엘 텍스를 옹립하고자 상소를 올렸다. 엘 텍스는 보다쉬르 (보디쉬르) 카톤의 친아들이다. 보다쉬르 카톤이 매우 조심스러워하면서 승상 엘 테무르의 상서를 따르지 않고 말하기를, “선대 카간의 유언에는 내가 승천한 후에나 큰 형 明宗 코탁트 카간의 아들을 즉위시키라”고 했다. 당시 明宗 코살라의 장자인 토곤 테무르는 직위, 직권을 박탈당한 채, 계림(桂林)에 유배 중이었다. 둘째 아들인 郕王 이린친발(懿璘質班)은 겨우 7 세였다. 그러나 보다쉬리 카톤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郕王 이린친발을 옹립하여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토곤 테머르 카간은 성인이 되자 부친인 明宗 코살라 카간이 독살당했음을 알고 매우 안타까와 하며 애도하였다. 그리하여 1340 년 토곤 테무르 카간은 조서를 내려 부친인 코살라 카간을 독살한 주범인 文宗 톡 테무르 카간의 太廟를 없애고, 나아가 보다쉬리 카톤을 동안주(東安州)로 유배 보냈으며, 얼마 되지 않아 보다쉬리 카톤과 황자인 엘 톡스를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원말명초에 權衡이 편찬한 <<庚申外史>><sup>28</sup>에 따르면 1330 년 톡테머르 카간의 성지에 따라 토곤 테무르 카간을 고려의 대청도로 유배 보냈으며, 외부인들과의 면회를 금지하였다. 1332 년 광서성 계림(廣西省 桂林)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상의 기술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칭기스칸 시대의 유배형은 교훈을 주어 깨닫게 하려는 경향이 우세했던 반면, 원대에 들어서는 상당히 엄격한 처벌 가운데 하나로 변하였다. 정변이나 제위계승 같은 민감한 순간에 음모를 꾸민 자들을 엄격하게 징벌하고 처형하였으며, 그 다음 형별은 장소를 정하여 유배했던 듯 하다. 유배는 일정 기간이 있으며, 때로는 종신에 처했다. 카간의 황후, 제왕들 가운데 적잖은 수가 이 유배형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의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심각했음을 나타낸다.

유배를 당한 수 많은 관리, 황금씨족의 귀족, 그 중에 황후도 적잖이 있었는데, 이는 많은 왕자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즉위시키려 경쟁적으로 계락을 주도하거나 관여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몽골역사에서 불분명한 여러 사안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역 : 양혜숙 (몽골 국립 울란바아타르대학교)

\*\* 제주학회,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2017 제주 국제학술대회, “단절을 넘어 소통으로” - 유배섬의 역사와 문화교류, 2017.1.11~12, 제주

<sup>28</sup> [明] 權衡, <<庚申外史>>, 발조르 목판본에서 고전몽골문으로 전사, Ch.알탄숨베르(阿騰生卜尔), 보안트 譯註, 民族出版社, 北京 2005



제1세션

유배지로서의 탐라(耽羅) : 명초(明初) 20년의  
위치와 운명

－ 원난(雲南)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테무르 (남경대학교, 중국)



# 作为流配地的耽罗：明初20年的位置和命运

## — 以云南蒙古人流寓轨迹为中心

特木勒

(南京大学历史学院)

—

十三世纪后期和十四世纪前期的耽罗接受了大量外来移民。他们有的是元朝皇室的诸王、政府官员或者被捕获的盗贼。《元史·耽羅传》记：“耽罗，高丽与国也。世祖既臣高丽，以耽罗为南宋、日本冲要，亦甚注意。乃于至元十年命将平之，即其地立耽罗国招讨司，屯镇边军千七百人，后改为军民都达鲁花赤总管府，又改为军民安抚司。其贡赋，岁进毛施布百匹。初隶元，至元三十一年高丽王以为言，遂复隶高丽。”元世祖忽必烈去世以后，高丽方面一直试图恢复对耽罗的实际控制。但是强势的元朝在耽羅一直保持了实际的有效管辖，将耽罗作为其流放之地和“牧马之野”，终元一代，元朝多次发配其诸王与官员至耽罗。《高丽史》世家卷二十八记“元流盗贼百余人于耽罗”；“元流罪人四十于耽罗”的记录；“壬申。元流魏王阿木哥于耽羅，寻移大青岛。”这个魏王阿木哥与武宗和仁宗是“同父而异母”的兄弟，后来他被接回元朝。同书卷三十六记，“二月丙戌，元流孛兰奚大王于耽罗。”《元史·武宗本纪》的史料证明，这个孛兰奚（Boralki）大王就是诸王孛兰奚。至大二年十一月“丙午，诸王孛兰奚以私怨杀人，当死，大宗正也可扎鲁忽赤议，孛兰奚贵为国族，乞杖之，流北鄙从军，从之。”<sup>1)</sup>看来孛兰奚王并未被配“流北鄙从军”而是发配到了耽罗。直到元朝在汉地的统治行将崩溃的三年前，元朝仍然派遣枢密院副使帖木儿卜花和秘书永嘉人李至

---

1) 《元史》卷二十三。

刚“往守”耽罗。《耽罗志略》后序说“耽罗距中国万里，而不载于史，盖以荒远略之也。至正二十五年，枢密院掾曹永嘉李至刚，从副使帖木儿卜花公往守其地。明年，奉诏还京师，至刚以疾不得俱，乃留松江，因记所历山川形势、民风土产，编而成集，厘为三卷，题曰《耽罗志略》”。冈田英弘认为元朝派遣他们到耽罗的目的是准备或者经营避难所。<sup>2)</sup> 无论元惠宗是否真的计划将耽罗作为自己日后的避难所，随着元廷败退蒙古草原，这个计划终究变成泡影。

元明鼎革以后的20余年是东亚和东北亚旧秩序被打破，新秩序形成的过渡阶段。北元-明朝-高丽三方之间的互动关系及其演进过程跌宕起伏，经历了非常复杂的变迁。败退到蒙古草原的北元政权曾经多次展开反攻，与新兴的明朝争夺霸权，试图恢复大元朝的统一。期间互有胜负，势力消长起伏。面对复杂而多变的局势，高丽王朝除了密切关注“元北明南”相互对峙和斗争的动态，曾经在对外政策方面多次进行调整。受到北元-明朝关系的制约和影响，北元-高丽和明朝-高丽关系的演进崎岖波折，“元北明南两立年”对于高丽是非常艰难的时期。但是，与高丽相比较，耽罗的处境似乎更为艰难。

1356年高丽恭愍王铲除奇皇后家族势力，元朝与高丽从此交恶，耽罗也开始面对两个敌对的强邻。高丽为了夺回对耽罗的控制权而多次采取政治和军事行动，而在元朝牧子控制下的耽罗在归属方面另有所求，他们要求隶属元朝。双方甚至多次发生流血冲突。1368年元廷北迁。耽罗应该也就失去了与元朝的联系。但是在之后20年当中，影响耽罗位置和命运的主要应该还是北元-明朝-高丽三角关系。到明朝洪武十九年（1386），耽罗对高丽的隶属关系才最终稳定下来。在洪武十五年（1382）、二十二年（1389）和二十五年（1392）间耽罗先后迎来至少三批蒙古新移民。他们是被明朝皇帝从遥远的云南发配而来的。明朝之所以选择耽罗来流放蒙古诸王及其部属，实际上说明明朝-高丽关系的最终确定和明朝在东亚大陆霸权的确立。

需要说明的是，日本学者大叶昇一说：“耽罗作为古老独立国与百济、唐、日本通好，从九世纪初开始向新罗朝贡，后来又向高丽朝贡。十二世纪初，高丽在耽罗设置郡，后来又改为县，进入十三世纪以后改为济州。但是，1266年星主（耽罗土著的领

2) 关于此事，请参阅冈田英弘《元惠宗与济州岛》，《从蒙古帝国到大清帝国》，

袖) 经由高丽到达元朝。翌年向元朝派遣使臣。元朝将耽罗视为高丽之外的独立存在。三别抄之乱以后, 耽罗开始受到元朝的统治。元末明初, 高丽在耽罗恢复其支配权, 星主遂失去其自治权。元代是决定耽罗命运的重要时期。”<sup>3)</sup> 笔者认为, 元朝直到1368年退出汉地都没有失去对耽罗的实际控制, 前引贝琼《〈耽罗纪略〉后序》的记载, 至正二十五年(1365)元朝派遣枢密院副使帖木儿卜花和枢密院秘书李至刚“往守”耽罗, “镇抚其民”, 这就是明显的证据。高丽对于耽罗, 当然不会满足于名义上的归属关系, 但是高丽对耽罗达到实际控制的目标直到元朝退出汉地仍未能实现, 甚至明初十几年中都还没能实现。所以我们认为, 与其说“元代是决定耽罗命运的重要时期”, 莫如说真正决定耽罗命运的更重要时期是明初的20年。与北元和明朝相比较, 高丽方面很多时候处于弱势的位置, 但是在这个转型时期高丽并非全无所获。明朝方面出于防备北元的需要, 向高丽要求大量马匹, 迫于明朝的压力, 高丽转而向耽罗施压, 最终控制了耽罗。

耽罗历史是东亚史, 特别史东亚海域史方面的重要研究课题, 相关研究也很早就引起学者关注。就我们所知, 除了前面我们已经提到的日本学者在1999 年发表的文章。早在1926年, 日本学者池内弘就《东洋学报》发表《忽必烈与耽罗岛》, 是较早的重要成果。冈田英弘在1958年也发表了《元顺帝与济州岛》。近年来韩国的李玠奭先生从元丽关系的视角也涉及了耽罗历史。圣母圣心会的司律思神父(Henry Serruys, CICM) 是明代蒙古史和明蒙关系史研究的巨匠。他在1957完成的《洪武朝中国境内蒙古人》第九章中为云南蒙古人专辟一节。他在书中多次谈到了驻守云南的蒙古诸王, 也提到在1382年云南被明朝攻占以后曾经发配蒙古人往高丽和耽罗。<sup>4)</sup> 但是司律思考察的主题和重心是明朝境内的蒙古人, 所以并未讨论流配到明朝以外的蒙古人的情况。

本文试将耽罗及其在明初接受蒙古移民之事置于十四世纪后半页整个东亚多极格局的演进中加以考察, 只是一个初步的尝试, 错漏之处, 祈请方家指正。明朝取代元朝而统治中国, 仍然将蒙古诸王及其部属流放耽罗, 从另外一个侧面证明了元明连续性。

3) 大叶昇一《元·明初的耽罗(济州岛)》, 《昭和女子大学文化史研究》第3辑(1999)。

4) Henry Serruys,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Bruxelles :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80. p.210.

## 二

至正二十八年（1368），也就是明洪武五年七月元惠宗妥欢帖木儿（元顺帝，Toqon-Temür）逃往元上都。远在云南的梁王仍然“岁遣使自塞外达元帝行在，执臣节如故。”洪武三年四月，惠宗妥欢帖木儿去世，昭宗爱犹识理达腊继位。翌年改元“宣光”。昭宗将政治中心迁往漠北。洪武五年春正月（北元宣光二年，1372）春正月，明朝派遣三路大军北进，试图一举消灭北元政权并夺回传国玉玺。朱元璋在出兵漠北的同时，遣翰林待制王祹偕苏成，赍诏谕云南。王祹至云南，不报而归。到这一年五月，明朝军队在漠北遭遇惨败。徐达率领的中路大军和李文忠率领的东路军被牵诱至漠北草原深处，落入包围圈，多名高级将领阵亡，死伤惨重。“宣光二年保卫战的胜利，在明代蒙古史上是一件大事。昭宗与扩廓帖木儿、蛮子、哈刺章等，挫败了朱元璋自北伐以来几乎每战必胜，所向披靡的兵锋，歼灭了明军的有生力量，保卫了首都，并且大大增强了自信心。北元政权，只是在这一仗获胜以后，才初步稳定下来。”北元昭宗爱犹识理达腊遣使臣脱脱，自漠北绕道‘西蕃’，征粮云南。明朝方面认为这是云南的梁王与北元“谋连兵拒我”。<sup>5)</sup>

明军在洪武五年一战中遭遇挫败，但是明朝仍然是新兴的强大的力量，他们对北元自身及其对外联络保持持久的密切关注。洪武八年，梁王派遣使臣铁知院等二十余往漠北，却被明军截获。铁知院和吴云的经历证明，崛起的明朝已经横亘在云南与北元之间，曾经紧密的声息联络正在减弱。

高丽方面，洪武六年（宣光三年），北元昭宗派遣使臣，致书恭愍王说“顷因兵乱，播迁于北，近以扩廓帖木儿为丞相，几于中兴。王亦世祖之孙也，宜助力，复正天下。”三年以后，昭宗继续派使臣游说，希望恭愍王“改图以副上命，厉兵秣马，共成犄角。庸赞我国家中兴之业。”或许是恐怕惊动明朝，恭愍王夜间接见北元使者。高丽早在洪武三年开始用明朝年号。辛偶继位以后改用宣光年号，甚至出台规定“中外决

5) 《蒙古民族通史》第三卷（曹永年撰），内蒙古大学出版社，2002年。第17页。按，学者注意到民国时期以来在云南陆续发现的多个寺院主持的碑刻、塔铭和墓志中都发现“大元宣光”年号，这些梁王为首的云南行省奉行北元年号的明证。参见方龄贵《云南现存北元宣光纪年文献考述》，《西北民族研究》1985年第2期。

狱一遵《至正条格》。”

洪武五年七月，高丽恭愍王试图把握明朝在漠北战败的时机，夺取对耽罗的控制权，但是被朱元璋强硬制止。“高丽王遣其尚书吴季南于温奉表，贡马及方物，言‘耽罗国恃其险远，不奉朝贡，及多有蒙古人留居其国，宜徙之。兰秀山逋逃所聚，恐为寇患，乞发兵讨之。’上赐颛玺书曰：‘耽罗居海之东，密迩高丽。朕即位之初，遣使止通王国，未达耽罗，且耽罗已属高丽，其中生杀王已专之，虽有胡人部落，已听命于高丽，又别无相诱之国，何疑忌之深也！因小隙而构成大祸，智士之所慎也，王宜熟虑烹鲜之道，不但靖安王之境土，而耽罗亦蒙其德矣。’”新兴的明朝表面上具有汉族色彩，他们在“驱逐鞑虏”的旗帜下动员反元力量，将元朝统治集团逐出汉地。高丽恭愍王似乎希望借助这个旗帜，在这个名义下把蒙古人赶出耽罗，进而实现控制耽罗的目标。结果事与愿违。明朝方面名义上承认“耽罗已属高丽”，但是高丽方面要实现实际的有效管辖，却得不到明朝的同意。

遭遇惨败的明朝认识到北元政权并非短期内可以打败，于是开始在东北，西北和西南方向系统经营。云南就是这个时候被明朝征服的。洪武十四年明朝派大军从四川进军云南，这一年十二月，明军在“白石江之战”大败梁王的元军，前线的主帅也被明军擒获，这对于梁王的信心是重大的打击。梁王本人和妻子、所属王府官员都自杀殉国。到洪武十五年（1382），云南行省全境被明朝军队占领。

洪武十五年三月，云南诸王子弟和家属被送往南京。“庚午征南将军颖川侯傅友德等以故元威顺王之子伯伯及梁王把匝剌瓦尔密家属三百一十八人至京师，诏赐钞四百五十锭。”<sup>6)</sup> 这条材料有两点价值：首先是记录了到达南京的人数，威顺王之子伯伯及梁王把匝剌瓦尔密两个家族供计318人。其次，这批人是先被送往南京，然后才被发配至耽罗的。《明太祖实录》洪武十五年（1382）夏四月甲申条记：“迁故元梁王把匝剌瓦尔密及威顺王子伯伯等家属居耽罗，赐伯伯衣一袭、马十匹。”

洪武十五年（1382）四月这次流配之后，至少还有两批蒙古人被流放至耽罗。《明太祖实录》洪武二十二年（1389）夏四月甲寅条记：“诏故元诸王未降者俾居耽罗国，且遣中使往谕其国，为造庐舍处之。”所“造庐舍”在今济州岛的什么方位，还有待考

6) 《明太祖实录》卷143



订。洪武年间，从北边投降明朝的蒙古诸王很多，这里的“故元诸王”是否与云南梁王有关？也还无法确定。三年以后的洪武二十五年（1392）春正月，朱元璋再次“命送故元梁王孙爱颜帖木儿于高丽，赐钞五十锭为道里费，且命高丽送至耽罗国，依其亲戚。”<sup>7)</sup> 这个爱颜帖木儿（Ayan-Temür?）应该是梁王把匝剌瓦尔密之孙。明太祖朱元璋的意图很明显，将梁王后裔困在孤岛上，防止他们与北元发生任何联系。同时我们应该注意到的是，我们还无法就此认为在云南的所有梁王的家属和其他蒙古人都被发配到耽罗了。司律思神父说：“1382年云南被明朝征服，诸王被抓获并并发配到高丽和耽罗岛。毫无疑问，在进入明朝控制，他们的诸王被带走以后，仍然有很多蒙古人留在云南了。”<sup>8)</sup>

明朝军队在云南和西北不断取得，厉兵秣马，为打击北元做持续的准备。这种积极进取扩张战略也影响了高丽与耽罗的关系。明朝对高丽采取强硬的政策，施加巨大的压力。朱元璋在给辽东守将的敕谕中历数中国史上对朝鲜半岛王朝战争，无疑是在展示威慑的态度，高丽方面一定感受到了沉重的压力。明朝一直向高丽征求耽罗的马匹，即使“高丽王表请不受马直”，朱元璋仍然坚持说“今彼言不敢受直，岂其本心？盖畏势而矣！以势逼人，朕所不为。尔其以朕意咨其国王知之。仍令谕延安侯唐胜宗俟高丽马至，择其可用者，以直偿之。” 他宣称“以势逼人，朕所不为”，实际却令高丽受到更强大压力而无退路。

在这种强大的压力也使得高丽终于在控制耽罗方面取得突破。洪武十九年（1386）丙寅秋七月。高丽王朝迫于来自明朝的压力，“遣典医副正李行、大护军陈汝义往于耽罗。时朝廷岁取耽罗马，贡于天朝。岛夷屡叛，贡使不通，诏谕截严，举国震惶。行奉旨往谕，镇服殊俗，乃率星主高信杰子凤礼以还，耽罗归顺始此，人服其经济之器。”<sup>9)</sup> 看来耽罗真正归顺高丽是从洪武十九年开始的。高丽虽然是迫于明朝的压力而派使臣和军官进入耽罗，强行带回星主之子。通过这个办法高丽解决了贡马的问题，也降服了耽罗，将耽罗纳入统治之下。这种结果或许是朱元璋事先未能预料到的。

7) 《明太祖实录》卷215，洪武二十五年春正月丙申

8) Henry Serruys,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Bruxelles :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80. p.210.

9) 《骑牛先生文集》卷之二《遗事摭录》



## 유배지로서의 탐라(耽羅) : 명초(明初) 20년의 위치와 운명

### - 원난(雲南)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테무르 남경대학교(特木勒, 南京大學 歷史學院)

#### 一

13세기 후기와 14세기 전기, 탐라는 대량의 외부에서 온 이민들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원나라 왕실의 제왕이거나, 정치관료 혹은 체포된 도적떼들이었다. 《元史·耽羅傳》에 따르면, “高麗의 위성국이다. 世祖가 高麗를 臣服시키고서 耽羅가 南宋과 日本의 요충지임으로 해서 주목하였다. 至元 10년에 그를 평정하고, 그 땅에 耽羅國招討司를 세우고 鎮邊軍 1,700인을 주둔시켰다. (초토사는) 뒤에 고쳐서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하였다가 또 고쳐서 軍民安撫司라 하였다. 그 貢賦는 해마다 毛施布 100필을 진상하였다. 至元 31년 고려왕이 상언하여, 이로부터 다시 금 고려에 예속되었다” 라고 하였다. 원 세조 쿠빌라이가 세상을 뜨자, 고려는 탐라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를 회복하려고 줄기차게 시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원나라는 탐라에 실제적인 관할을 유지하였으며, 탐라를 유배지와 “목마의 땅”으로 여겼다. 원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원 조정은 제왕과 관원을 수차례 탐라로 유배 보냈다. 《高麗史》世家 卷28에 “원나라는 도적 백여명을 탐라로 유배 보냈다”, “원나라는 도적 사십명을 탐라로 유배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壬申, 元에서 魏王 아무가를 耽羅로 유배 보냈다가 얼마 후 大靑島로 옮겼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위왕 아무가는 원나라 무종, 인종과는 이복 형제 사이이다. 후에 그는 원나라로 되돌려 진다. 같은 책 권36에서는 “2월 丙戌, 원나라는 발란해(Boralki)대왕을 탐라로 유배보낸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元

史·武宗本紀》의 기록에 따라 이 발란해(Boralki)대왕은 諸王 발란해이다. 至大 2 年 11月 “丙午, 제왕 발란해는 개인적 원한으로 사람을 살해하였으니,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하나 太宗正也可紮魯忽赤이 발란해는 황족의 높은 신분이므로, 곤장으로 다스리고, 변경을 지키도록 유배 보내자고 하자 이에 따랐다.”<sup>1)</sup> 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발란해는 변경을 수비하기 위해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탐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나라의 한족 거주지역 통치가 붕괴되기 3년 전에도 원 왕조는 여전히 樞密院 副使 帖木兒葡萄와 수행비서 永嘉人인 李至剛을 파견하여 탐라를 “지키도록(往守)” 하였다. 《耽羅志略》後序에서 “탐라는 중국과 만리 밖 떨어져 있어, 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대략 황량하고 멀리 있어 생략한 것이리라. 至正25년, 樞密院掾曹로 永嘉 사람인 李至剛이 副使 帖木兒葡萄를 따라 이 지역을 지키러 왔다. 다음해, 명을 받들어 경성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지강은 병을 얻어 함께 가지 못하고, 松江에 머물면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산천의 지형, 民風 土產品 등을 기록하여 책으로 엮어서, 3권으로 만드니 제목을 《耽羅志略》이라 하였다.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는 원나라가 그들을 탐라로 보낸 목적이 피난소를 준비하거나 경영하기 위한 것이라 여겼다.<sup>2)</sup> 원나라 惠宗이 탐라를 자신의 피난소로 계획을 했든 아니든, 원 조정이 몽골초원으로 물러남에 따라 이 계획은 결국 실패로 마치게 된다.

원·명 교체 이후 20여 년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北元 - 明 - 高麗 이 세 지역간의 상호 관계 및 그 변화의 과정은 많은 기복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 다변하게 이어져간다. 몽골초원으로 내몰린 북원 정권은 여러 차례 복귀를 위한 공격을 꾀하며, 신흥 강국 명 왕조와 패권을 다투면서, 통일 원 왕조의 회복을 꾀한다. 승패는 쉽게 갈라지지 않고 이러한 세력 싸움이 장기전으로 이르게 되자, 이런 상황을 맞이한 고려왕조는 긴밀히 “元北明南”의 대치 상태를 관망하는 동시에, 대외정책에

1) 《元史》 卷23

2) 이와 관련된 자료는 오카다 히데히로의 《원 혜종과 제주도》, 《몽골제국에서 대청제국까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있어서도 여러 차례 調整을 취한다. 북원과 명의 관계로 변화로 인한 제약과 영향으로, 북원과 고려, 명과 고려의 관계 역시 순탄치 못하게 진행되고, “元北明南 2년간의 대치” 상황은 고려에 있어서도 매우 험난한 시기였다. 하지만, 고려와 비교했을 때 탐라의 상황은 더욱 녹록치 않았다.

1356년 고려의 공민왕이 기황후 일가의 세력을 제거하려 하자, 원나라와 고려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게 된다. 탐라는 이 두 적대적인 강국 틈에 놓이기 시작한다. 고려는 탐라에 대한 통제권을 쟁탈하기 위해 여러번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실행에 옮기게 되지만, 원나라 牧子의 통제 하에 있던 탐라는 고려보다는 원나라에 귀속되기를 원했으며, 쌍방은 여러 차례 무혈 충돌까지 발행하기에 이른다. 1368년 원나라 조정이 북으로 옮겨짐에 따라, 탐라 또한 원 조정과의 연락선이 끊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 20년 동안, 탐라의 자리매김과 운명은 당연히 북원 - 명 - 고려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명나라 洪武 29年(1386) 탐라의 고려에 대한 예속 관계는 마침내 공고히 해지고, 洪武 15年(1382), 22年(1389), 그리고 25年(1392), 탐라는 세 차례 새로운 몽골 이민들을 차례로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명 황제에 의해 머나먼 운남에서부터 유배 온 자들이었다. 명나라가 몽골의 제왕과 관련자들을 유배 보내면서 탐라를 선택했다는 것은 명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이미 명확해졌으며, 명왕조가 동남아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일본학자 오오바 쇼이치(大葉昇一)는 “탐라가 오래된 독립국으로 백제와 당,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9세기 초부터는 신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후에는 또 고려에 조공을 바쳤다. 13세기 초, 고려는 탐라에 郡을 설치하고, 후에는 또 縣으로 변경하였으며, 13세기 이후에는 ‘제주’라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1266년 星主(탐라 토착민의 영수)는 고려를 경유하여 원나라에 도착한다. 그 다음해 원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원 조정은 탐라를 고려와 다른 독립적 존재로 보기에 이른다. 삼별초의 난 이후, 탐라는 원 왕조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 원말명초에 이르러 고려는 탐라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이로써 성주는 그 자치권을 상실하게 된다. 元代는 탐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sup>3)</sup>라고 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본 저자는 원나라가 1368년 한족 지역에서 물러나기 까지 탐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잃은 적이 없다고 본다. 앞서 인용한 貝瓊, <《耽羅紀略》後序>의 기록에 따르면, 至正 25年(1365) 원나라는 樞密院 副使 帖木兒葡萄와 樞密院 秘書 李至剛을 파견해 탐라를 “지키라”, “그 백성들을 평정하라” 라고 한 것이 명확한 증거라 할 것이다. 고려가 탐라에 대한 명분상의 귀속 관계에만 만족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려의 탐라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원 조정이 한족 거주지역에서 완전히 물러나기 전까지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었으며, 명초 10여년 동안도 실현될 수 없었다. 따라서 “元代는 탐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탐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명나라 초기 20년이라고 말하는 것 더 나을 것이라 여겨진다. 北元과 명나라에 비해, 고려는 많은 시기 세력이 약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 격변의 시기에 고려는 아무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명나라가 北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려에 다량의 마필을 요구하였고, 명나라의 압박에 고려는 이 요구로 탐라를 압박했으며, 마침내 탐라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탐라의 역사는 동아시아사, 특히 동아시아 해양역사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상관된 연구는 일찍이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잘 알다시피,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1999년 일본학자가 발표한 문장 외에도, 일찍이 1926년 일본학자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弘)가 《東洋學報》에 발표한 <쿠빌라이와 탐라도>는 초창기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오카다 히데히로 또한 1958년 <원 순제와 탐라도>를 발표하였다. 최근 한국의 이개석 선생이 원나라와 고구려의 관계에 입각하여 탐라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성모성심회의 헨리 세뤼 신부(Henry Serruys, CICM)는 명대 몽골사와 명과 몽골 관계사 연구의 거장이다. 그가 1957년 완성한 《홍무제 시기 중국 경내의 몽골인》 제9장에서는 운남의 몽골인에 한 절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저서에서 운남에 주둔하고 있던 몽골의 제왕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1382년 운남이 명나라에 의해 점령당한 이후 몽골인들이 고려와 탐라로 유배된 바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다.<sup>4)</sup> 하지만 세뤼가 연구한 주제

3) 오오바 쇼이치, <원·명초의 탐라(제주도)>, 《昭和女子大學文化史研究》, 제3집(1999)

4) Henry Serruys,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Bruxelles :

와 중심은 명나라 시기 경내에 머물고 있던 몽골인에 대한 것이었기에, 명 이외의 지역에 유배된 몽골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탐라와 명초 몽골이민을 수용 사실을 14세기 후반 동아시아 전체의 다극화 국면 변화와 더불어 연구하고자 한다. 다만 이는 초보적인 연구 성과로 만일 오류가 있다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바란다. 명나라는 원을 대신해 중국을 통치하면서도, 여전히 몽골 제왕 및 그 관련자들을 탐라로 유배 보내었다는 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元明 두 조대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 二

至正 28年(1368), 즉 明 洪武 5年 7月, 원나라 惠宗 토곤테무르(元順帝, Toqon-Temür)가 元의 上都로 도망을 가게 된다. 멀리 운남의 梁王은 여전히 “해마다 만리장성 너머 원 황제가 계신 곳까지 사신을 보내 신하로서의 본분을 예나 다름없이 지키고 있다” 라고 하였다. 洪武 3年 4月, 惠宗 토곤테무르가 세상을 떠나고 昭宗 아유시리다가 왕위를 계승하고 다음해 연호를 ‘宣光’으로 개원한다. 昭宗은 정치의 중심을 漠北으로 옮긴다. 洪武 5년 正月(北元 宣光2年, 1372) 春正月, 명나라는 三路大軍을 북진하도록 하여, 북원 정권을 멸망시키고 傳國의 옥쇄를 회수하려 시도한다. 주원장은 막북으로 출병하는 동시에, 翰林待制 王禕를 (잡혀있던 양왕의 사신)蘇成과 함께 雲南으로 가서 항복을 권하는 조서를 내린다. 王禕는 운남에 도착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죽은 그 해 5월, 명의 군대는 漠北에서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된다. 徐達이 이끄는 中路大軍과 李文忠이 이끄는 東路軍은 漠北 초원 깊숙한 곳으로 유인되면서 몽골군의 포위망에 걸려들어, 많은 명장수들이 사망하게 되고 군대는 심각한 사상자를 내게 된다. “宣光 2年 방어전의 승리는 明代의 蒙古史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昭宗과 擴廓帖木兒, 蠻子, 哈刺章 등은 주원장의 북벌전쟁에서의 백전백승 신화를 깨뜨리고, 가는 곳마다 거칠 것이 없었던 군대에 좌절을 맞이하게 하면서, 명나라의 군

---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80. p.210.

대의 전투력을 크게 상실시킨다. 이 전투로 북원의 군대는 수도를 방위할 수 있었으며 자심감도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북원 정권은 이 전투의 승리를 맞이하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다.” 北元의 昭宗 아우르시리다르는 사신 토크 토아부카를 漠北에서 ‘西蕃’을 돌아 雲南으로 가서 양식을 징수토록 파견한다. 명 조정은 운남 梁王과 北元의 “연합하여 명에 대적하려 모의한다”<sup>5)</sup>라고 여긴다.

명의 군대가 洪武 5년의 전투에서 패배하지만, 명왕조는 여전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원 정권 및 그 외부세력간의 연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긴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洪武 8年, 양왕은 사신 鐵知院 등 이십여 명을 漠北으로 파견하다가 명나라 군대에 의해 나포된다. 鐵知院과 吳雲의 경험에서 나타나듯, 굴기하던 명왕조는 이미 운남과 北元 전반에 뻗쳐 있었고 雲南과 北元의 긴밀했던 관계망은 점차 약해져가고 있었다.

고려 측에는 洪武 6年(宣光3年), 北元의 昭宗이 使臣을 파견하여, 공민왕에게 서신으로 이르길 “근자에 병란이 일어나 북으로 옮겨왔다. 이제 코코 테무르가 승상이 되어 중흥하려 하고 있다. 왕 또한 세조의 현손이니, 천하를 다시 바로잡는 데 조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3년 후에, 昭宗이 계속해서 사신을 파견하여 주장하기를, 공민왕이 “생각을 고쳐서, 상국의 명령에 응하여, 군사를 가다듬고 말을 먹여서, 함께 앞뒤로 호응하여, 적을 견제하는 형세를 이루어, 우리 국가 중흥의 대업을 돕게” 할 것을 희망했다. 혹시나 명 조정에 발각될까 두려워 공민왕은 야밤에 북원의 사조를 접견한다. 고려는 일찌감치 洪武 3년부터 명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辛偶가 즉위한 후에는 宣光 연호로 바꿔 사용했으며, 심지어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獄事의 처결은 모두 《至正條格》에 의거하게 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까지 한다.

洪武 5年 7月, 고려의 공민왕은 명나라가 막북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틈타, 탐라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으려했지만, 주원장에 의해 저지당한다. “고려왕

5) 《蒙古民族通史》第3卷(曹永年 撰), 內蒙古大學出版社, 2002年, 7쪽. 학자들은 民國時期 이래 雲南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많은 사원의 碑刻, 塔銘, 그리고 墓志에서 “大元宣光” 연호가 발견되는 것에 주의하였다. 雲南行省의 최고권력자 梁王이 北元의 연호를 사용한다는 증거들에 주목한 것이다. 方齡貴, 〈雲南現存北元宣光紀年文獻考述〉, 《西北民族研究》1985年 第2期.

이 그 나라 尙書 吳季南과 張子溫 등을 파견하여 표문을 올리고 말과 토산물을 바쳤다. 표문에 이르기를 ‘耽羅國은 그 험준하고 먼 점을 믿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으며, 많은 蒙古人이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 마땅히 옮겨야 하겠으며, 蘭秀山에서 도망쳐 와서 무리를 이룬 자들도 또한 도둑질을 할까 우려되니 군사를 내어 그들을 토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황상이 이에 왕전에게 璽書를 하사하여 말하기를, ‘탐라는 바다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고려와 가까워, 짐이 즉위한 처음에 사신을 보냈을 때에는 다만 왕국까지만 통하게 하고 아직 탐라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또한 탐라는 이미 고려에 속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죽이고 살리는 것은 왕이 이미 오로지하고 있으니, (탐라에) 비록 호인의 부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고려로부터 명을 듣고 있으며, 또한 별도로 서로 피어내는 나라가 없으니 어찌 의심하고 꺼리는 것이 이렇게 심한가. 작은 틈으로 인하여 큰 화를 얻어낼 수 있으니, 지혜로운 선비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 왕은 마땅히 작은 생선을 굽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여 살펴 행하여, 왕의 경토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탐라 또한 그 덕을 누릴 수 있게 하라.’ ” 라고 하였다. 신홍 왕조인 명 왕조는 표면상으로 한족의 색채를 가지면서, “오랑캐를 몰아낸다” 라는 기치 아래에 反元の 힘을 동원하여, 장차 원나라 통치 집단을 한족 거주 지역에서 몰아내고자 했다. 고려의 공민왕은 이러한 명나라의 명분을 빌어서 탐라에서 몽골인들을 몰아내기를 희망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탐라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다. 결과는 희망대로 되지 않았다. 명왕조는 명분상으로는 “탐라가 이미 고려에 복속되었다” 라고 인정하였지만, 고려 측에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관할을 하고자 한다면 명나라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북원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명 왕조는 단기간 내에 북원정권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에 동북, 서북 그리고 서남 지역에서부터 체계적인 전투를 시작한다. 雲南은 바로 이 시기 명에 의해 정복된다. 洪武 14年 명나라는 사천에서 운남으로 대군을 파견하고, 이 해 12월 明軍은 “白石江의 전투”에서 梁王의 元軍을 대패시킨다. 최전선의 장수는 명군에 나포되고, 이는 양왕의 자신감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양왕 본인은 물론, 아내와 소속 왕부 관원들이 모

두 자살로 순국한다. 洪武 15年(1382), 雲南行省의 모든 지역은 명나라 군대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

洪武 15年 3月, 운남의 왕실 자제와 가속들은 남경으로 압송된다. “庚午征南 장군 穎川侯, 傅友德 등이 옛 원나라 威順王의 아들인 바이바이와 梁王 바자르 오미르 家屬 318명을 붙잡아서 京師로 보내자, 조서를 내려 鈔450錠을 상을 내리셨다”<sup>6)</sup> 이 사료는 두 가지 점에서 가치가 있다. 먼저 남경에 도착한 인원수로 威順王의 아들 바이바이와 梁王 바자르 오미르 두 가족 합계가 318명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먼저 남경으로 보내어지지만, 후에는 탐라로 유배되어 진다는 점이다. 《明太祖實錄》 洪武 15年(1382) 夏四月 甲申條記에 “옛 원나라 양왕 바자르 오미르와 위순왕의 아들 바이바이 등 가속을 탐라에 안치하니, 바이바이에게는 의복 한 벌과 말 10필을 하사한다.” 라고 하였다. 洪武 15年(1382) 4月 이 유배 후에, 적어도 두 차례 몽골인들이 탐라로 유배되어 온다. 《明太祖實錄》 洪武 22年(1389) 夏四月 甲寅條記에 “조서를 내리니, 옛 원나라 제왕 가운데 귀순한 자를 탐라에 거처하도록 하였으며, 또 中使를 파견해 그 나라를 往諭할 터이니, 그들에게 머물 廬舍를 지어주고 그곳에 머물게 하라” 라고 하였다. “廬舍를 지어준 곳” 이 지금 제주도의 어느 곳인지, 고증이 필요하다. 洪武 연간에 북에서부터 명으로 투항한 몽골의 제왕들은 많았다. 여기서 옛 원나라 제왕은 운남 양왕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역시 확정지을 수 없다. 3년 후 洪武 25年(1392) 春正月, 주원장은 다시금 “명하여, 옛 원나라 양왕의 손자 아얀테무르를 고려에 보내게 하고 鈔 50錠을 하사하여 여비로 삼게 하였다. 또한 고려에 명하여 그를 耽羅國으로 보내 그 親族들과 같이 하게 하도록 하였다.”<sup>7)</sup>라고 하였다. 이 아얀테무르(Ayan-Temür?)는 양왕 바자르 오미르의 손자이다. 明太祖 朱元璋의 의도는 명확하다. 양왕의 후예를 외딴 섬에 가두어 둠으로 그들이 북원과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로써 운남에 있는 모든 양왕의 가속과 그 밖의 몽골인들이 모두 탐라로 유배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세워 신부가 말하길 “1382년 운남이 명왕조에 의해 정복되고 제왕들이

6) 《明太祖實錄》 卷143

7) 《明太祖實錄》 卷215, 洪武25年 春正月 丙申



포로로 잡히고 고려와 탐라로 유배되어 갔다. 명왕조의 통제에 들어가고 제왕들이 체포되어 간 후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몽골인들이 운남에 남아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sup>8)</sup>라고 말하였다.

명나라의 군대는 운남과 서북지역에서 연이은 승전을 하면서, 전투력을 불살랐고, 북원을 공격하기 위한 지속적인 준비를 한다. 이러한 불굴의 전투 의지는 고려와 탐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명왕조의 고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거대한 압력을 가한다. 주원장이 遼東의 守將에게 내린 敕諭에 중국 역사에서 조선반도 왕조에 대해 벌인 전쟁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의심할 바 없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고려 측에서는 분명 무거운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다. 명나라가 줄곧 고려에 대해 탐라의 마필을 요구하면서 “고려왕이 말 값을 받지 않겠다고 표문을 올려 청하더라도” 주원장은 “지금 저들이 말 값을 감히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그들의 본심이겠는가. 대개 위세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니, 위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꺾박하는 것은 짐이 할 바가 아니다. 너는 짐의 뜻을 자문에 써 보내어, 고려의 국왕에게 알리고, 이어 延安侯 唐勝宗에게 유사하길 고려의 말을 도착하기를 기다려 쓸 만한 말을 가려 그 값을 쳐주라”라고 명한다. 실질적으로 고려에 강한 압박과 퇴로가 없음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압박은 고려에게는 마침내 탐라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洪武 19年(1386) 丙寅秋七月, 고려는 명나라의 요구로 “典醫副正 이행, 大護軍 陳汝義를 耽羅로 보내었다. 이때 朝廷에서 탐라의 말을 해마다 취하여 천자의 나라에 공물로 바치라 하였다. 허나 이 섬이 누차 반란을 일으켰던 까닭에 貢使가 통행하지 못하자, 황제가 가로막는 행위에 엄히 처벌할 것을 명하니, 온 나라가 놀라게 된다. 이행이 명을 받들어 회유하러 가서, 풍속이 몹시 다른 탐라를 안정시키고, 이에 星主 高臣傑의 아들 鳳禮를 데리고 돌아왔다. 탐라가 이때부터 귀순하여,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량에 복종한다”<sup>9)</sup>라고 하였다. 이를

8) Henry Serruys,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Bruxelles :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80. p.210.

토대로, 탐라가 진정으로 고려에 귀순한 것은 洪武 19년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는 비록 명나라의 압박에서 비롯되었지만, 탐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군관을 탐라로 보내고, 강제로 성주의 아들도 데려온다. 이런 방식으로 고려는 貢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또 탐라를 항복시키고, 탐라를 통치권 아래에 두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원장도 결코 예상치 못한 것일 것이다.

---

9) 《騎牛先生文集》卷之二 《遺事摭錄》

제1세션

##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본 제주의 유목문화

박원길 (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



##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본 제주의 유목문화

A Study on Nomad Culture of Jeju Island by Confucian scholars' perspectives in Chosen Dynasty

박원길(Park, Won-Kil)\*

### 목차

1. 머리말
2. 조선시대 문헌의 종류와 가치
3. 문집 1095개에 수록된 耽羅·濟州의 기사분석
  - 3-1.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까지의 분석일람표
  - 3-2.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까지의 분석일람표
  - 3-3.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까지의 분석일람표
4. 문집분석을 통해본 조선선비들의 유목문화 인식
5. 맺는 말

### 1. 머리말

탐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흔치않게 역사와 문화가 충돌하는 지역이다. 탐라의 역사가 장구하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문헌에 탐라출신의 양씨나 고씨 등이 자신들의 기원을 말할 때 단군시대 때부터 등장했다는 기록에서도 잘 입증된다.<sup>1)</sup> 이후 탐라인들은 주변국과 교류하면서 해양왕국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장악한 세계제국인 대몽골(원)제국 때에도 “고려(高麗), 탐라(耽羅), 일본(日本)”이라는 『원사(元史)』 「외이전(外夷傳)」의 기록에서도 입증되듯이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

필자는 대원올로스 때 탐라의 지위는 당시의 크림리아 반도와 같은 무역중계 기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sup>2)</sup> 1402년 조선 태종 때 등장한 최초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도 탐라 다로가치(Darugachi)의 계보를 고찰해보면 역시 탐라와 관계를 맺고 있음이 나타난다.<sup>3)</sup>

\* 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Director, Research Center for Chinggis Khan Studies)

1) 이러한 기록의 일례가 梁彭孫(1488 ~1545), 『學圃集』 卷五 「神道碑銘并序」: “檀君之時,有三神人降于瀛洲之漢望山,開國稱毛羅”; 梁得中(1665~1742), 『德村集』 卷十 「碑狀: 龍江處士[梁世南]墓誌銘」: “梁氏本耽羅國人,上古濟州漢望山下,有三神人從地湧出,實與檀君同時” 등이다.

2) 이에 대해서는 줄고, 『몽골사에서의 이어도 항로』 『이어도 전설과 실존의 탐구: ‘이어도 고대항로를 찾아서』 (이어도연구회 2016 이어도 국내세미나집) 2016.10.19, pp.11-39를 참조.

3) 위와 같음. 참고로 대원올로스 때 탐라출신으로 대원올로스의 관리가 된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 梁彭孫(1488 ~1545)의 선조인 梁淳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梁淳의 사적은 『學圃集』 卷三 「世系源流」에 “[梁]淳,元宗朝登壯元科,直文翰

역사는 시대인식과 바라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학문 분야인데, 바로 탐라(제주)가 그러한 지역에 속한다. 탐라는 역사적으로 탐라의 고유문화 위에 대몽골(원)제국의 유목문화, 그리고 조선의 주자학적 문화가 덧씌워진 곳이다.

탐라고유의 문화나 몽골문화는 기본적으로 중상주의적 성격을 지닌 교류의 문화이며 문화의 성격도 바다와 육지를 잇는 길 즉 통상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면이 강하다. 그러나 해금(海禁)을 통한 고립을 고수하는 조선시대의 탐라문화는 이전에 존재했던 탐라의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조선의 시대이념은 신분차별에 바탕을 둔 주자학이다.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의 프레임 정의에 따르면 주자학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적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주자학의 논리는 그 분명함이 하늘에 있는 해와 같았다.

사실 조선 선비들의 문집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내적으로 지독한 한면한장(韓面漢腸: 한국인 얼굴에 중국인의 심장을 가진 인물)의 학자들이 쓴 중화사상으로 채워져 있음이 나타난다. 중원의 사상을 이은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자신들의 문집에서 인류역사에서 파스몽골리카라는 조화와 융합이 사상을 건립한 대몽골제국 및 대원올로스 문화의 성격을 “중원 문화의 파괴자”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나갔다. 심지어 조선 여인들의 머리 형태나 복장도 몽골 것으로 간주하여 공격할 정도였다. 이들이 신봉했던 주자학이 북방의 역사와 철학을 몰아냈다. 이러한 시각은 몽골이 진주했던 탐라에서도 “음사(淫祀)” 타파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대원올로스과 달리 “뜻만 높고 능력은 없는 시대”였다. 상업교류가 막힌 시대에서 탐라인들이 생존을 위해 택할 방법은 목축이나 어로, 수공업 등 자체적으로 삶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조선시대 탐라의 생활문화도 교류를 통한 새로운 발전보다는 이전의 생활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퇴락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생활형태가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되었다.

조선시대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란 조관빈(趙觀彬)의 “탐라는 멀리 떨어진 곳이라 관리나 유배된 죄인은 아니면 일반 사람은 오기 힘들다”<sup>4)</sup>는 말처럼 성리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선비들이었다. 이들은 장계(狀啓)를 통한 공식보고나 개인문집을 통해 탐라의 이모저모를 남겼다. 특히 탐라는 중죄인의 유배지라 정은(鄭蘊, 1569~1641)이나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 학식으로 이름난 인물들이 종종 유배되었다. 이 때문에 그들이 탐라에 남긴 영향력을 “유배문화”라는

署, 三使上國, 仕元爲左部尙書銀青光祿大夫, 還麗朝, 忠肅王嘉之, 賜名議, 位止贊成事”처럼 수록되어 있다.

4) 趙觀彬(1691~1757), 『悔軒集』 卷十五 「見老人星記」: “耽羅絕域也, 非官與謫, 則人所罕到”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관리나 죄인의 신분으로 탐라(제주)에 왔던 성리학자들이 남긴 보고서나 문집 속에는 탐라의 독특한 문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 몽골의 유목문화와 관계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말[馬]과 그 파생물일 것이다. 과연 조선시대 탐라에 남겨진 유목문화는 어떤 형상을 지니고 있을까. 본고는 조선시대의 문헌 가운데 문집 부분의 분석을 통해 그 개략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조선시대 문헌의 종류와 가치

조선시대 문헌은 정부기록물, 여행기, 개인문집, 총서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를 순서대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록물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實錄)을 합쳐서 부르는 책 이름이다. 즉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으로부터 철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년간 25대에 걸친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年月日順)에 따라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실록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나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와 같이 ‘일기’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체제나 성격은 다른 실록들과 똑같다. 대부분 왕대마다 1종의 실록을 편찬하였지만 선조실록, 현종실록, 경종실록은 만족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여 후에 수정(修正) 혹은 개수(改修) 실록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또 광해군일기는 인쇄되지 못한 정초본(正草本: 鼎足山本)과 중초본(中草本: 太白山本)이 함께 전하는데, 중초본에는 최종적으로 산삭한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많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실록에 수록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국왕과 신하들의 인물 정보, 외교·군사 관계, 국정의 논의 과정, 의례(儀禮)의 진행, 천문 관측 자료, 천재 지변 기록, 법령과 전례 자료, 호구와 부세(賦稅)·요역(役)의 통계자료, 지방정보와 민간 동향, 계문(啓聞)·차자(劄子)·상소(上疏)와 비답(批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록의 찬수 때마다 일정한 범례를 만들어 기사의 취사선택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는 하지만, 국정의 운영이나 사회의 동향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들이 실록에 수록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초기의 실록에는 유교적 규범의 관점에서 수록하기 곤란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실록의 기사가 정치적 내용에 치우쳐 다양성을 잃게

되고 기록이 빈약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작성되었다. 왕의 실록은 반드시 해당 왕의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 사관들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부여 받아 사소한 사항까지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할 수 있었다. 또 “사신(史臣)은 논한다. ...”라는 형식으로 사관의 의견(일종의 논평)을 적을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 및 대한제국의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 행정 사무 등을 매일 기록한 일기이다. 승정원은 조선 정종 때 창설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기밀을 취급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건국 초부터 정리되었으나 조선전기분(朝鮮前期分)은 임진왜란 등의 병화(兵火)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현재는 1623년(인조1) 3월부터 1894년(고종31) 6월까지 272년간 승정원에서 처리한 국정 기록과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규장각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1910년(융희 4)까지의 총 3,243책만이 남아 있다. 내용은 계품(啓稟), 전지(傳旨), 청패(請牌), 청추(請推), 정사(呈辭), 상소(上疏), 선유(宣諭), 전교(傳敎)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책의 기재 방식은 한 달을 기준으로 책머리에 월간 경연상황, 내전(內殿)의 동향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승정원의 관리 및 당직자의 표시와 출근실태를 표시한 뒤 마지막에 승정원의 업무현황, 왕 및 내전의 문안, 승정원의 인사관계(人事關係) 등의 내용을 실었다. 국사(國史)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군사 등 모든 학문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인 승정원일기는 세계 최대 및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성록(日省錄)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151년 동안의 국정 운영 내용을 매일매일 일기체로 정리한 국왕의 일기이다. 일성록(日省錄)이란 명칭은 논어(論語)에서 증자(曾子)가 말한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吾日三省吾身)”에서 유래했다. 일성록의 서문에는 “옛날을 보는 것은 지금을 살피는 것만 못하고, 남에게서 구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반추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글귀가 있다. 최초 개인 일기적인 성격을 지닌 일성록은 정조 때부터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하게 되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규장각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매일매일 일기를 작성한 다음 5일마다 일기를 정서하여 이를 국왕에게 올려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정조는 일성록이 자기 시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를 원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승정원일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성록을 편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성록은 국정의 주요 현안들을 강(綱: 표제)과 목(目: 세부 사실)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국정 운영에 참고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는 체제로 편찬되었다. 일성록은 18~20세기 동·서양의 정치·문화적 교류의 구체적 실상과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기록물을 넘어서는 세계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은 임진왜란 이후 250여 년 동안 국정을 총괄한 비변사의 일기체 기록으로서 조선 후기 국정의 핵심을 알 수 있는 일급 1차 사료이다. 현재 광해군 9년(161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276년의 분량이 273책의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내용의 기재방식은 왕의 시대와 연월일, 매월마다 비변사의 구성원들을 기재한 좌목(座目)이 있고, 그 뒤에 회의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 시대마다 국가중대사의 전모와 경과, 그리고 사후처리까지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다.

둘째, 여행기로는 명나라와 대청제국을 방문한 사절단이 남긴 여행기와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일본여행기로 크게 나누어진다. 여행기는 공식 출장보고서 외에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15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 걸쳐있는 조선의 여행기들은 동서양의 학자들로부터 “이 만큼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기행문이 기록된 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사료가치를 지닌 기록물이다. 또 연행록의 작자들은 조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로, 그 속에 자신의 사상, 학문, 대외의식 및 새로운 문물이나 학문에 대한 관심을 아낌없이 피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기들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학문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셋째, 개인문집으로 조선시대는 사대부의 시대답게 거의 모든 양반들이 자신들의 문집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문집에는 연행록이나 통신사 등 정부의 공식적인 여행기록과 다른 표류 등 개인적인 여행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탐라(제주)사람들의 해외 표류기가 이러한 문집에 종종 수록되어 있다.

넷째, 총서는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성호사설(星湖僊說), 지봉유설(芝峯類說)이나 반계수록(磻溪隨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만기요람(萬機要覽) 등이 이에 속한다. 백과전서적인 총서도 개인저술이라는 점에서 개인문집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기술의도 면에서 문집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상 언급한 조선시대의 문헌들은 동아시아의 방대한 기록유산이자 국제성을 띤 학문자료들이다. 본 연구는 위의 문헌 종류 가운데 문집을 대상으로 탐라와 제주에 관한 기록을 정리 분석한 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본 제주의 유목문화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에 사용한 문집은 모두 1095개이며, 몽골의 유목문화를 대표하는 부분

은 일단 말[馬]로 한정시켰다. 아울러 말에 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관리와 유배자라는 점에서 제주 유배문화의 바탕이 된 유배기록도 통계표에 적시했다.

필자는 조선시대의 문집에 등장하는 탐라, 제주관계 기록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①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 ②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 ③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910)의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하는 연구방식을 취하였다. 이 단계는 조선 지배층인 관료나 선비들이 지닌 동아시아 인식의 변화와도 일치한다.<sup>5)</sup>

### 3. 문집 1095개에 수록된 耽羅, 濟州의 기사분석

#### 3-1.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까지의 분석일람표

번호	생존연대	저자	문집명	기록여부			
				耽羅	濟州	馬※ <sup>6)</sup>	流配
0001	未詳 ~1398	鄭道傳	三峯集	●	●	—	—
0002	1337~1403	朴宜中	貞齋逸稿	—	—	—	—
0003	1338~1423	成石璘	獨谷集	—	●	—	—
0004	1339~1415	羅繼從	竹軒遺集	●	—	—	●
0005	1345~1405	李詹	雙梅堂篋藏集	●	—	—	—
0006	1346~1405	趙浚	松堂集	●	—	—	—
0007	1347~1416	河崙	浩亭集	—	●	—	—
0008	1351~1419	南在	龜亭遺藁	—	—	—	—
0009	1352~1409	權近	陽村集	●	●	●	—
0010	1352~1432	李行	騎牛集	—	—	—	—
0011	1353~1419	吉再	治隱集	—	—	—	—
0012	1358~1397	鄭摠	復齋集	—	—	—	—
0013	1362~1431	李稷	亨齋詩集	●	—	●	—
0014	1363~1419	權遇	梅軒集	●	●	—	—
0015	1368~1429	李原	容軒集	●	—	—	—
0016	1369~1430	卞季良	春亭集	—	—	—	—
0017	1373~1455	尹祥	別洞集	—	—	—	—
0018	1374~1446	朴興生	菊堂遺稿	—	—	—	—
0019	1374~1446	申槩	寅齋集	—	—	—	—
0020	1376~1453	河演	敬齋集	—	—	—	—
0021	1388~1443	柳方善	泰齋集	—	—	—	—
0022	1401~1481	丁克仁	不憂軒集	—	●	—	●
0023	1408~1442	南秀文	敬齋遺稿	—	—	—	—
0024	1409~1474	崔恒	太虛亭集	—	●	●	●
0025	1409~1481	金守溫	拭疣集	—	—	—	—
0026	1412~1456	河緯地	丹溪遺稿	—	—	—	—
0027	1415~1477	李石亨	樗軒集	—	●	—	—

5) 이에 대해서는 박원길, 김장구, 왕수연, 『조선시대 선비들의 동아시아 인식 — 몽골과 건주여진을 중심으로—(The Korean Intellectuals' Views on East Asian Affairs in the Choseon Dynasty - Concentrated on Mongolia and Jusen Gurun)』,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인문정책연구총서2015-18), 2015, pp.47-48를 참조.

6) <馬※>은 제주말이 대원올로스와 연관이 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을 표시함. 아울러 문집명에 표기된 <●>은 탐

0028	1415~1482	梁誠之	訥齋集	●	●	●	—
0029	1416~1464	金淡	撫松軒集	—	—	—	—
0030	1417~1456	朴彭年	朴先生遺稿	—	—	—	—
0031	1417~1475	申叔舟	保閑齋集	●	●	●※	—
0032	1418~1456	成三問	成謹甫集	—	—	—	—
0033	1420~1488	徐居正	四佳集	●	●	●※	—
0034	1420~1489	趙旅	漁溪集	—	—	—	—
0035	1422~1484	李承召	三灘集	●	●	—	—
0036	1424~1483	姜希孟	私淑齋集	●	●	●	—
0037	1427~1456	成侃	眞逸遺稿	—	—	—	—
0038	1427~1497	孫舜孝	勿齋集	—	●	—	—
0039	1431~1492	金宗直	佔畢齋集	●	●	—	●
0040	1432~1480	崔淑精	逍遙齋集	—	—	—	—
0041	1435~1493	金時習	梅月堂集	—	—	—	—
0042	1437~1487	金孟性	止止堂詩集	—	—	—	—
0043	1438~1498	李陸	靑坡集	—	—	—	—
0044	1438~1504	洪貴達	虛白亭集	—	—	—	—
0045	1439~1504	成侃	虛白堂集	—	●	—	—
0046	1439~1504	楊熙止	大峯集	—	—	—	—
0047	1445~1494	俞好仁	潘谿集	—	—	—	—
0048	1448~1492	金訢	顔樂堂集	—	●	—	—
0049	1449~1498	表沿沫	藍溪集	—	—	—	—
0050	1449~1507	李宜茂	蓮軒雜稿	—	—	—	—
0051	1449~1515	蔡壽	懶齋集	—	—	—	—
0052	1450~1504	鄭汝昌	一蠹集	—	●	—	●
0053	1452~1529	洪裕孫	篠簕遺稿	●	●	—	●
0054	1454~1488	李婷	風月亭集	—	●	●	—
0055	1454~1492	南孝溫	秋江集	—	●	●	—
0056	1454~1503	曹偉	梅溪集	—	—	—	—
0057	1454~1504	崔溥	錦南集●	●	●	—	—
0058	1454~1527	丁壽崗	月軒集	—	●	—	—
0059	1457~1521	文敬全	滄溪集	—	—	—	—
0060	1458~1488	李湜	四雨亭集	—	—	—	—
0061	1458~1491	崔忠成	山堂集	—	—	—	—
0062	1462~1538	鄭光弼	鄭文翼公遺稿	—	—	—	—
0063	1463~1519	申用漑	二樂亭集	—	●	—	—
0064	1464~1498	金駟孫	濯纓集	—	—	—	—
0065	1464~1519	姜渾	木溪逸稿	—	—	—	—
0066	1467~1498	權五福	睡軒集	—	●	—	—
0067	1467~1555	李賢輔	聾巖集	—	—	—	—
0068	1468~1504	李胄	忘軒遺稿	—	—	—	—
0069	1469~1502	鄭希良	虛庵遺集	—	●	—	—
0070	1469~1517	李堦	松齋集	●	—	—	—
0071	1470~1550	魚得江	灌圃詩集	—	—	—	—
0072	1471~1498	李穆	李評事集	●	—	—	—
0073	1471~1540	朴英	松堂集	—	—	—	—
0074	1473~1508	洪彦忠	寓菴稿	—	—	—	—
0075	1473~1533	金世弼	十淸軒集	—	—	—	—
0076	1473~1548	李希輔	安分堂詩集	—	—	—	—
0077	1474~1530	朴祥	訥齋集	●	●	—	—

0078	1474~1540	金克成	憂亭集	—	●	—	—
0079	1475~未詳	沈義	大觀齋亂稿	—	—	—	—
0080	1476~1549	洪彦弼	默齋集	—	●	—	—
0081	1478~1534	李荇	容齋集	●	●	—	●
0082	1478~1543	金安國	慕齋集	●	●	—	—
0083	1478~1548	權機	冲齋集	●	—	●	—
0084	1479~1504	朴閭	挹翠軒遺稿	—	—	—	—
0085	1480~1533	李籽	陰崖集	—	●	●	—
0086	1480~1545	梁彭孫	學圃集	●	●	—	●
0087	1481~1537	金安老	希樂堂稿	●	●	—	—
0088	1482~1519	趙光祖	靜菴集	—	—	—	—
0089	1483~1536	李迨	月淵集	—	—	—	—
0090	1484~1555	申光漢	企齋集	●	●	●	●
0091	1485~1541	金正國	思齋集	●	●	—	●
0092	1486~1521	金淨	冲庵集●	●	●	●	●
0093	1486~1521	韓忠	松齋集	—	—	—	—
0094	1486~1562	蘇世讓	陽谷集	—	—	—	—
0095	1487~1540	沈彦光	漁村集	—	●	—	—
0096	1487~1544	金緣	雲巖逸稿	—	—	—	—
0097	1488~1534	金絳	自菴集	●	—	—	—
0098	1489~1546	徐敬德	花潭集	—	—	—	—
0099	1490~未詳	鄭球	乖隱遺稿	—	—	—	—
0100	1491~1553	晦齋集	李彦迪	—	—	—	—
0101	1491~1570	鄭士龍	湖陰雜稿	●	●	—	—
0102	1492~1521	奇遵	德陽遺稿	—	—	—	—
0103	1492~1555	趙晟	養心堂集	—	—	—	—
0104	1493~1549	閔齊仁	立巖集	●	●	●	—
0105	1493~1562	朴雲	龍巖集	—	—	—	—
0106	1493~1564	尙震	泛虛亭集	●	—	—	—
0107	1493~1564	成守琛	聽松集	—	—	—	—
0108	1493~1583	宋純	俛仰集	●	●	—	—
0109	1494~1558	宋希奎	俚溪集	—	●	—	●
0110	1495~1535	趙宗敬	獨庵遺稿	—	—	—	—
0111	1495~1547	金義貞	潛庵逸稿	—	—	—	—
0112	1495~1554	周世鵬	武陵雜稿	●	●	—	—
0113	1496~1550	李滢	溫溪逸稿	—	—	—	—
0114	1496~1568	林億齡	石川詩集	●	●	—	—
0115	1497~1540	丁煥	檜山集	—	—	—	—
0116	1497~1579	成運	大谷集	—	—	—	—
0117	1498~1546	羅湜	長吟亭遺稿	—	●	●	—
0118	1498~1551	羅世纘	松齋遺稿	—	—	—	—
0119	1498~1554	李元孫	無何翁集	—	●	—	—
0120	1498~1557	趙昱	龍門集	—	—	—	—
0121	1498~1562	李潤慶	崇德齋遺稿	●	●	—	—
0122	1499~1547	宋麟壽	圭菴集	●	●	—	—
0123	1499~1572	李浚慶	東阜遺稿	—	●	—	●
0124	1499~1576	李恒	一齋集	—	—	—	—
0125	1500~1584	林薰	葛川集	—	—	—	—
0126	1501~1570	李滉	退溪集	—	●	—	●
0127	1501~1572	曹植	南冥集	●	—	●	—

0128	1503~1549	崔演	艮齋集	●	—	—	—
0129	1504~1585	洪暹	忍齋集	●	●	—	—
0130	1507~1581	宋麒秀	秋坡集	—	●	—	左遷
0131	1508~1543	嚴昕	十省堂集	—	●	—	—
0132	1509~1570	金就文	久庵集	—	●	—	●
0133	1510~1560	金麟厚	河西全集	—	●	—	—
0134	1512~1560	丁煥	游軒集	●	●	—	—
0135	1512~1563	金澍	寓庵遺集	●	—	—	—
0136	1512~1571	李楨	龜巖集	—	—	—	—
0137	1512~1573	吳祥	負暄堂遺稿	—	—	—	—
0138	1513~1577	柳希春	眉巖集	●	●	—	●
0139	1513~1592	朴枝華	守庵遺稿	●	—	—	●
0140	1514~1547	林亨秀	錦湖遺稿	●	●	—	—
0141	1514~1558	朴全	松坡逸稿	—	—	—	—
0142	1514~1578	尹鉉	菊磻集	—	—	—	—
0143	1515~1554	洪仁祐	耻齋遺稿	—	—	—	—
0144	1515~1572	李洪男	汲古遺稿	●	—	—	—
0145	1515~1588	鄭惟吉	林塘遺稿	—	—	—	—
0146	1515~1590	盧守愼	穌齋集	●	—	—	●
0147	1516~1571	柳景深	龜村集	—	—	—	—
0148	1516~1577	金富弼	後彫堂集	—	—	—	—
0149	1516~1599	沈守慶	聽天堂詩集	—	—	—	—
0150	1517~1563	黃俊良	錦溪集	●	●	—	—
0151	1517~1578	李之菡	土亭遺稿	—	●	—	—
0152	1517~1580	許曄	草堂集	—	—	—	—
0153	1517~1584	宋寅	頤庵遺稿	—	—	—	—
0154	1517~1584	楊士彦	蓬萊詩集	—	—	—	—
0155	1517~1586	朴承任	嘯臯集	●	—	—	—
0156	1517~1602	林芸	瞻慕堂集	—	—	—	—
0157	1518~1578	盧禎	玉溪集	—	—	—	—
0158	1519~1581	梁應鼎	松川遺集	●	●	—	—
0159	1519~1594	金貴榮	東園集	—	●	—	●
0160	1520~1549	康惟善	舟川遺稿	—	—	—	—
0161	1520~1578	李後白	靑蓮集	—	—	—	—
0162	1520~1593	權擘	習齋集	—	—	—	—
0163	1521~1574	吳健	德溪集	—	—	—	—
0164	1521~1584	琴輔	梅軒集	—	—	—	—
0165	1521~1606	吳守盈	春塘集	—	—	—	—
0166	1522~1556	白光弘	岐峯集	—	—	—	—
0167	1523~1567	姜翼	介庵集	—	—	—	—
0168	1523~1589	朴淳	思菴集	—	●	—	—
0169	1523~1591	徐起	孤靑遺稿	●	—	—	—
0170	1524~1569	金八元	芝山集	—	—	—	—
0171	1524~1590	金宇宏	開巖集	●	●	—	●
0172	1524~1594	俞泓	松塘集	—	—	—	—
0173	1524~1606	趙穆	月川集	—	—	—	—
0174	1524~1609	丁炤	晚軒集	—	—	—	—
0175	1525~1594	金隆	勿巖集	—	—	—	—
0176	1525~1610	許震童	東湘集	—	—	—	—
0177	1526~1584	文益成	玉洞集	—	—	—	—

0178	1526~1586	具鳳齡	栢潭集	—	—	—	—
0179	1526~1605	朴光前	竹川集	—	—	—	—
0180	1526~1605	鄭琢	藥圃集	—	—	—	—
0181	1527~1572	奇大升	高峯集	—	—	—	—
0182	1527~1599	金齊閔	鰲峯集	—	●	—	—
0183	1529~1590	鄭介清	愚得錄	—	—	—	—
0184	1530~1604	琴蘭秀	惺齋集	—	—	—	—
0185	1531~1598	金富倫	雪月堂集	—	—	—	—
0186	1531~1604	具思孟	八谷集	—	—	—	—
0187	1532~1585	辛應時	白麓遺稿	—	—	—	—
0188	1532~1587	權好文	松巖集	—	●	—	—
0189	1532~1590	金孝元	省菴遺稿	—	●	—	—
0190	1532~1607	黃廷彧	芝川集	—	—	—	—
0191	1533~1576	鄭惟一	文峯集	—	●	—	—
0192	1533~1592	高敬命	霽峯集	—	—	—	—
0193	1533~1592	李純仁	孤潭逸稿	—	—	—	—
0194	1533~1601	尹斗壽	梧陰遺稿	—	—	—	—
0195	1533~1621	李義健	峒隱稿	—	—	—	—
0196	1534~1588	裴三益	臨淵齋集	—	—	—	—
0197	1534~1591	權文海	草澗集	—	●	—	—
0198	1534~1599	宋翼弼	龜峯集	—	—	—	—
0199	1534~1607	柳思規	桑榆集	—	—	—	—
0200	1535~1598	成渾	牛溪集	—	●	—	—
0201	1535~1623	鄭仁弘	來庵集	●	●	●	—
0202	1536~1583	李濟臣	清江集	—	—	—	—
0203	1536~1584	李珥	栗谷全書	—	●	—	●
0204	1536~1593	鄭澈	松江集	—	●	—	—
0205	1536~1594	洪聖民	拙翁集	—	—	—	—
0206	1536~1596	丁希孟	善養亭集	—	●	—	—
0207	1536~1599	李海壽	藥圃遺稿	—	●	—	—
0208	1537~1582	白光勳	玉峯集	—	●	—	—
0209	1537~1593	金千鎰	健齋集	—	—	—	—
0210	1537~1597	趙宗道	大笑軒逸稿	—	—	—	—
0211	1537~1616	尹根壽	月汀集	●	●	—	—
0212	1537~1626	宋柟壽	松潭集	—	—	—	—
0213	1538~1590	河沆	覺齋集	—	—	—	—
0214	1538~1593	金誠一	鶴峯集	—	—	—	—
0215	1538~1602	鄭崐壽	栢谷集	—	—	—	—
0216	1539~1583	崔慶昌	孤竹遺稿	—	—	—	—
0217	1539~1593	李誠中	坡谷遺稿	●	—	—	—
0218	1539~1601	柳雲龍	謙菴集	—	—	—	—
0219	1539~1609	李山海	鵝溪遺稿	—	—	—	—
0220	1539~1612	崔豈	簡易集	—	—	—	—
0221	1539~1617	權春蘭	晦谷集	—	—	—	—
0222	1539~1618	李達	蓀谷詩集	—	—	—	—
0223	1540~1603	金宇顥	東岡集	—	●	—	—
0224	1540~1616	金玘	栢巖集	●	●	—	—
0225	1540~1617	吳滢	竹牖集	—	—	—	—
0226	1541~1593	金沔	松菴遺稿	●	—	—	—
0227	1541~1596	李德弘	艮齋集	—	—	—	—

0228	1541~1600	李廷穉	四留齋集	●	●	—	—
0229	1541~1611	朴汝龍	松崖集	—	—	—	—
0230	1541~1615	洪可臣	晩全集	—	—	—	—
0231	1542~1587	徐益	萬竹軒集	—	—	—	—
0232	1542~1601	安敏學	楓崖集	—	—	—	—
0233	1542~1607	柳成龍	西厓集	—	●	—	—
0234	1542~1609	李瑀	玉山詩稿	—	—	—	—
0235	1542~1615	尹安性	冥觀遺稿集	—	—	—	—
0236	1542~1621	金玄成	南窓雜藁	—	—	—	—
0237	1543~1617	權斗文	南川集	—	—	—	—
0238	1543~1620	鄭述	寒岡集	—	—	—	—
0239	1544~1592	梁大樸	青溪集	—	—	—	—
0240	1544~1592	趙憲	重峰集	—	●	—	—
0241	1544~1598	李魯	松巖集	—	—	—	—
0242	1544~1602	裴應襲	安村集	●	—	●	—
0243	1544~1616	黃暹	息庵集	●	—	●	—
0244	1545~1598	李舜臣	李忠武公全書	●	●	—	—
0245	1545~1607	鄭士誠	芝軒集	—	—	—	—
0246	1545~1609	曹好益	芝山集	—	—	—	—
0247	1545~1636	劉希慶	村隱集	●	—	—	—
0248	1546~1632	成汝信	浮查集	●	—	—	●
0249	1547~1603	金圻	北厓集	—	●	—	—
0250	1547~1615	張經世	沙村集	—	—	—	—
0251	1547~1622	朴而章	龍潭集	—	—	—	—
0252	1547~1634	李元翼	梧里集	—	●	—	—
0253	1548~1612	許箴	岳麓集	—	●	—	●
0254	1548~1622	沈喜壽	一松集	—	—	—	—
0255	1548~1630	郭說	西浦集	—	●	—	●
0256	1548~1631	金長生	沙溪遺稿	—	—	—	—
0257	1549~1587	林悌	林白湖集	●	●	●	●
0258	1549~1591	洪迪	荷衣遺稿	—	●	—	—
0259	1549~1606	朴惺	大菴集	—	—	—	—
0260	1549~1607	李廷馨	知退堂集	●	●	—	●
0261	1549~1613	趙彭年	溪陰集	●	●	●	—
0262	1549~1615	洪履祥	慕堂集	—	—	—	—
0263	1549~1627	柳根	西垞集	—	—	—	—
0264	1550~1615	徐思遠	樂齋集	—	—	—	—
0265	1551~1588	許筠	荷谷集	—	—	—	—
0266	1551~1592	宋象賢	泉谷集	—	—	—	—
0267	1551~1611	文德教	東湖集	—	—	—	—
0268	1551~1613	黃赫	獨石集	—	—	—	—
0269	1552~1590	權宇	松巢集	—	—	—	—
0270	1552~1615	韓百謙	久菴遺稿	—	—	—	—
0271	1552~1617	郭再祐	忘憂集	—	—	—	—
0272	1552~1618	吳億齡	晩翠集	●	●	—	—
0273	1552~1619	呂大老	鑑湖集	—	—	—	—
0274	1552~1626	閔仁伯	苔泉集	—	—	—	—
0275	1552~1633	金德謙	靑陸集	—	—	—	—
0276	1553~1602	金大賢	悠然堂集	—	—	—	—
0277	1553~1612	河受一	松亭集	●	—	—	—

0278	1553~1616	鄭賜湖	禾谷集	—	—	—	—
0279	1553~1623	高尙顔	泰村集	●	—	●	—
0280	1553~1623	申應渠	晚退軒遺稿	—	—	—	—
0281	1553~1630	李得胤	西溪集	—	—	—	—
0282	1553~1634	孫處訥	慕堂集	—	—	—	—
0283	1553~1634	李好閔	五峯集	—	—	—	—
0284	1554~1611	朴汝櫟	感樹齋集	—	—	—	—
0285	1554~1614	韓應寅	百拙齋遺稿	—	—	—	—
0286	1554~1631	文緯	茅谿集	●	—	—	●
0287	1554~1637	張顯光	旅軒集	—	●	●	—
0288	1555~1593	金垓	近始齋集	—	—	—	—
0289	1555~1636	趙靖	黔澗集	—	—	—	—
0290	1556~1595	李廷立	溪隱遺稿	—	—	—	—
0291	1556~1609	裴龍吉	琴易堂集	—	—	—	—
0292	1556~1613	趙翊	可畦集	●	●	●	—
0293	1556~1615	車天輅	五山集	●	●	—	—
0294	1556~1618	李恒福	白沙集	●	●	—	—
0295	1556~1619	文景虎	嶧陽集	●	●	—	●
0296	1556~1620	宋英壽	瓢翁遺稿	—	—	—	—
0297	1556~1622	黃汝一	海月集	●	●	—	—
0298	1557~1620	金涌	雲川集	—	—	—	—
0299	1557~1623	金興國	水北亭集	—	—	—	—
0300	1557~1627	韓浚謙	柳川遺稿	—	—	—	—
0301	1558~1619	鄭士信	梅窓集	●	—	—	—
0302	1558~1630	李厚慶	畏齋集	—	—	—	—
0303	1558~1631	徐洧	藥峯遺稿	—	—	—	—
0304	1558~1648	李堧	月澗集	—	—	—	—
0305	1559~1611	任鏞	鳴臯集	●	●	—	—
0306	1559~1617	孫起陽	聲漢集	—	—	—	—
0307	1559~1617	吳克成	問月堂集	—	—	—	—
0308	1559~1619	尹光啓	橘屋拙稿	●	—	—	—
0309	1559~1623	柳夢寅	於于集	—	—	—	—
0310	1559~1624	洪璋	西潭集	—	—	—	—
0311	1559~1625	閔昱	石溪集	—	—	—	—
0312	1559~1626	成文濬	滄浪集	—	—	—	—
0313	1559~1631	金正男	龍溪遺稿	—	—	—	—
0314	1559~1636	吳允謙	秋灘集	—	—	—	—
0315	1560~1622	金允安	東籬集	—	●	—	●
0316	1560~1624	李尙毅	少陵集	—	—	—	—
0317	1560~1635	李垓	蒼石集	—	—	—	—
0318	1560~1638	崔恒慶	竹軒集	—	—	—	—
0319	1560~1651	崔希亮	逸翁集	—	●	—	—
0320	1561~1613	李德馨	漠陰文稿	—	●	—	—
0321	1561~1625	曹友仁	頤齋集	—	—	—	—
0322	1561~1637	金尙容	仙源遺稿	●	—	—	—
0323	1561~1642	朴仁老	蘆溪集	—	—	—	—
0324	1562~1617	黃愼	秋浦集	●	—	●	—
0325	1562~1624	申之梯	梧峯集	●	—	—	●
0326	1562~1636	金德誠	醒翁遺稿	—	—	—	—
0327	1563~1589	許楚姬	蘭雪軒詩集	—	—	—	—



0328	1563~1606	李春英	體素集	—	—	—	—
0329	1563~1609	安德麟	沙村集	●	—	●	—
0330	1563~1625	鄭曄	守夢集	—	—	—	—
0331	1563~1626	金守訥	九峯集	—	—	—	—
0332	1563~1628	李晬光	芝峯集	●	●	—	—
0333	1563~1633	鄭經世	愚伏集	—	●	—	●
0334	1563~1640	崔睨	訥齋集	●	—	●	—
0335	1563~1640	許疇	水色集	—	—	—	—
0336	1563~1642	全湜	沙西集	●	●	—	●
0337	1564~1627	玄德升	希菴遺稿	—	—	—	—
0338	1564~1632	金安節	洛涯遺稿	—	—	—	—
0339	1564~1633	張興孝	敬堂集	—	—	—	—
0340	1564~1635	李廷龜	月沙集●	●	●	—	—
0341	1564~1636	柳瀟	醉吃集	—	●	—	—
0342	1564~1637	李光胤	瀼西集	—	—	—	—
0343	1564~1647	高仁繼	月峯集	●	—	—	—
0344	1565~1617	吳長	思潮集	●	—	—	●
0345	1565~1624	鄭文孚	農圃集	—	—	—	—
0346	1566~1619	李惟弘	艮庭集	—	—	—	—
0347	1566~1622	魯認	錦溪集	—	●	—	●
0348	1566~1624	全有亨	鶴松集	●	●	—	—
0349	1566~1628	申欽	象村稿	●	●	●	●
0350	1566~1629	金中淸	苟全集	—	●	—	—
0351	1566~1629	張晩	洛西集	—	—	—	—
0352	1566~1630	朴敏	凌虛集	●	●	—	●
0353	1566~1635	丁運熙	孤舟集	●	●	—	—
0354	1566~1650	姜籀	竹窓集	—	—	—	—
0355	1566~1651	李乚	東湖集	—	●	—	—
0356	1567~1618	姜沆	睡隱集	●	●	—	—
0357	1567~1618	宋邦祚	習靜集	—	—	—	—
0358	1567~1637	趙亨道	東溪集	—	—	—	—
0359	1567~1644	李慶全	石樓遺稿	●	—	—	—
0360	1567~1649	趙緯韓	玄谷集	●	—	—	—
0361	1567~1650	金寧	遯峯集	—	—	—	—
0362	1568~1589	崔澱	楊浦遺藁	—	—	—	—
0363	1568~1624	李燾	壺峯集	—	—	—	—
0364	1568~1630	李屹	雪汀集	●	●	—	—
0365	1568~1633	郭玘	丹谷集	●	—	—	—
0366	1568~1639	李彦英	浣亭集	—	—	—	—
0367	1568~未詳	梁慶遇	霽湖集	●	—	—	—
0368	1569~1601	具容	竹窓遺稿	—	—	—	—
0369	1569~1612	權輶	石洲集	—	—	—	—
0370	1569~1618	許筠	惺所覆瓿藁	●	●	●	●
0371	1569~1620	盧景任	敬菴集	—	—	—	—
0372	1569~1626	李時發	碧梧遺稿	●	—	—	—
0373	1569~1631	權泰一	藏谷集	—	—	—	—
0374	1569~1634	李潤雨	石潭集	—	—	—	—
0375	1569~1639	鄭侗	松塢集	—	—	—	—
0376	1569~1641	鄭蘊	桐溪集●	●	●	—	●
0377	1569~1646	沈悅	南坡相國集	●	—	●	—

0378	1569~1647	趙平	雲壑集	●	—	—	—
0379	1570~1622	權得己	晚悔集	—	—	—	—
0380	1570~1629	李民成	敬亭集	●	●	●	—
0381	1570~1652	金尙憲	淸陰集●	●	●	●	●
0382	1571~1629	鄭允穆	淸風子集	—	—	—	—
0383	1571~1634	李春元	九畹集	●	—	—	—
0384	1571~1637	李安訥	東岳集	●	●	—	—
0385	1571~1639	鄭文翼	松竹堂集	—	—	—	—
0386	1571~1642	金忠善	慕夏堂集	—	—	—	—
0387	1571~1642	朴弘美	灌圃集	—	—	—	—
0388	1571~1648	金瑬	北渚集	—	●	—	—
0389	1571~1649	都聖俞	養直集	—	—	—	—
0390	1572~1630	金奉祖	鶴湖集	●	—	—	●
0391	1572~1630	李命俊	潛窩遺稿	—	—	—	—
0392	1572~1631	趙纘韓	玄洲集	●	—	—	—
0393	1572~1645	洪瑞鳳	鶴谷集	●	●	●	—
0394	1572~1652	朴壽春	菊潭集	—	—	—	—
0395	1573~1623	洪命元	海峯集	—	—	—	—
0396	1573~1635	朴知誠	潛治集	—	—	—	—
0397	1573~1649	李民賓	紫巖集	—	●	●	—
0398	1573~1654	安邦俊	隱峯全書	—	●	●	●
0399	1574~1643	金友伋	秋潭集	—	●	—	—
0400	1574~1655	裴尙龍	藤庵集	—	—	—	—
0401	1574~1656	金集	愼獨齋遺稿	—	—	—	—
0402	1575~1636	鄭忠信	晚雲集	—	●	—	—
0403	1575~1638	陸大欽	茶山集	●	—	—	—
0404	1575~1638	趙希逸	竹陰集	●	●	—	●
0405	1575~1644	權濤	東溪集	—	—	—	—
0406	1576~1623	任叔英	疎菴集	—	—	—	—
0407	1576~1631	申達道	晚悟集	—	—	—	—
0408	1576~1643	申活	竹老集	—	—	—	—
0409	1576~1650	申敏一	化堂集	—	—	—	—
0410	1577~1624	沈光世	休翁集	●	—	—	—
0411	1577~1641	金玲	溪巖集	—	—	—	—
0412	1577~1648	金榮祖	忘窩集	—	—	—	—
0413	1577~1650	鄭榮邦	石門集	—	—	—	—
0414	1577~1652	高用厚	晴沙集	—	—	—	—
0415	1577~1658	鄭克後	雙峯集	—	—	—	—
0416	1578~1636	高傳川	月峯集	●	—	—	—
0417	1579~1642	黃宗海	朽淺集	●	—	—	—
0418	1579~1655	趙翼	浦渚集	●	●	●	●
0419	1580~1639	申楫	河陰集	●	●	—	●
0420	1580~1643	姜碩期	月塘集	—	—	—	—
0421	1580~1656	金光煜	竹所集	●	●	●	●
0422	1580~1658	金堉	潛谷遺稿	—	●	—	●
0423	1582~1612	宋夢寅	琴巖集	—	—	—	—
0424	1582~1635	柳衫	修巖集	—	—	—	—
0425	1582~1646	朴弘中	秋山集	—	—	—	—
0426	1582~1650	鄭弘溟	畸庵集	—	—	—	—
0427	1582~1657	尹新之	玄洲集	—	●	●	—

0428	1582~1657	趙相禹	時庵集	—	—	—	—
0429	1583~1640	朴綱	无悶堂集	—	—	—	—
0430	1583~1650	趙又新	白潭遺集	—	●	—	●
0431	1584~1638	羅海鳳	南礪集選	—	—	—	—
0432	1584~1647	金光炫	水北遺稿	●	—	—	—
0433	1584~1647	李植	澤堂集	●	●	●	—
0434	1584~1663	具瑩	竹牖詩集	●	—	—	—
0435	1585~1639	金地粹	苔川集	—	●	—	●
0436	1585~1645	李尙馨	天默遺稿	—	—	—	—
0437	1585~1651	柳楫	白石遺稿	—	—	—	—
0438	1585~1657	李敬輿	白江集	●	●	—	●
0439	1585~1659	權克中	靑霞集	●	●	●	—
0440	1585~1664	趙任道	澗松集	●	—	—	●
0441	1585~未詳	崔奇男	龜谷詩稿	—	—	—	—
0442	1586~1637	洪翼漢	花浦遺稿	—	—	—	—
0443	1586~1646	洪鎬	無住逸稿	—	●	—	—
0444	1586~1647	崔鳴吉	遲川集	—	—	—	—
0445	1586~1657	林眞忖	林谷集	●	●	—	●
0446	1586~1669	趙綱	龍洲遺稿	●	●	—	●
0447	1587~1638	張維	谿谷集	●	●	—	—
0448	1587~1666	吳竣	竹南堂稿	—	—	—	—
0449	1587~1667	金應祖	鶴沙集	●	●	—	—
0450	1587~1671	尹善道	孤山遺稿	●	●	—	●
0451	1587~未詳	崔有淵	玄巖遺稿	—	—	—	—
0452	1588~1635	鄭百昌	玄谷集	●	●	—	—
0453	1588~1641	崔有海	嘿守堂集	●	—	●	—
0454	1588~1644	申翊聖	樂全堂集	●	—	—	●
0455	1588~1653	鮮于浹	遯菴全書	—	—	—	—
0456	1588~1655	李弘有	遯軒集	—	—	—	—
0457	1588~1661	許厚	遯溪遺編	—	—	—	—
0458	1589~1659	申悅道	懶齋集	●	●	—	—
0459	1589~1662	韓夢參	釣隱集	—	—	—	—
0460	1589~1670	李敏求	東州集	●	●	—	—
0461	1590~1647	曹文秀	雪汀詩集	—	—	—	—
0462	1590~1666	具致用	于郊堂遺稿	●	●	—	—
0463	1590~1674	李時明	石溪集	—	—	—	—
0464	1591~1658	姜大遂	寒沙集	—	—	—	—
0465	1591~1666	尹順之	淬沔齋詩集	●	—	—	—
0466	1592~1634	吳翹	天坡集	—	—	—	—
0467	1592~1645	朴瀾	汾西集	●	●	—	—
0468	1592~1661	愼天翊	素隱遺稿	—	—	—	—
0469	1593~1646	金世濂	東溟集	—	●	—	—
0470	1593~1662	沈之源	晚沙稿	—	—	—	—
0471	1593~1666	河弘度	謙齋集	—	—	—	—
0472	1594~1660	沈東龜	晴峯集	●	—	—	—
0473	1594~1669	李回寶	石屏集	—	—	—	—
0474	1595~1645	李明漢	白洲集	●	—	—	●
0475	1595~1656	洪宇定	杜谷集	—	●	—	—
0476	1595~1658	李弘祚	少痊集	—	—	—	—
0477	1595~1658	趙克善	冶谷集	●	●	●	●

0478	1595~1660	李弘祚	睡隱遺集	—	—	—	—
0479	1595~1664	成以性	溪西逸稿	—	●	—	—
0480	1595~1671	李景奭	白軒集	●	●	—	●
0481	1595~1675	申碩著	百源集	—	●	—	●
0482	1595~1682	許穆	記言 ●	●	●	●	—
0483	1596~1633	李義吉	亮谷遺稿	—	—	—	—
0484	1596~1653	金慶餘	松崖集	—	—	—	—
0485	1596~1657	沈之漢	滄洲集	—	—	—	—
0486	1596~1663	金南重	野塘遺稿	—	—	—	—
0487	1596~1668	尹舜舉	童土集	—	●	—	—
0488	1597~1635	李尙質	家州集	—	—	—	—
0489	1597~1638	金倬	敬窩集	—	—	—	—
0490	1597~1658	河潛	台溪集	—	●	—	●
0491	1597~1659	宋國澤	四友堂集	—	—	—	—
0492	1597~1668	姜瑜	商谷集	—	—	—	—
0493	1597~1673	鄭斗卿	東溟集	●	●	●	—
0494	1597~1675	金宗一	魯庵集	—	●	—	●
0495	1598~1645	李昭漢	玄洲集	—	—	—	—
0496	1598~1667	金是楹	瓢隱集	—	—	—	—
0497	1598~1667	李時省	騏峯集	—	—	—	—
0498	1598~1674	柳元之	拙齋集	—	—	—	—
0499	1599~1655	李海昌	松坡集	—	—	—	—
0500	1599~1660	蔡裕後	湖洲集	—	●	—	●
0501	1599~1676	張應一	聽天堂集	—	—	—	—
0502	1600~1668	鄭養	抱翁集	—	—	—	—
0503	1600~1673	申弘望	孤松集	●	—	—	●
0504	1600~1674	安獻徵	鷗浦集	—	—	—	—
총계(504)				143	161	44(2)	62

위 504개 문집 가운데 탐라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143, 제주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161로 나타났다. 그리고 탐라와 제주 관계 기록 중 말을 기록한 것이 44이며, 이 가운데 2는 말의 기원을 대원올로스로 적시하고 있고, 유배 기록은 62로 나타났다. 이것을 비율로 환산할 경우 탐라는 28.4%, 제주는 32%, 말[馬]은 9%, 유배는 12%에 이른다.

먼저 전후 3개의 통계표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이지만 조선 관리들이나 선비들은 공문서나 개인문집에 탐라와 제주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위 분석표에 제시된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1392~1600) 시기의 탐라는 나람대로의 시대특징을 지니는데, 그 첫 번째가 탐라의 소속에 대한 논쟁이다. 즉 탐라가 “독립국이나, 조선이나 명나라이나”에 대한 소속논쟁이다. 둘째는 초기에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했는데<sup>7)</sup> 1485년 이후부터 갑자기 두둑야지(豆秃也只), 복

라(제주) 관련 전문기록의 존재를 나타냄.

7)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이 孫舜孝(1427~1497), 『勿齋集』 卷一 「三止堂記」: “邈在海中,物衆而地大”; 『成宗實錄』 「9年 10月 13日」 條: “工曹判書梁誠之上書曰,竊惟濟州古耽羅國也,地方百里,邈在海外,新羅時始來朝,至于高麗國除爲縣,其生聚之繁,物產之饒,倍於內郡” 등이다. 그러나 후대에 가면 탐라의 물산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작간(鰯作干)이라 부르는 바다유랑민들이 급증한다는 것이다.<sup>8)</sup>

대원올로스(Yeke Yuan Ulus)의 멸망 이후 탐라가 조선과 명나라 중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선과 명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탐라는 본래 타타르(Tatar) 사람들”이라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sup>9)</sup> 이곳의 지배세력들이 몽골인이거나 몽골화된 탐라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탐라를 둘러싼 조선과 명나라의 대립은 조선 태종과 명나라 영락제간에 일단 “요동은 명나라, 탐라는 조선”이라는 암묵적 타협으로 끝났지만<sup>10)</sup>, 실제 당사자인 탐라인들에게는 미묘한 문제였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이 이승소(李承召, 1422~1484)의 『삼탄집(三灘集)』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기사이다.

[계해년(1443, 세종25)]이해에 경사(京師)에 간 사신이 치계하여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나주(羅州) 사람이 표류하여 소주(蘇州)와 항주(杭州)에 이르렀는데, 황제께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공에게 명해 나주로 가서 관리들이 아뢰지 않은 죄를 추궁하게 하였다. 공이 나주에 이르러서는 그 실정을 캐내지 못하고 다시 표류한 사람들의 이름을 조사해 보니, 제주 사람들과 비슷하였다. 이에 곧바로 아뢰기를 “이들은 필시 제주 사람들인데, 당초에 사실대로 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경차관(敬差官) 정광원(鄭光元)이 제주로 갈 것이니, 그로 하여금 아울러 조사하게 하소서.” 하니, 상께서 허락하였다. 공은 또 전라도 사람들이 멀리 갈 경우에는 반드시 금성당(錦城堂)에 원장(願狀)을 바친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사람을 시켜서 원장을 모두 가져다가 살펴보았다. 어떤 한 원장에 바로 표류한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원래는 제주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공의 신명스러움을 칭찬하였다. 얼마 뒤에 정광원이 추고하여 아뢰었는데, 역시 그 사람이었다. 표류했던 사람들이 돌아오자 상께서 묻기를 “너희들은 처음에 어찌하여 나주 사람이라고 고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듣건대 제주는 본디 중원(中原)에

“以濟州牧使趙士秀啓本及上疏…今茲濟州,即古耽羅,地瘠民貧,邑居散逸,蕞爾三城,如弓之圓,一夫攻之,易於撤籬,常時號爲軍卒者,不過數百,而其中操弓者,十無二三,外無可恃之勢,中無可禦之兵”(『中宗實錄』 「36年 1月 3日」條)라는 지경에까지 도달한다.

- 8) 孫舜孝(1427~1497), 『勿齋集』 卷二「論邊備疏」: “乙巳(1485)年…又爲臣到昆陽、晉州、泗川、固城,招集濟州來居豆禿也只等男女饋酒,諭以國令,且詳問水路,各陳所見,衆口如一”; 『成宗實錄』 「8年(1477) 11月 21日」: “近年濟州三邑人民自稱豆禿也只,挈妻子乘船,移泊慶尙、全羅沿邊者,幾千餘人,而三邑守令至今不啓,推鞠以啓”; 上同, 「17年(1486) 11月 22日」: “臣到昆陽、泗川、固城,招集濟州來居頭無岳等男女饋酒,諭以國令,且詳問水路,各陳所見,衆口如一”; 上同, 「23年(1492) 2月 8日」: “且沿海頭無岳甚多,濟州漢拿山或名頭無岳,故俗稱濟州人爲頭無岳,或書頭禿也只,國家疑水賊必此輩所爲,故今方推刷,然此輩善操舟,若用之以當倭賊,誠爲有益”

- 9) 『中宗實錄』 「7年 2月 15日」條: “高皇帝亦語我國使臣曰,耽羅本獫狁人”

- 10) 이에 대해서는 졸고, 「영락제(永樂帝)와 제주도」 『제주도연구』 40, 2014를 참조. 참고로 수유치[蘇油赤, sagalinchin, саалинчин]라 부르는 조선의 몽골출신의 버터장인들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존재하는 이유도 여말선초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선 초기에 발생한 제주지역 牛馬賊 650명의 평안도 강제이주사건(『世宗實錄』 「17年(1435) 1月 14日」條: “都承旨安崇善,以領議政黃喜言啓曰,今自濟州移置平安道盜殺牛馬者,幾至六百五十餘”) 등 제주 몽골세력의 육지 분산정책과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아마 조선이 탐라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耽羅一島,與他島有異,島中之人,不得出居陸地,陸地之人,不得入居島中,俱是禁法”(『正祖實錄』 「2年 9月 30日」條)라는 고립정책은 이러한 기조에서 출발했다고 보인다.

속한 지역이라고 하기에, 만약 사실대로 고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논이 있을까 염려 되었으므로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공을 불러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너의 말이 징험되었다.” 하였다.<sup>11)</sup>

이 기사를 토대로 실제 고려말 조선초기의 기록들을 검토할 경우 탐라의 조선 귀속은 원래 영토의 회복이 아니라 征, 討, 收, 取, 降 등의 표현<sup>12)</sup>이 나타내주듯이 강제편입이었다. 대원올로스의 멸망 후 탐라는 쟁패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했다는 이러한 조선 사대부들의 탐라인식은 이후 관리의 탐라 통치나 유배선비들의 탐라인 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탐라사에서 1485년 전후 갑자기 등장한 두독야지(豆秃也只)나 복작간(鰕作干)이라 부르는 바다유랑민들의 존재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고 연구대상이다. 조선 초기에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했다는 사실은 대원올로스 때의 탐라가 단순한 말목장지가 아닌 상업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간접 방증이기도 하다.<sup>13)</sup> 따라서 무역통상로로서의 기능이 중단되고 조선영토로 편입된 세종 이후 탐라인들은 자체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생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sup>14)</sup> 필자는 그 하나가 바로 바다유랑민이라고 생각한다.

11) 李承召, 『三灘集』 卷十四「領議政朴文憲公[元亨]行狀」: “[癸亥]是年, 赴京使臣馳啓曰, 我國羅州人, 漂流至蘇杭州, 帝命還本土, 上命公往鞠羅州官吏不啓之罪, 公至, 不得其情, 更審漂流人名, 與濟州人相類, 即啓曰, 必是濟州之人, 初不以實告也, 今敬差官鄭光元將歸濟州, 請使并覈, 上許之, 公又念全羅道人遠行, 則必於錦城堂呈願狀, 使人悉取而觀之, 有一狀即漂流人姓名, 而元繫濟州者也, 人稱其神明, 居無何, 光元推啓, 亦其人也, 及漂流人至, 上問汝初何以羅州人告乎, 對曰, 聞濟州本中原之地, 若告以實則慮有別議故耳, 上召公喜曰, 汝言驗矣”

12) <征, 討>는 고려 말에 주로 쓰였고(참고, 「영락제(永樂帝)와 제주도」를 참조), <收, 取, 降>은 주로 사대부들에게 쓰였는데 그 대표적인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趙綱(1586~1669), 『龍洲遺稿』 卷十一「濟州藏修堂記」: “耽羅在南瀛海中, 地方四百里, 隸縣二, 可謂一小諸侯國也, 自我獻廟(태종)時, 因星主去僭內土, 遂降以爲州, 置吏理之”; 徐命瑞(1711~1795), 『晚翁集』 卷三「學約總圖」: 各有小圖并及小解: “威島回軍, 機狃疆理, 耽羅版籍, 南殲跋都, 北拓野狄”; 宋煥箕(1728~1807), 『性潭集』 卷十四「岐湖書社重建記」: “公山之羅城一區, 卽林氏世守之所也, 獨樂一亭巋然其中, 而亭傍數十武許, 有此書社, 實維林公三賢之院宇舊址, 而今重新矣, 遺蹟所在, 清芬不沫, 後人之誦慕不已者, 豈無以也, 西河公文章志節, 震耀麗代, 年纔三十而歿, 當時名勝, 誄詞甚盛, 而至比祥麟瑞鳳, 後世士林, 尊奉不替, 而尙有玉川祠享, 六卷遺編, 亦可徵其微蹟, 將軍公以西河曾孫, 在麗末取耽羅有大功, 官至典書”; 『高宗實錄』 「34年(1897) 10月 13日條」: “及我太祖龍興之初, 輿圖以外, 拓地益廣, 北盡靺鞨之界, 而齒革縶絲出焉, 南收耽羅之國, 而橋樑海錯貢焉, 幅員四千里, 建一統之業, 禮樂法度, 祖述唐、虞, 山河鞏固, 垂裕我子孫萬世磐石之宗”. 金澤榮(1850~1927), 『韶漢堂集』 卷四「大井廟重修記壬辰」: “[高麗]統三韓, 鞭耽羅繫女眞, 禮樂文物, 歷年五百”도 이런 인식의 하나이다. 조선 초기 지배계층의 탐라인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탐라 사람들은 橫逆한 것이 습관이 되어 잠깐 신하 노릇하였다가 금세 반역을 한다(耽羅之人, 習爲橫逆, 乍臣乍叛).”라는 『太宗實錄』 「10年(1410) 3月 5日」條의 기록이다.

13) 대원올로스 시기 탐라의 상업적 성격에 대해서는 참고, 「몽골사에서의 이어도 항로」를 참조.

14) 1406년 이후 탐라는 한국역사에서 더 이상의 자치체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결국 세종 27년(1445)에 조선의 한 군현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육지인들은 소도인들을 경시한다(大島人輕小島人)”는 沈鎬(1685~1753)의 기록(『樗村遺稿』 卷一「利仁見濟州人, 人以東方爲大島, 耽羅爲小島, 每以大小陵輾爲言, 戲以志之」: “萬古耽羅域外民, 偶然星主遠來賓, 蚩氓不識靑丘狹, 大島人輕小島人”)처럼 육지부의 부속으로 생존을 도모해야 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제주도의 경제는 급격히 몰락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유발한 관리들의 말 수탈과 그로 인한 피해상황이 『宣祖實錄』 「37年(1604) 12月 2日」條에 “全羅監司張晚狀啓, 耽羅一域, 號稱東方冀方, 良馬之出, 疇昔然矣, 自祖宗朝, 嚴禁牝馬之出來, 其意固非偶然, 自經亂之後, 人不畏法者有之, 守宰之牽於私情者有之, 稍稍開路, 至今島中之馬, 十減其九, 有識之寒心, 久矣, 此由牝馬之禁, 解弛而然也”처럼 잘 묘사되어 있다.

## 3-2.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까지의 분석일람표

번호	생존연대	저자	문집명	기록여부			
				耽羅	濟州	馬※	流配
0505	1601~1647	鄭時修	琴川集	●	—	—	●
0506	1601~1663	鄭弼	愚川集	—	—	—	—
0507	1601~1672	尹元舉	龍西集	—	●	—	—
0508	1602~1644	金華俊	棠溪集	—	—	—	—
0509	1602~1654	金弘郁	鶴洲全集	●	—	—	—
0510	1602~1662	柳櫻	百拙庵集	—	—	—	—
0511	1602~1662	李起淳	西歸遺藁	—	—	—	—
0512	1602~1673	鄭太和	陽坡遺稿	—	●	—	—
0513	1603~1644	李道長	洛村集	—	—	—	—
0514	1603~1681	姜栢年	雪峯遺稿	—	●	—	—
0515	1603~1691	柳帶春	東村遺稿	—	—	—	—
0516	1604~1656	黃昚	漫浪集	●	●	—	—
0517	1604~1672	權認	炭翁集	—	—	—	—
0518	1604~1672	李晚榮	雪海遺稿	—	—	—	—
0519	1604~1684	金得臣	柏谷集●	●	●	—	—
0520	1605~1654	黃暉	塘村集	—	●	—	●
0521	1605~1660	申翊全	東江遺集	—	—	—	—
0522	1605~1687	洪宇遠	南坡集	●	●	—	●
0523	1606~1629	洪九淵	磨鏡軒集	—	—	—	—
0524	1606~1655	趙錫胤	樂靜集	—	—	—	—
0525	1606~1664	鄭昌胄	晚洲集	—	—	—	—
0526	1606~1672	宋浚吉	同春堂集	●	●	—	●
0527	1606~1672	尹文學	石湖遺稿	—	●	—	—
0528	1606~1672	洪柱元	無何堂遺稿	●	●	—	—
0529	1606~1680	洪錫箕	晚洲遺集	●	●	●※	—
0530	1607~1664	俞榮	市南集	—	●	—	—
0531	1607~1684	李惟泰	草廬集	●	●	●	●
0532	1607~1689	宋時烈	宋子大全	●	●	—	●
0533	1608~1670	曹漢英	晦谷集	●	—	—	—
0534	1609~1637	吳達濟	忠烈公遺稿	—	—	—	—
0535	1609~1671	趙復陽	松谷集	●	●	●	—
0536	1610~1656	金益熙	滄洲遺稿	—	—	—	—
0537	1610~1665	申濡	竹堂集	●	●	●	—
0538	1610~1669	尹宣舉	魯西遺稿	●	—	—	—
0539	1610~未詳	石之珩	壽峴集	—	—	—	—
0540	1611~1673	裴幼華	八斯遺稿	—	—	—	—
0541	1611~1678	都愼徵	竹軒集	—	—	—	—
0542	1611~1693	鄭必達	八松集	—	—	—	—
0543	1612~1661	洪柱世	靜虛堂集	—	—	—	—
0544	1612~1671	朴長遠	久堂集	●	●	—	●
0545	1612~1684	宋挺濂	存養齋集	—	—	—	—
0546	1613~1654	李渠	活齋集	—	—	—	—
0547	1613~1671	徐必遠	六谷遺稿	—	—	—	—
0548	1614~1662	李健	葵窓遺稿	●	●	—	—
0549	1614~1683	具峯	明谷集	—	—	—	—
0550	1614~1690	俞瑒	秋潭集	—	—	—	—

0551	1615~1665	趙龜錫	藏六堂遺集	●	●	—	—
0552	1615~1689	李文載	石洞遺稿	—	●	—	—
0553	1616~1659	趙備	桂窩集	—	—	—	—
0554	1616~1671	金佐明	歸溪遺稿	●	—	—	—
0555	1616~1680	柳赫然	野堂遺稿	—	—	—	—
0556	1617~1678	高汝興	閤隱集	●	—	—	—
0557	1617~1678	李殷相	東里集	—	—	—	—
0558	1617~1680	尹鑄	白湖集	—	●	—	●
0559	1618~1666	吳以翼	石門集	—	●	—	—
0560	1619~1658	申最	春沼子集	●	●	—	—
0561	1619~1672	李徽逸	存齋集	—	●	—	—
0562	1620~1660	洪葳	清溪集	—	—	—	—
0563	1620~1674	洪汝河	木齋集	●	●	●※	—
0564	1620~1679	吳益升	松峯遺稿	—	—	—	—
0565	1620~1688	沈攸	梧灘集	●	—	—	—
0566	1620~1690	李翔	打愚遺稿	—	—	—	—
0567	1622~1658	李潛	松溪集	●	—	—	—
0568	1622~1680	李元禎	歸巖集	—	●	—	—
0569	1622~1707	李震白	西巖遺稿	—	—	—	—
0570	1623~1680	洪柱國	泛翁集	—	●	●	—
0571	1624~1656	申混	初菴集	—	●	—	—
0572	1624~1671	金萬英	南圃集	●	—	—	—
0573	1624~1689	吳斗寅	陽谷集	—	—	—	—
0574	1624~1701	金壽增	谷雲集	—	●	—	●
0575	1625~1673	李敏迪	竹西集	—	—	—	—
0576	1625~1689	李端夏	畏齋集	—	●	—	—
0577	1625~1691	呂聖齊	雲浦遺稿	—	—	—	—
0578	1625~1691	李翊相	梅澗集	—	●	—	—
0579	1625~1701	李惟樟	孤山集	●	—	—	—
0580	1625~1707	丁時翰	愚潭集	—	●	—	●
0581	1625~1711	金如萬	秋潭集	—	●	—	●
0582	1626~1690	金壽興	退憂堂集	●	●	●※	—
0583	1627~1693	蘇斗山	月洲集	—	●	—	●
0584	1627~1704	李玄逸	葛庵集	●	●	●	—
0585	1628~1669	李端相	靜觀齋集	●	●	—	—
0586	1628~1673	金學培	錦翁集	—	—	—	—
0587	1628~1682	李夏鎭	六寓堂遺稿	—	—	—	—
0588	1628~1686	趙晟漢	東山遺稿	—	●	—	—
0589	1628~1687	申最	汾厓遺稿	●	—	—	—
0590	1628~1691	李之濂	恥菴集	●	●	—	—
0591	1628~1692	南龍翼	壺谷集	●	●	●	—
0592	1628~1692	閔鼎重	老峯集	●	●	—	—
0593	1628~1695	姜錫圭	聲齋集	●	●	●	—
0594	1629~1689	金壽恒	文谷集	●	●	—	●
0595	1629~1693	朴尙玄	寓軒集	—	●	—	●
0596	1629~1698	朴守儉	林湖集	—	●	—	—
0597	1629~1703	朴世堂	西溪集	●	●	—	—
0598	1629~1711	南九萬	藥泉集	●	●	—	—
0599	1629~1711	張璫	錦江集	—	—	—	—
0600	1629~1714	尹拯	明齋遺稿	●	●	—	●



0601	1630~1680	趙遠期	九峯集	—	—	—	—
0602	1630~1687	閔維重	文貞公遺稿	—	—	—	—
0603	1630~1701	李世華	雙栢堂集	—	—	—	—
0604	1630~1709	宋奎濂	霽月堂集	—	—	—	—
0605	1631~1680	趙根	損庵集	●	—	—	—
0606	1631~1690	趙宗著	南岳集	●	●	—	—
0607	1631~1692	李選	芝湖集	●	●	●	—
0608	1631~1695	朴世采	南溪集	●	●	●	—
0609	1631~1698	尹摺	德浦遺稿	—	—	—	—
0610	1631~1698	李嵩逸	恒齋集	—	—	—	—
0611	1632~1681	吳始壽	水村集	—	—	—	—
0612	1632~1682	崔承太	雪蕉遺稿	—	—	—	—
0613	1632~1702	李志傑	琴湖遺稿	●	—	—	—
0614	1632~1707	尹推	農隱遺稿	—	●	—	—
0615	1633~1687	金萬基	瑞石集	●	●	—	—
0616	1633~1688	李敏敍	西河集	●	—	—	—
0617	1633~1705	柳命天	退堂集	●	—	—	●
0618	1633~1709	李瑞雨	松坡集	●	●	—	—
0619	1634~1684	金錫胄	息庵遺稿	●	●	●	—
0620	1634~1685	趙顯期	一峯集	—	●	—	—
0621	1634~1697	申翼相	醒齋遺稿	●	●	—	—
0622	1634~1707	任弘亮	敝帚遺稿	●	—	—	—
0623	1635~1703	李世白	雩沙集	—	—	—	—
0624	1635~1707	張璜	茅庵集	—	—	—	—
0625	1635~1719	權泰時	山澤齋集	—	—	—	—
0626	1636~1690	柳世鳴	寓軒集	—	—	—	—
0627	1636~1699	申厚載	葵亭集	●	—	—	—
0628	1636~1707	柳尙運	約齋集	—	●	—	●
0629	1636~1711	高晦	觀瀾齋遺稿	●	●	—	—
0630	1637~1678	朴光後	安村集	●	●	—	—
0631	1637~1692	金萬重	西浦集	—	●	—	—
0632	1637~1702	金兌一	蘆洲集	—	—	—	—
0633	1638~1689	趙聖期	拙修齋集	—	—	—	—
0634	1638~1695	宋光淵	泛虛亭集	●	—	—	—
0635	1638~1697	任相元	恬軒集	●	●	—	●
0636	1639~1685	趙持謙	迂齋集	●	●	●	—
0637	1640~1676	趙昌期	槽巖集	—	—	—	—
0638	1640~1724	任墜	水村集	●	●	—	●
0639	1641~1698	李沃	博泉集	—	●	—	—
0640	1641~1708	李箕洪	直齋集	●	●	—	●
0641	1641~1721	權尙夏	寒水齋集	●	●	—	●
0642	1642~1708	權聖矩	鳩巢集	—	—	—	—
0643	1642~1708	崔愼	鶴庵集	●	●	—	●
0644	1642~1708	洪受疇	壺隱集	—	—	—	—
0645	1642~1709	韓汝愈	遁翁集	—	—	—	—
0646	1642~1718	李世弼	龜川遺稿	—	●	—	●
0647	1643~1719	權斗寅	荷塘集	●	●	—	—
0648	1645~1703	吳道一	西坡集	●	●	—	—
0649	1645~1718	李畬	睡谷集	●	●	—	—
0650	1646~1687	韓泰東	是窩遺稿	●	—	●	—

0651	1646~1700	李世龜	養窩集	●	●	●	—
0652	1646~1701	李聘命	靜齋集	—	—	—	—
0653	1646~1707	申琬	綱菴集	—	●	—	—
0654	1646~1715	崔錫鼎	明谷集	●	●	—	—
0655	1646~1730	崔是翁	東岡遺稿	●	●	—	—
0656	1646~1732	金榦	厚齋集	●	●	—	●
0657	1647~1703	李玄錫	游齋集	—	—	—	—
0658	1648~1711	辛夢參	一庵集	—	—	—	—
0659	1648~1722	金昌集	夢窩集	●	—	—	—
0660	1648~1736	鄭濤	丈巖集	●	●	—	●
0661	1649~1696	林泳	滄溪集	●	●	●	—
0662	1649~1704	金構	觀復齋遺稿	●	—	—	—
0663	1649~1723	金字杭	甲峰遺稿	—	—	—	—
0664	1649~1736	鄭齊斗	霞谷集	—	●	●	—
0665	1650~1692	宋疇錫	鳳谷集	●	●	—	●
0666	1650~1735	崔奎瑞	艮齋集	—	●	—	—
0667	1651~1708	金昌協	農巖集	●	●	—	●
0668	1651~1726	權忭	遂初堂集	●	●	—	—
0669	1652~1719	徐宗泰	晚靜堂集	—	●	—	—
0670	1652~1720	宋徵殷	約軒集	—	●	—	●
0671	1652~1731	梁居安	六化集	●	—	—	—
0672	1653~1704	南正重	碁峯集	—	●	—	—
0673	1653~1704	朴泰淳	東溪集	●	●	—	—
0674	1653~1719	金棹	儉齋集	—	●	—	●
0675	1653~1722	金昌翁	三淵集	●	—	●	●
0676	1653~1725	洪世泰	柳下集	—	●	●	—
0677	1653~1728	南延年	南忠壯公詩稿	—	—	—	—
0678	1653~1733	李衡祥	瓶窩集●	●	●	—	—
0679	1654~1676	成獻徵	洞虛齋集	●	—	—	—
0680	1654~1689	朴泰輔	定齋集	●	●	—	—
0681	1654~1710	李玄祚	景淵堂集	—	—	—	—
0682	1654~1723	晦隱集	南鶴鳴	●	●	—	—
0683	1654~1724	崔錫恒	損窩遺稿	—	—	—	—
0684	1654~1726	權斗經	蒼雪齋集	—	—	—	—
0685	1655~1723	朴光一	遜齋集	●	●	—	●
0686	1655~1724	李喜朝	芝村集	●	●	—	●
0687	1656~1710	李寅燁	晦窩詩稿	—	—	—	—
0688	1656~1716	李萬白	自濡軒集	—	—	—	—
0689	1656~1739	趙正萬	寤齋集	—	—	—	—
0690	1657~1723	宋相琦	玉吾齋集	●	●	—	—
0691	1657~1730	李栽	密菴集	●	●	—	—
0692	1658~1721	金昌業	老稼齋集	—	—	—	—
0693	1658~1723	李頤命	疎齋集	●	●	—	—
0694	1658~1726	金鎭圭	竹泉集●	●	●	—	—
0695	1658~1730	權紱	灘村遺稿	—	—	—	—
0696	1658~1734	金時保	茅洲集	—	●	—	●
0697	1658~1737	趙德鄰	玉川集	●	●	—	●
0698	1659~1711	成晚徵	秋潭集	—	—	—	—
0699	1660~1711	李海朝	鳴巖集●	●	●	●	—
0700	1660~1718	洪胄華	晚隱遺稿	●	●	—	●

0701	1660~1720	鄭碩達	涵溪集	—	—	—	—
0702	1660~1722	趙泰采	二憂堂集	—	—	—	—
0703	1660~1727	李正臣	櫟翁遺稿	—	—	—	—
0704	1661~1719	南九明	寓庵集●	●	●	●※	—
0705	1661~1721	金柱臣	壽谷集	—	—	—	—
0706	1661~1733	李觀命	屏山集	●	●	—	●
0707	1662~1713	金昌緝	圃陰集	—	—	—	—
0708	1662~1723	李澈	弘道遺稿	●	—	—	—
0709	1663~1722	李健命	寒圃齋集	●	●	—	—
0710	1663~1735	徐聖考	訥軒集	—	—	—	—
0711	1663~1741	趙裕壽	后溪集	—	—	—	—
0712	1664~1697	朴泰漢	朴正字遺稿	—	●	—	—
0713	1664~1700	李賀朝	三秀軒稿	—	—	—	—
0714	1664~1722	孫命來	昌舍集	—	—	—	—
0715	1664~1732	李萬敷	息山集	●	●	●※	●
0716	1665~1721	任守幹	遯窩遺稿	—	—	—	—
0717	1665~1736	申聖夏	和菴集	—	—	—	—
0718	1665~1741	李載亨	松巖集	—	—	—	—
0719	1665~1742	梁得中	德村集	●	●	—	—
0720	1666~1683	金昌立	澤齋遺唾	—	—	—	—
0721	1666~1734	申球	默庵集	—	—	—	—
0722	1668~1734	權以鎭	有懷堂集	●	●	—	—
0723	1668~1735	洪重聖	芸窩集	—	—	—	—
0724	1669~1720	崔昌大	昆侖集	●	—	—	—
0725	1669~1731	蔡彭胤	希菴集	●	●	—	●
0726	1669~1742	李澣	龍浦集	—	●	—	—
0727	1669~1745	李宜顯	陶谷集	●	●	—	●
0728	1670~1717	金春澤	北軒集	●	●	●	●
0729	1671~1751	李秉淵	槎川詩抄	—	●	—	—
0730	1672~1715	洪泰猷	耐齋集	—	—	—	—
0731	1672~1722	申益愷	克齋集	●	—	—	—
0732	1672~1736	李命培	茅溪集	●	—	—	—
0733	1672~1736	李時恒	和隱集	—	●	—	—
0734	1672~1737	李眞望	陶雲遺集	●	●	—	—
0735	1672~1744	魚有鳳	杞園集	●	●	—	●
0736	1672~1749	權渠	屏谷集	—	—	—	—
0737	1672~1759	權德秀	逋軒集	—	—	—	—
0738	1673~1731	玄尙璧	冠峯遺稿	—	—	—	—
0739	1673~1744	李德壽	西堂私載	●	●	●	—
0740	1673~1745	金令行	弼雲稿	—	●	—	左遷
0741	1674~1739	尹東洙	敬庵遺稿	●	●	—	—
0742	1674~1753	權萬斗	知足堂集	—	—	—	—
0743	1674~1756	李光庭	訥隱集	●	●	●	—
0744	1675~1728	趙泰億	謙齋集	●	●	●	●
0745	1675~1731	任華世	是庵集	●	—	—	—
0746	1675~1735	李秉成	順菴集	●	—	—	—
0747	1675~1748	南漢紀	寄翁集	—	—	—	—
0748	1675~1762	金命錫	雨溪集	●	—	—	●
0749	1676~1762	金夏九	楸菴集	—	●	—	—
0750	1677~1724	李夏坤	頭陀草	—	●	●	—

0751	1677~1727	李束	巍巖遺稿	●	●	—	●
0752	1677~1735	李森	白日軒遺集	—	—	—	—
0753	1677~1740	金時觀	節谷集	—	—	—	—
0754	1678~1717	李顯益	正菴集	—	●	—	—
0755	1678~1723	金民澤	竹軒集	—	●	—	●
0756	1679~1759	權相一	淸臺集	—	●	—	●
0757	1680~1721	沈尙鼎	夢悟齋集	—	●	—	—
0758	1680~1741	尹淳	白下集	—	—	—	—
0759	1680~1746	柳升鉉	慵窩集	●	●	—	●
0760	1680~1746	李緯	陶菴集	●	●	●	●
0761	1680~1746	趙文命	鶴巖集	—	●	●	—
0762	1680~1748	金德五	癡軒集	●	—	—	●
0763	1680~1748	朴弼周	黎湖集	●	●	—	●
0764	1680~1761	尹鳳朝	圃巖集	●	●	●※	●
0765	1681~1716	申靖夏	恕菴集	●	—	—	●
0766	1681~1722	李喜之	凝齋集	●	—	—	●
0767	1681~1746	趙尙綱	鶴塘遺稿	—	●	●	—
0768	1681~1747	金時敏	東圃集	—	●	—	—
0769	1681~1752	申維翰	靑泉集	—	●	—	—
0770	1681~1759	鄭來僑	浣巖集	—	—	—	—
0771	1681~1763	李瀾	星湖全集	●	●	●	●
0772	1682~1700	金崇謙	觀復菴詩稿	—	—	—	—
0773	1682~1723	林昌澤	崧岳集	—	●	—	—
0774	1682~1747	曹夏望	西州集	—	●	—	左遷
0775	1682~1751	韓元震	南塘集	—	●	—	●
0776	1682~1752	安命夏	松窩集	●	—	—	—
0777	1683~1712	崔守哲	淸泠子遺稿	—	—	—	—
0778	1683~1719	林象德	老村集	●	—	●	—
0779	1683~1741	蔡之洪	鳳巖集	●	—	—	●
0780	1683~1752	悔窩集	安重觀	—	●	—	—
0781	1683~1753	朴昌元	朴澹翁集	—	—	—	—
0782	1683~1758	金履萬	鶴阜集	—	●	—	—
0783	1683~1767	尹鳳九	屏溪集	●	●	—	—
0784	1684~1729	金始鎭	白南集	●	—	—	—
0785	1684~1747	金聖鐸	霽山集●	●	●	—	—
0786	1684~1755	金鎭商	退漁堂遺稿	●	●	—	—
0787	1684~1762	韓夢麟	鳳巖集	—	—	—	—
0788	1685~1728	任適	老隱集	—	—	—	—
0789	1685~1741	尹東源	一庵遺稿	—	—	—	—
0790	1685~1753	沈鎭	樗村遺稿	●	●	—	—
0791	1685~1757	鄭重器	梅山集	—	—	—	—
0792	1686~1736	申昉	屯菴集	—	—	—	—
0793	1686~1761	趙榮祐	觀我齋稿	—	—	—	—
0794	1687~1705	洪啓英	觀水齋遺稿	—	—	—	—
0795	1687~1730	任徵夏	西齋集	●	●	—	●
0796	1687~1737	黃宅厚	華谷集	—	—	—	—
0797	1687~1747	李英輔	東溪遺稿	●	—	—	—
0798	1687~1755	李箕鎭	牧谷集	—	—	—	—
0799	1687~1756	姜必愼	慕軒集	—	—	—	—
0800	1687~1760	柳宜健	花溪集	—	—	—	—

0801	1688~1749	權萬	江左集	●	●	—	—
0802	1688~1762	徐宗伋	退軒遺稿	●	—	—	●
0803	1688~1769	尹鳳五	石門集	●	—	—	●
0804	1689~1714	南克寬	夢嚙集	—	●	—	—
0805	1689~1745	吳光運	藥山漫稿	●	●	—	—
0806	1689~1756	姜再恒	立齋遺稿●	●	●	●	—
0807	1690~1722	李器之	一菴集	—	●	—	—
0808	1690~1742	姜樸	菊圃集	●	●	—	—
0809	1690~1748	李匡德	冠陽集	—	—	—	—
0810	1691~1742	金致堉	沙村集	—	—	—	—
0811	1691~1742	申正模	二恥齋集	—	—	—	—
0812	1691~1752	趙顯命	歸鹿集	●	●	—	—
0813	1691~1757	沈師周	寒松齋集	—	—	—	—
0814	1691~1757	趙觀彬	悔軒集●	●	●	●	●
0815	1691~1762	崔成大	杜機詩集	—	—	—	—
0816	1691~1767	俞拓基	知守齋集	●	●	—	●
0817	1691~1770	李喆輔	止庵遺稿	—	●	—	—
0818	1692~1757	鄭幹	鳴臯集	—	●	—	—
0819	1692~1759	李宗城	梧川集	—	●	—	—
0820	1693~1737	趙龜命	東溪集	●	●	—	—
0821	1693~1738	金信謙	檜巢集	●	—	—	—
0822	1693~1747	權憲	慕山遺稿	—	—	—	—
0823	1693~1748	李守淵	靑壁集	—	—	—	—
0824	1694~1756	閔遇洙	貞菴集	●	●	—	●
0825	1694~1756	沈潮	靜坐窩集	—	●	—	—
0826	1694~1780	金瑞一	戰兢齋集	—	—	—	—
0827	1695~1775	鄭基安	晚慕遺稿	●	—	—	—
0828	1695~1776	趙天經	易安堂集	—	—	—	—
0829	1695~未詳	林聲遠	愚園集	—	—	—	—
0830	1696~1728	南有常	太華子稿	—	—	—	—
0831	1696~1751	李德胄	芑亭集	—	—	—	—
0832	1696~1752	俞肅基	兼山集	●	—	—	●
0833	1696~1766	申喲	直菴集	●	●	—	●
0834	1697~1731	姜奎煥	賁需齋集	—	—	—	—
0835	1697~1731	鄭敏僑	寒泉遺稿	—	—	—	—
0836	1698~1761	元景夏	蒼霞集	●	●	●	—
0837	1698~1761	李天輔	晉菴集	●	—	—	—
0838	1698~1773	南有容	雷淵集	●	●	—	●
0839	1699~1733	金道洙	春洲遺稿	—	—	—	—
0840	1700~1740	吳瑗	月谷集	—	—	—	—
0841	1700~1748	徐宗華	藥軒遺集	—	—	—	—
0842	1700~1767	楊應秀	白水集	—	●	—	—
0843	1700~1773	黃後幹	夷峯集	●	●	—	●
0844	1701~1759	李勺	桐江遺稿	●	—	—	●
0845	1701~1778	權載運	麗澤齋遺稿	—	—	—	—
0846	1702~1761	柳正源	三山集	—	—	—	—
0847	1702~1762	趙載浩	損齋集	—	—	—	—
0848	1702~1772	金元行	溪湖集	—	●	—	—
0849	1702~1782	尹衡老	戒懼菴集	—	—	—	—
0850	1703~1773	俞彦述	松湖集	●	—	—	—

0851	1705~1768	宋明欽	櫟泉集	●	●	—	●
0852	1705~1777	李匡師	圓嶠集	—	—	—	—
0853	1705~1786	崔興遠	百弗菴集	●	—	—	—
0854	1708~1766	金樂行	九思堂集●	●	●	—	●
0855	1708~1775	桂德海	鳳谷桂察訪遺集	—	—	—	—
0856	1708~1782	李用休	數數集	●	—	—	—
0857	1708~1786	尹光紹	素谷遺稿	●	●		
0858	1709~1787	黃景源	江漢集	—	●	●	
0859	1709~1788	趙普陽	八友軒集	●	—	—	—
0860	1710~1752	宋文欽	閒靜堂集	●	—	—	●
0861	1710~1758	宋能相	雲坪集	—	—	—	—
0862	1710~1760	李麟祥	凌壺集	●	●	—	—
0863	1710~1772	李象辰	下枝遺集	—	—	—	—
0864	1710~1783	宋德相	果菴集	●	●	—	●
0865	1710~未詳	金尙彩	蒼巖集	—	—	—	—
0866	1711~1759	徐命瑞	晚翁集	●	—	—	—
0867	1711~1781	李象靖	大山集	—	—	—	—
0868	1711~1788	任聖周	鹿門集	●	—	—	●
0869	1711~1794	李重延	陋室集	—	—	—	—
0870	1712~1774	金履坤	鳳麓集	●	●	—	●
0871	1712~1775	申光洙	石北集●	●	●	●	—
0872	1712~1779	崔天翼	農叟集	—	—	—	—
0873	1712~1781	申景濬	旅菴遺稿	●	●	—	—
0874	1712~1783	任希聖	在澗集	●	—	—	—
0875	1712~1791	安鼎福	順菴集	●	●	—	—
0876	1713~1751	金時鐸	梨湖遺稿	—	—	—	—
0877	1713~1770	權攄	震溟集	●	●	●	—
0878	1713~1784	金謹行	庸齋集	—	—	—	—
0879	1713~1791	姜世晃	豹菴稿	—	—	—	—
0880	1714~1759	李胤永	丹陵遺稿	●	—	—	—
0881	1714~1781	李和甫	有心齋集	—	—	—	—
0882	1714~1789	李光靖	小山集	●	—	—	—
0883	1714~1799	林光澤	雙柏堂遺稿	●	●	●	—
0884	1715~1784	李最中	韋庵集	—	—	—	—
0885	1716~1774	金砥行	密菴集	●	—	—	●
0886	1716~1787	徐命膺	保晚齋集	●	●	●	●
0887	1716~1797	奇彦鼎	懶窩集	—	●	—	—
0888	1717~1786	姜世晉	警弦齋集	—	—	—	—
0889	1717~1799	李敏輔	豐墅集	●	●	—	●
0890	1718~1764	李明煥	海嶽集	—	●	—	—
0891	1718~1774	安錫徹	雪橋集	●	—	—	●
0892	1719~1791	李獻慶	艮翁集	●	●	●	●
0893	1719~1792	李福源	雙溪遺稿	●	—	—	—
0894	1719~1793	鄭赫臣	性堂集	—	●	—	—
0895	1720~1783	李匡呂	李參奉集	●	—	—	—
0896	1720~1799	蔡濟恭	樊巖集	●	●	●	●
0897	1721~1772	金光翼	伴圃遺稿	—	—	—	—
0898	1721~1780	金鍾厚	本庵集	●	●	—	●
0899	1721~1791	柳道源	蘆厓集	●	—	—	●
0900	1721~1793	任允摯堂	允摯堂遺稿	—	—	—	—

0901	1722~1779	高裕	秋潭集	-	-	-	-
0902	1722~1787	金鍾正	雲溪漫稿	-	●	-	●
0903	1722~1788	金相定	石堂遺稿	-	-	-	-
0904	1722~1791	金履安	三山齋集	-	-	-	-
0905	1723~1772	權炳	約齋集	-	-	-	-
0906	1723~1790	金煜	竹下集	●	●	-	●
0907	1723~1801	丁範祖	海左集	●	●	-	●
0908	1724~1754	李重慶	雲齋遺稿	●	-	-	-
0909	1724~1796	柳長源	東巖集	●	●	-	●
0910	1724~1799	申國賓	太乙菴集	-	●	-	-
0911	1724~1802	洪良浩	耳溪集	●	●	●	-
총계(407)				187	196	45(6)	85

위 407개 문집 가운데 탐라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187, 제주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19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탐라와 제주 관계 기록 중 말을 기록한 것이 45이며, 이 가운데 6은 말의 기원을 대원올로스로 적시하고 있고, 유배 기록은 85로 나타났다. 이것을 비율로 환산할 경우 탐라는 37%, 제주는 39%, 말[馬]은 11%, 유배는 21%에 이른다.

위 분석표에 제시된 정묘호란 전후부터 경종시대(1601~1724) 시기의 탐라는 나름대로의 시대특징을 지니는데, 그 첫 번째가 송시열 등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탐라로 유배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즉 탐라가 조선시대 유배지의 상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리들이나 유배인들이 탐라의 전통적인 습속을 철폐하고 주자학적 질서를 이식하려는 노골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의 탐라 통치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고, 또 조선의 주자학도 “소중화(小中華)”란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을 능가한다는 자부심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는 조선 주자학의 탐라(제주) 침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탐라의 음사(淫祀) 지우기와 주자학적 문교(文教) 부흥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약천집(藥泉集)』이나 유언호(兪彦鎬, 1730~1796)의 『연석(燕石)』에 소개된 탐라의 상징적인 뱀의 죽음이 이 전변의 시대를 상징한다. 당시 뱀을 죽여 탐라의 습속이나 전설을 상징적으로 끝장을 낸 인물이 약관 19세의 무관인 서린(徐隣, 1494~1515)이었다. 탐라의 전설 시대가 끝나고 주자학의 시대가 전개되는 이 상징적인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판관 부군은 18세에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9세에 제주 판관으로 나갔는데, 제주에는 깊은 굴이 있어 요망한 구렁이가 비바람을 일으키니, 관리와 백성들이 신(神)으로 여겨 제사하였다. 그리하여 매년 봄과 가을이 되면 15세 된 여자 아

이를 깨끗이 목욕시켜 제사상 위에 올려서 굴 앞에 바친 다음 풍악을 울리며 기도하면 구렁이가 나와서 여자 아이를 물고 들어갔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바람이 불어 농사를 망치니, 관청에서는 민간의 여자 아이들을 장부에 기재하였다가 나이를 계산하여 차례로 제사에 바쳤다. 부군은 목사(牧使) 및 두 고을의 현령과 함께 구렁이에게 기도하고 제사하는 날에 함께 가서 구렁이를 죽이기로 약속하였으나 그날이 되자 모두 병을 핑계 대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부군은 떨치고 일어나 홀로 가서 힘센 장사에게 도끼를 잡고 굴의 좌우에 서 있게 한 다음 풍악을 울려 구렁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손으로 창을 잡아 입을 찢르고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이게 하니, 이로부터 요망한 구렁이의 폐해가 영원히 사라졌다.<sup>15)</sup>

조선의 유학자들은 건국 때부터 스스로를 중화의 속국(제후국)으로 자처했으며, 또 스스로 중국과 합체되기를 원했다. 이 같은 조선 유학자들의 대외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래와 같은 시로 자신의 사상을 드러낸 신함(申欽, 1566~1628)<sup>16)</sup>이다.

중국에서 태어난 장부의 한 낙이리니,  
중국 길 접어들자 마음 절로 놀라워라.<sup>17)</sup>

...

의관이며 문물이 너무나 서로 비슷해,  
문득 사람 만나자 나를 놀라게 하였네.  
좋은 생각 가졌건만 무슨 수로 설명할지,  
얼굴만 바라볼 뿐 통성명도 못 한다네.  
오늘날 언어 다른 부끄러워하지 말라.  
장차 후일 복학이 완성되길 기다리리.  
다행히도 황제 은혜 천하를 동등히 여겨,  
우리나라 이제 이미 규정 조례 본받았네.<sup>18)</sup>

15) 南九萬(1629~1711), 『藥泉集』 卷二十六 「外曾祖贈兵曹參判徐公[澍]墓碣銘」: “判官府君年十八登武科狀元,十九出貳濟州,州有深穴,妖蟒能作風雨,官民以神祀之,每歲春秋,以十五歲女兒洗置盤上獻穴前,作樂而禱,蟒噬之以入,不然風雨害稼,自官籍民女,計其年以次用之,府君與牧使及兩縣宰,約於禱祀日齊會戮之,及期皆稱疾不出,府君奮身獨往,使力士操斧立穴左右,俟樂作蟒出,手槍挂其口,斧斫其頭,自此妖孽永絕”.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俞彦鎬, 1730~1796)의 『燕石』 冊十三 「濟州五節女傳/庚戌」 에도 “民惑於神恠,州有大蟒據石窟,能作風雨,自官籍民女年十五歲者,洗沐置窟前,作樂而禱,蟒即噬以入,春秋以爲常,通判徐憐,至期募力士操斧立左右,蟒出乃殪之,妖孽遂息”처럼 수록되어 있으며, 후대 제주출신의 역사학자인 金錫翼(1885~1956)의 『耽羅紀年』 에도 소개되어 있다.

16) 申欽은 張維(1587~1638), 李廷龜(1564~1635), 李植(1584~1647)과 더불어 조선 중기 한문 사대가의 한 사람이다. 또 그는 임진왜란도 몸소 겪고 後金의 건국과 팽창도 지켜본 인물이다. 蘇武(B.C.140~B.C.60)의 눈으로 북방을 바라보고 匈奴로 시집간 王昭君의 마음을 아파한 철두철미한 소중화인이자 주자학자인 그의 문집에는 그의 파란만장한 인정역정처럼 임진왜란 때 참가한 몽골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몽골군의 도움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다.

17) 申欽, 『象村稿』 卷12 「次東皋唐製韻」: “丈夫一樂生中國,路入中華意自驚.”

18) 申欽, 『象村稿』 卷12 「次東皋華語韻」: “衣冠文物渾相似,却到逢人使我驚,雖有好懷那解說,但知看面不通名,莫羞此日東音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말처럼 조선말까지 이어졌다. 김윤식은 제주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한번 호로(胡虜)에게 교화가 막히면서부터 마침내 대도(大道)가 숨어버리고 막중한 전례(典禮)가 무당의 음사(淫祀)가 되어 버려 비할 데 없이 더럽혀지고 몹시 멸시를 받았다.”<sup>19)</sup>

따라서 신흠이나 김윤식 같은 주자학자들이 살았던 중간 지대에 낀 이 시기는 “드디어 음사를 철폐했다(遂毀淫祠)”라는 기록이 보여주듯이 대규모적인 탐라전통 문화의 말살이 이루어졌다.<sup>20)</sup> 그리고 그 대체사상으로 굴림서원(橋林書院)으로 대표되는 주자학적 문화가 제주도에 침투되었다. 비록 그 파위가 어디까지 미쳤는지는 몰라도 제주도의 전통사상에 큰 충격을 가했음은 의심할 바 없다. 이는 이들이 정종로(鄭宗魯, 1738~1816)의 “신라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적의 습속을 벗어나지 못했다.”<sup>21)</sup>라는 말처럼 자신들의 전통문화까지 부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 3-3.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890)까지의 분석일람표

번호	생존연대	저자	문집명	기록여부			
				耽羅	濟州	馬※	流配
0912	1725~1775	趙榮順	退軒集	●	●		●
0913	1725~1786	沈定鎭	霽軒集	—	—	—	—
0914	1725~1789	鄭忠弼	魯宇集	—	—	—	—
0915	1726~1781	徐昌載	梧山集	—	—	—	—

異,且待他年北學成,唯幸皇恩同一視,海邦今已效章程.”東舉는 崔昱(1539~1612)을 말하며, 이곳에 사용된 北學은 북쪽의 발달된 문명을 배우는 것으로 여기서는 중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뜻함.

19) 金允植(1835~1922), 『雲養集』續集卷四「祭文: 三神殿御天節天祭奏由文」: “一自胡虜梗化,大道遂隱,莫重典禮,歸於巫祝之淫祀,褻瀆無比,誣蔑太甚”

20) 탐라인의 습성과 고유습속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태도는 崔溥(1454~1504)의 『錦南集』卷三「漂海錄一: 戊甲年成宗十九 閏正月條」의 “濟州人心,外癡內毒,頑慢戾悍,以死爲輕,故其言類如此 … 爾濟州人,酷好鬼神,山澤川藪,俱設神祠,至如廣壤等堂,朝夕敬祀,靡所不至”라는 기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탐라에 최초의 충격을 가한 인물은 이곳에 유배온 金淨(1486~1521)으로 그의 행동은 『冲庵集』 「冲庵先生年譜」에 “濟州之俗,尙淫祀而濫於禮,先生述喪葬祭儀以導之,氓俗一變,島中文教之興始此, … 六年戊寅,建橋林書院于濟州,卽先生結纓之地也,島中人士爲先生建院,上疏請額,宣廟嘉之,賜號曰橋林,命賜學田,定額養士,至今文化蔚然,濟州之有書院,自先生始”처럼 소개되어 있다. 이 시기의 문집에는 탐라의淫祀 파괴조치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한 예가 林昌澤(1682~1723), 『崧岳集』卷二「請毀淫祠書」의 “近日李衡祥爲濟州,濟在洋海中,最爲荒僻,俗喜鬼尤甚,民朴頑難治,遂毀淫祠十二所,初民驚恐,意必有大禍殃,卒無事,俗遂清安,其民至今日追思不能忘”라는 기록이다. 이淫祀 파괴의 시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예외가 “命立風雲雷雨壇于濟州,先是,濟州自設郡初,有風雲雷雨壇,自本州致祭,牧使李衡祥以爲,非州官所可私祀者,狀聞罷之,其後島中連年飢荒,癘疫不息,州民以爲崇在壇祀之罷革,訴于今牧使鄭東後請復,而東後聞于朝,至是禮曹奏請許之,世子從之,自是歲自京師,下送香祝以祝之, (『肅宗實錄』

「45年(1719) 11月 4日」條)처럼 비바람과 번개를 관장하는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이다. 이는 조선 관리들이 직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했기 때문에 탐라인들의 불만보다도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용인해 준 경우에 속한다.

21) 鄭宗魯(1738~1816), 『立齋集』別集 卷四「無適公自敘」: “自羅至麗,舉未脫於夷狄之俗”

0916	1727~1787	趙璫	荷棲集	—	—	—	—
0917	1727~1792	吳載純	醇庵集	—	—	—	—
0918	1727~1796	任靖周	雲湖集	—	—	—	—
0919	1727~1798	魏伯珪	存齋集	●	●	—	—
0920	1727~1810	陸萬中	餘窩集	—	—	—	—
0921	1727~未詳	崔潤昌	東溪遺稿	—	—	—	—
0922	1728~1799	金鍾秀	夢梧集	—	●	—	—
0923	1728~1807	宋煥箕	性潭集	●	●	—	●
0924	1728~1812	金道行	雨臯集	—	●	—	●
0925	1729~1791	金奎五	最窩集	●	—	—	●
0926	1729~1791	黃胤錫	頤齋遺藁	●	●	—	●
0927	1729~1813	李森煥	少眉山房藏	●	—	—	—
0928	1730~1796	南基萬	默山集	—	—	—	—
0929	1730~1796	俞彥鎬	燕石●	●	●	—	●
0930	1730~1802	金若鍊	斗庵集	—	—	—	—
0931	1731~1783	洪大容	湛軒書	—	—	—	—
0932	1731~1797	李種徽	修山集●	●	●	—	—
0933	1731~1798	南溟學	五龍齋遺稿	—	—	—	—
0934	1731~1809	趙有善	蘿山集	—	—	—	—
0935	1731~1812	申體仁	晦屏集	—	—	—	—
0936	1732~1809	成大中	青城集	●	●	—	●
0937	1732~1811	俞漢雋	自著	●	●	●	●
0938	1733~1805	李義肅	頤齋集	●	—	—	—
0939	1734~1765	蘇始萬	菊軒集	—	—	—	—
0940	1734~1799	朴胤源	近齋集	—	—	—	—
0941	1735~1762	莊憲世子	凌虛閣漫稿	—	●	—	●
0942	1735~1801	朴永錫	晚翠亭遺稿	●	—	—	—
0943	1735~1809	申大羽	宛丘遺集	●	—	—	—
0944	1736~1811	金相進	濯溪集	—	—	—	—
0945	1736~1820	李萬運	默軒集	●	●	—	●
0946	1737~1805	朴趾源	燕巖集	●	●	●※	—
0947	1738~1780	李令翊	信齋集	—	—	—	—
0948	1738~1799	范慶文	儉巖山人詩集	—	—	—	—
0949	1738~1805	李鎮宅	德峯集	—	—	—	—
0950	1738~1811	李東汲	晚覺齋集	—	—	—	—
0951	1738~1816	鄭宗魯	立齋集	—	●	—	●
0952	1739~1799	金正默	過齋遺稿	—	—	—	—
0953	1739~1807	朴準源	錦石集	●	—	●	—
0954	1739~1808	趙鎮寬	柯汀遺稿	●	●	—	—
0955	1739~1810	李堦	俛庵集	●	—	—	—
0956	1739~1812	崔興壁	蠹窩集	—	—	—	—
0957	1739~1821	韓敬儀	菑墅集	●	●	—	—
0958	1740~1766	李彥瑱	松穆館燼餘稿	—	—	—	—
0959	1740~1777	洪樂仁	安窩遺稿	—	—	—	—
0960	1740~1786	金龜柱	可庵遺稿	●	●	—	●
0961	1741~1793	李德懋	靑莊館全書	●	●	●	●
0962	1741~1826	尹愔	無名子集	●	●	●	—
0963	1742~1801	李家煥	錦帶詩文鈔	●	—	—	●
0964	1743~1791	金宗燮	濟庵集	—	—	—	—
0965	1743~1807	李楨國	尤園集	—	—	—	—

0966	1744~1807	洪元燮	太湖集	—	—	—	—
0967	1744~1809	南漢朝	損齋集	—	—	—	—
0968	1744~1816	李忠翊	椒園遺藁	—	—	—	—
0969	1744~1823	柳範休	壺谷集	—	—	—	—
0970	1744~1835	鄭來成	思軒集	—	—	—	—
0971	1745~1802	李元培	龜巖集	—	—	—	—
0972	1745~1820	李采	華泉集	—	—	—	—
0973	1746~1827	金載瓚	海石遺稿	—	●	—	●
0974	1748~1800	黃德壹	拱白堂集	—	—	—	—
0975	1748~1807	柳得恭	泠齋集	●	●	—	—
0976	1748~1812	南景義	癡庵集	—	—	—	—
0977	1749~1824	徐澄修	明阜全集	●	—	—	—
0978	1750~1805	朴齊家	貞蕤閣集	●	●	—	—
0979	1750~1827	黃德吉	下廬集	●	●	—	●
0980	1750~1828	夏時贊	悅菴集	—	—	—	—
0981	1750~1836	李明五	泊翁詩鈔	—	●	—	—
0982	1751~1824	尹大淳	活水翁遺稿	—	—	—	—
0983	1752~1800	正祖	弘齋全書	●	●	●	—
0984	1752~1820	李晚秀	履園遺稿	●	●	—	左遷
0985	1753~1809	車佐一	四名子詩集	—	—	—	—
0986	1754~未詳	任天常	窮悟集	—	●	—	—
0987	1754~1825	李書九	惕齋集	●	●	—	—
0988	1754~1832	李頤淳	後溪集	—	●	—	●
0989	1755~1812	洪仁謨	足睡堂集	—	—	—	—
0990	1755~1822	柳棧	近窩集	—	—	—	—
0991	1755~1831	李野淳	廣瀨集	●	—	—	●
0992	1756~1822	金相日	一廣遺稿	—	—	—	—
0993	1757~1821	金義淳	山木軒集	—	●	—	—
0994	1758~未詳	徐慶昌	學圃軒集	—	—	—	—
0995	1758~1833	李仁行	新野集	●	—	—	—
0996	1759~1789	裴相說	槐潭遺稿	—	—	—	—
0997	1759~1816	徐榮輔	竹石館遺集	●	●	—	—
0998	1759~1828	張混	而已廣集	—	—	—	—
0999	1759~1838	宋穉圭	剛齋集	—	●	—	—
1000	1760~1821	南漢皜	誠齋集	—	—	—	—
1001	1760~1826	尹弘圭	陶溪遺稿	—	—	—	—
1002	1760~1828	申綽	石泉遺稿	—	—	—	—
1003	1760~1839	成海應	研經齋全集●	●	●	●※	●
1004	1760~1840	南公轍	金陵集	●	●	●	●
1005	1762~1787	李崑秀	壽齋遺稿	—	—	—	—
1006	1762~1801	尹行恁	碩齋稿	●	—	—	●
1007	1762~1813	崔璧	質菴集	—	—	—	—
1008	1762~1822	徐有本	左蘇山人集	●	●	—	—
1009	1762~1836	丁若鏞	與猶堂全書	●	●	●※	●
1010	1762~1849	趙秀三	秋齋集	●	●	—	—
1011	1763~1833	吳熙常	老洲集	—	●	—	●
1012	1764~1842	朴時源	逸圃集	—	—	—	—
1013	1764~1845	徐有渠	楓石全集	●	—	●※	—
1014	1764~1848	姜必孝	海隱遺稿	—	—	—	—
1015	1765~1817	朴宗慶	敦巖集	●	—	●	—

1016	1765~1832	金祖淳	楓臯集	●	●	—	—
1017	1765~1842	白慶楷	守窩集	—	●	—	—
1018	1766~1815	朴宗輿	冷泉遺稿	—	—	—	—
1019	1766~1821	金鑣	潭庭遺藁	●	●	—	—
1020	1766~1838	沈象奎	斗室存稿	—	—	—	—
1021	1767~未詳	林得明	松月漫錄	●	—	—	—
1022	1767~1830	李勉伯	岱淵遺藁	—	—	—	—
1023	1768~1833	姜浚欽	三溟詩集	●	●	●	—
1024	1768~1834	柳健休	大埜集	—	—	—	—
1025	1768~1834	李升培	修溪集	—	—	—	—
1026	1769~1801	姜彝天	重菴稿	●	—	—	—
1027	1769~1845	申緯	警修堂全藁	●	●	—	●
1028	1770~1835	李學達	洛下生集●	●	●	●	—
1029	1771~1849	朴允默	存齋集●	●	●	●	—
1030	1772~1832	姜至德	靜一堂遺稿	—	—	—	—
1031	1772~1837	李禮煥	蘭菊齋集	—	●	—	—
1032	1772~1839	李載毅	文山集	●	—	—	—
1033	1774~1840	李秉遠	所菴集	●	—	—	●
1034	1774~1842	金憲基	初庵全集	—	●	—	—
1035	1774~1842	洪奭周	淵泉集	●	●	—	●
1036	1774~1848	鄭象履	制庵集	—	—	—	—
1037	1774~1851	洪敬謨	冠巖全書	●	●	●	●
1038	1776~1840	金邁淳	臺山集	●	—	—	●
1039	1776~1852	洪直弼	梅山集	●	●	—	●
1040	1777~1861	柳致明	定齋集	●	●	—	—
1041	1778~1853	李廷柱	夢觀詩稿	—	—	—	—
1042	1779~1865	鄭奎漢	華山集	—	—	—	—
1043	1782~1850	趙寅永	雲石遺稿	●	●	●	●
1044	1783~1873	鄭元容	經山集	●	●	—	—
1045	1784~1852	成近默	果齋集	●	—	—	—
1046	1786~1856	金正喜	阮堂全集	●	●	—	●
1047	1789~1866	李是遠	沙磯集	—	—	—	—
1048	1790~1866	卞鍾運	歎齋集	●	—	—	●
1049	1791~1849	趙秉鉉	成齋集	—	●	—	—
1050	1791~1854	朴永元	梧墅集	—	—	—	—
1051	1791~1867	宋來熙	錦谷集	●	●	—	●
1052	1792~1863	李晚用	東樊集	—	●	—	●
1053	1792~1868	李恒老	華西集	●	●	—	—
1054	1793~1874	尹定鉉	枰溪遺稿	●	●	—	—
1055	1796~1870	趙斗淳	心庵遺稿	●	●	●	—
1056	1797~1865	金進洙	蓮坡詩鈔	●	—	●	—
1057	1797~1886	許傳	性齋集	●	●	—	●
1058	1798~1868	洪翰周	海翁藁	●	—	—	—
1059	1798~1879	奇正鎭	蘆沙集	●	●	—	—
1060	1799~1877	申佐模	澹人集	●	●	—	—
1061	1800~1870	趙秉憲	肅齋集	—	●	—	—
1062	1801~1859	俞莘煥	鳳棲集	—	●	—	—
1063	1803~1865	李尙迪	恩誦堂集	—	—	—	—
1064	1807~1876	朴珪壽	璫齋集	—	●	●	—
1065	1808~1858	宋達洙	守宗齋集	—	—	—	—

1066	1808~1858	鄭芝潤	夏園詩鈔	—	—	—	—
1067	1811~1876	任憲晦	鼓山集	●	●	—	—
1068	1813~1872	柳疇陸	溪堂集	—	●	—	—
1069	1814~1888	李裕元	嘉梧藁略	●	●	—	●
1070	1815~1900	張福樞	四未軒集	●	—	—	—
1071	1817~1863	南秉哲	圭齋遺藁	—	—	—	—
1072	1818~1886	李震相	寒洲集	●	●	—	●
1073	1819~1891	金平默	重菴集	●	●	—	●
1074	1820~1884	姜璋	古歡堂收艸	●	●	—	—
1075	1827~1899	金興洛	西山集	—	—	—	—
1076	1829~1899	金永壽	荷亭集	●	●	●	●
1077	1832~1893	柳重教	省齋集	●	●	—	●
1078	1832~1894	韓章錫	眉山集	●	●	—	—
1079	1833~1904	許愈	后山集	—	—	—	—
1080	1833~1906	崔益鉉	勉菴集	●	●	—	●
1081	1835~1922	金允植	雲養集●	●	●	●※	●
1082	1836~1905	宋秉瑨	淵齋集	●	●	—	●
1083	1836~1907	許薰	舫山集	●	●	—	●
1084	1837~1902	李種杞	晚求集	—	—	—	—
1085	1841~1922	田愚	艮齋集	●	—	—	●
1086	1842~1915	柳麟錫	穀菴集	●	●	—	●
1087	1846~1916	奇宇萬	松沙集	●	●	—	●
1088	1846~1919	郭鍾錫	俛宇集	●	●	—	—
1089	1848~1909	李沂	李海鶴遺書	—	●	—	●
1090	1850~1927	金澤榮	韶濩堂集	●	●	—	—
1091	1851~1909	申箕善	陽園遺集	●	●	—	●
1092	1852~1898	李建昌	明美堂集	●	●	—	—
1093	1855~1907	李南珪	修堂遺集	—	—	—	—
1094	1855~1910	黃玟	梅泉集	●	—	—	●
1095	1873~1933	曹兢燮	巖棲集	●	●	—	—
총계(184)				92	86	21(5)	50

위 184개 문집 가운데 탐라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92, 제주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8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탐라와 제주 관계 기록 중 말을 기록한 것이 21이며, 이 가운데 5는 말의 기원을 대원올로스로 적시하고 있고, 유배 기록은 50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비율로 환산할 경우 탐라는 50%, 제주는 47%, 말[馬]은 11.4%, 유배는 27%에 이른다.

위 분석표에 제시된 영조·정조 시대부터 조선말기(1725~1910) 시기의 탐라는 나름대로의 시대특징을 지니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민란의 조짐이 등장한다는 점이다.<sup>22)</sup> 두 번째는 이양선의 돌연한 방문과<sup>23)</sup> 함께, “만일 영국이 이 섬을

22) 白慶楷(1765~1842), 『守窩集』 卷四 「北行日記」 : “[癸酉 十二月]二十日,付書于京,兼付家書,見朝紙,濟州民梁濟海等謀爲亂,牧使金守基覺,治之徑斃,以李在秀爲按理使,往治之,因設科于濟州云” ; 鄭元容(1783~1873), 『經山集附錄』 卷二 「朝鮮國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原任奎章閣提學,文忠鄭公行狀」 : “又濟州民嘯聚數萬,戕人命逼官長,亦遣使按覈兼察理,罷該牧使職,其亂魁二人之已殲者外,分等論奏,并全活之”; 李裕元(1814~1888), 『嘉梧藁略』 冊十九 「領議政文忠經山鄭公[元容]行狀」 : “濟州民嘯聚數萬,戕人命逼官長,亦遣使按覈,而兼察理罪該牧使,殲其魁外,皆分等論奏,亦可之”; 柳麟錫(1842~1915), 『穀菴集』 卷四十七 「墓碣: 節制使金公[德基]墓碣銘

점령하면 러시아인들은 반드시 제주도를 점령할 것입니다. 신문 지상에 이미 이런 말이 보도되고 있으니 이는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매우 탄식할 일입니다.”<sup>24)</sup>라는 말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듯이 영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정면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말기의 주변세력과 그들이 조선을 둘러싸고 벌이는 대결상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돌이켜보면 조선과는 달리 탐라의 경우는 마치 13세기의 재현과도 같은 느낌도 들 수 있다. 비록 13세기 당시는 양호(梁浩)가 탐라를 대표해 세계제국인 대원올로스의 코빌라이카간에게 자신들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19세기 말기의 탐라는 가난에 찌들고 관리들의 착취에 신음하는 무방비의 섬에 가까웠다. 왜 탐라는 대원올로스 때처럼 세계 속의 탐라로 등장하지 못했을까. 탐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13세기는 물론 임진왜란이나 19세기 때에도 “제주가 바다 가운데 있는 하나의 섬이긴 하지만 천하의安危(安危)가 여기에 달려 있다.”<sup>25)</sup>처럼 여전히 바닷길의 중심에 서 있었는 데도 말이다. 바로 이러한 탐라의 비극적인 역사행로를 보여주고 답해주는 기록들이 바로 제3단계시기에 속하는 문집들이다.<sup>26)</sup>

#### 4. 문집분석을 통해본 조선선비들의 유목문화 인식

앞에서 3단계로 나눈 것을 종합해 보면 총 1095개 가운데 탐라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422, 제주 관계기록이 실려 있는 문집은 44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탐라와 제주 관계 기록 중 말을 기록한 것이 110이며, 이 가운데 13은 말의 기원을 대원올로스로 적시하고 있고, 유배 기록은 197로 나타났다. 이것을 비율로 환산할 경우 탐라는 38.5%, 제주는 40.5%, 말[馬]은 10%, 유배는 18%에 이른다.

이 통계기록은 유배의 기록이 말[馬]에 대한 기록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말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은 관리로 유배자로 왔건 모두 유학자들이다. 따라서 기록자들의 사상 차이는 현직이나 처벌 중인가를 제외하고

并序」：「英廟朝濟州有亂，朝廷特以公選，馳至則亂已，盖州聞公至而自戢也，安撫得洽，還朝」； 奇宇萬(1846~1916)，『松沙集』卷三十六「墓碣銘：濟州判官白公[基虎]墓碣銘并序」：「公武藝絕倫，舍文業弓馬，登丙子第，嘗以四馬擒善山賊魁，濟州擾，命公爲通判，州聞公至自解」

23) 李震相(1818~1886)，『寒洲集』卷三十八「仲父凝窩先生[李源祚]行狀」：「時吉利蠻以大舶泊濟州，州境大鬧」

24) 金允植(1835~1922)，『雲養集』卷十一「書牘：答閔參判泳翊書」：「英若佔得此島，則俄人必佔濟州，新聞紙上已有此語，此必至之勢，可歎可歎」

25) 『宣祖實錄』「34年 5月 11日」條：「濟州雖曰海中一島嶼，足以繫天下之安危」

26) 당시 탐라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대외인식 수준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李建昌(1852~1898)，『明美堂集』卷十九「工曹判書梁公[憲洙]墓誌銘」에 수록된「濟絕島，俗質味」라는 기록이다.

는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탐라의 유목문화를 관찰한 유학자들, 특히 그 가운데에서 많은 생각에 잠기고 주변 풍물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을 유배자들의 처지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탐라의 유목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통치계층인 양반은 역사적으로 남송의 사대부들과 함께 가장 배움이 큰 사람들이다. 그러나 당쟁(黨爭)과 사화(士禍)란 용어가 나타내 주듯이 서로를 견제하고 괴롭힘을 주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력부침이 일어날 경우 패배한 세력은 중성(鍾城)이나 제주 등 국토의 남북단에 위치한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이 유배지 가운데 가장 나쁜 곳이 바다를 건너야 하는 제주였으며<sup>27)</sup>, 제주에서도 가장 나쁜 곳이 더위와 습기로 사람을 죽인다는 악평이 자자한 대정(大靜)이었다.<sup>28)</sup>

또 유배를 시킬 경우 그가 현지인들이나 저항세력과 손잡을 것을 두려워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sup>29)</sup>, 제주도의 경우 가시가 날카로운 탱자나무(*Poncirus trifoliata*, 枳子)가 자라 위리안치 시키기에 적격이었다.<sup>30)</sup> 이로 인해 왕과 논쟁을 벌인 대신들이 왕의 노여움을 사 유배 성격의 좌천을 당하는 곳도 바로 제주도였다.<sup>31)</sup> 이들은 관리와는 달리 탐라 하층민들의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목격이나 체험담이 이후 시나 글로 엮여져 문집 속에 수록되었다. 이들의 목격이나 체험담은 한라산을 올라 장수(長壽)를 상

27) 李野淳(1755~1831), 『廣瀨集』 卷一 「挽黃判官麟采」: “白下好人物, 始顯終何窮, 南海耽羅國, 一番宦謫同”

28) 大靜 유배지에 대한 악평은 다음 기록에서도 잘 입증된다. 李敏求(1589~1670), 『東洲集』 卷二 「送李濟州序」: “濟州絕居海上千有餘里 … 然二邑地荒而路幽, 魑魅之所廬, 處罪人以遠惡者必於是”; 李萬敷(1664~1732), 『息山集』 續集卷二 「寄舍弟持國謫所」: “在摩尼之南地紀窮處, 風土比濟州尤不好, 朝暮海氣襲人, 又有蛇蝎, 冬不蟄, 輒入床壁間, 土疏惡, 不得水糲, 居人惟炊藿, 海錯亦不甚產云, 到彼見之果然乎, 決非人所堪居之地”; 李緯(1680~1746), 『陶菴集』 卷二十九 「左參贊寒竹中公鉞神道碑」: “濟州在南海中, 海道幾千里, 颶風鯨魚, 發作無節, 舟楫往往覆摧, 州有大靜、旌義二縣, 皆依山面海, 多毒霧瘴氣, 而大靜爲甚, 譬古之春雷, 至者雖少壯, 不死則病, 十無一二還者”

29) 圍籬安置란 죄인이 배소에서 멋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유배장소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Poncirus trifoliata*, 枳子)를 돌리는 형벌을 말한다. 탱자나무는 전라남도나 제주도에 주로 서식한다. 圍籬安置가 처음 법제화 된 때는 世祖 1457년이다(『世祖實錄』 「3年(1457) 11月 18日」 條: “義禁府啓安置璵、璠、璵、鄭棕禁防條件, 一欄牆外設鹿角城, 一外門常時鎖鑰, 朝夕之需, 十日一次給之, 又於牆內, 掘井取給, 使外人不得相通, 一外人往來交通或贈遺者, 以黨不忠論, 一守令不時點檢, 守門者如有非違, 依律科罪, 從之”). 絶島安置 지역인 제주도에서는 圍籬安置가 시행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金龜柱(1740~1786)는 “耽羅圍籬, 亦越常例, 其曰高三丈, 圍四重, 不置後門(『可庵遺稿』 卷十一 「與景日昇如, 己亥十月初八日」)”처럼 제주도의 圍籬安置가 법에 정한 것보다 너무 엄격하게 시행된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30) 탱자나무의 여물지 않은 초록색 어린 열매를 지실(枳實)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두 세 조각으로 잘라 말리면, 비장과 위장에 유익한 약재가 된다. 이로 인해 조선정부는 제주에 枳實을 공납케 했다. 제주에 부임한 관리들은 탱자나무를 세어 백성에게 그 열매를 내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가혹한 고역에 시달린 백성들은 나무를 흔들어 저절로 죽게 하거나 아예 잘라 버리는 일도 발생했는데, 1746년 영조 때에 이르러 “[22年(1746)] 冬十月, 濟州貢枳實, 王曰, 予聞官數枳樹, 責出其實於民, 故民或撼樹自枯云, 豈不哀哉, 其還送濟州, 勿復貢(『英祖實錄』 「英祖大王行狀」)”처럼 지실 공납을 중지시켰다.

31) 이 같은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이 李晩秀(1752~1820), 『展園遺稿』 卷十 「右議政鰲恩君李公[敬一]諡狀」: “甲寅拜工曹參判, 時有逆宗合啓付丙之命, 公以諫長登筵更發啓, 上震怒, 特竄濟州牧, 公趨程疾驅到海, 舟人以風逆告, 公叱令解纜, 屢退幾濱危, 俄而有命下”; 趙寅永(1782~1850), 『雲石遺稿』 卷二十 「領議政斗室沈公象奎諡狀」: “秋, 公仲弟府使公, 以太學執綱生不應殿講, 上怒, 亟竄公濟州牧, 未行而寢”; 李裕元(1814~1888), 『嘉梧藁略』 冊十九 「左議政奉朝賀聽軒孝定李公[敬一]行狀」: “上大怒竄濟州, 公日夜趨程至海上, 舟人告風不利, 公大叱曰, 王命也, 亟命解纜, 幾危者數, 未及渡, 赦命至” 등이다.

정하는 남두육성 즉 노인성(老人星)을 바라보는 것에 중점이 두어져 있고, 유목문화의 한 특징을 이루는 사냥에 대한 것은 거의 언급이 없다. 제주의 공납품 중 하나가 사슴꼬리[鹿尾]이다.<sup>32)</sup>

조선 선비들이 바라본 유목문화의 흔적은 말과 말로부터 파생된 물품들인 갓, 망건, 가죽옷, 종의(纓衣) 등이다. 이 가운데 탐라의 몽골문화를 그나마 긍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코빌라이카간(Khubilai Khagan, 1215년생, 재위:1260~1294)이 들여온 말이다. 조선시대의 문집을 분석해 볼 경우 원세조(元世祖) 코빌라이카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거의 드문데, 그 대신 그를 따랐던 북방 유학자인 허형(許衡, 1209~1281)<sup>33)</sup>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탐라에 온 관리나 유배자들도 코빌라이카간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다. 몽골의 유목문화를 상징하는 탐라의 말 관련 기록에서 코빌라이카간이 언급된 대표적인 기록으로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글을 선정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가난한 것은 대체로 목축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목장으로 가장 큰 곳이 오직 탐라뿐이다. 그곳의 말들은 모두 원나라 세조가 방목한 종자들이다. 400~500년을 두고 내려오면서 종자를 한 번도 갈지 않은 까닭에, 애초에는 용매(龍媒)·악와(渥洼)와 같이 우수한 종자라도 결국 과하(果下)·관단(款段)과 같은 꼬마 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sup>34)</sup>

32) 사슴꼬리는 연산군도 즐겼던 美食으로 “命停耽羅進貢鹿尾,上曰,尾爲六十條,則體亦六十,若一年再貢,則鹿將一百二十,未知本島有前例乎”(『英祖實錄』「45年(1769) 8月 9日」條)처럼 英祖 45년(1769)에 공납 중지령이 내릴 때까지 왕실에 進貢되었다. 대원율로스 때 사냥감의 일환으로 대거 방사된 제주도의 노루나 사슴들은 柳希春(1513~1577)의 『眉巖集』卷九「日記: 辛未,隆慶五年,我宣廟五年」條의 “[靈巖,康津,海南]三邑不產鹿尾鹿舌快脯,請移於濟州獐鹿所產之地”나 卷十六「經筵日記: 辛未」條의 “臣竊觀濟州江豚化鹿,其產不窮,地無虎豹豺狼,獐鹿蕃盛”라는 기록처럼 중산간(웃뜨르) 곳곳에 서식하고 있다. 또한 당시 염소까지 들여와 사육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李學達(1770~1835)의 “濟州進殺羆,分畜諸州,多物故不孳,令贖其價,乃知州郡之畜殺羆,自麗末始也”(『洛下生集』冊二十「東事日知: 殺羆」)라는 기록도 존재한다.

33) 許衡(1209~1281)은 오늘날 河南省 沁陽에 해당하는 懷孟河內 출신으로, 字는 仲平, 號는 魯齋이다. 어릴 적부터 경서에 능통했던 그는 姚樞(1201~1278), 竇默(1196~1280) 등과 함께 程朱理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1254년 코빌라이의 부름에 응해 京兆提學을 맡았다가 이후 하남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260년에 다시 부름을 받아 京師에 이르렀다. 1261년 太子太保에 제수되었지만 응하지 않았고, 다시 國子祭酒로 임명되었지만 곧 병을 핑계로 사직했다. 1265년 中書省에서 일하도록 명을 받아 時務五事를 올리면서 漢法의 중원시행을 주장했다. 1269년 劉秉忠 등과 함께 朝儀와 官制 등을 논의해 정했고, 1270년에 中書左丞에 임명되었다. 1271년에 集賢大學士兼國子祭酒로 임명되어 몽골인 자제들을 선발해 교육시키는 일을 맡았다. 1276년에 太史院使의 책임자로 郭守敬 등과 함께 義象圭表, 日測晷景을 새로 제정하고 수시력을 編定했다. 문집에 『魯齋叢書』가 있다. 許衡에 대한 연구서는 袁國藩, 『元許魯齋評述』, 台北, 1972을 참조.

34) 朴趾源(1737~1805), 『熱河日記』「太學留館錄」1780年 8月 14日條: “國俗所以貧者,蓋由畜牧未得其道耳,我東牧場,惟耽羅最大,而馬皆元世祖所放之種也,四五百年之間,不易其種,則龍媒渥洼之產,未乃爲果下款段,理所必然”. 이 기록에 등장하는 龍媒와 渥洼는 각기 駿馬와 神馬를 뜻한다. 龍媒는 준마의 이칭으로 그 이름은 漢武帝 天馬歌의 “天馬來兮龍之媒”에서 유래한다. 당나라에도 飛黃, 吉良, 龍媒, 駒駘, 馱駘, 天苑 등 六閑의 명칭이 있는데, 모두 천자의 말을 기르는 곳을 가리킨다. 渥洼는 渥洼水에서 얻은 신마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한 무제 元狩 3년(B.C.120)에 죄를 지어 敦煌에 유배된 暴利長이라는 사람이 屯田을 하던 중 악와수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한 무리의 야생마 중 기이한 모습의 한 말을 발견하고, 그 말을 길들인 뒤 “물속에서 튀어 나온 신마”라 하며 조정에 바친 데서 유래한다. 또 果下와 款段은 키가 작은 말을 뜻한다.



박지원은 그의 대표작인 『열하일기(熱河日記)』가 몽골역사수상록이라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몽골의 역사와 문화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다.<sup>35)</sup> 이외 많은 인물들도 탐라의 말을 바라보며 코빌라이카간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기록들을 남겼다.<sup>36)</sup>

또 일부 문집에서는 탐라의 말을 기황후(奇皇后, Öljeitü Khutugtu Khatun)와 연관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말에 기황후(奇皇后)가 그곳에다 임시로 목장을 설치하였는데, 명나라 때에 다시 우리 조선에 예속되었다. 무릇 제주는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땅의 넓이가 거의 4~5백 리이다. 거주하는 백성은 8, 9천호이며 기르는 말 역시 수만 필이다. 그 [섬은] 물산의 산출이 다른 군보다 두 배나 될 정도로 풍요롭다.<sup>37)</sup>

제주도가 몽골 말과 최초로 인연을 맺은 시기가 충렬왕 2년인 1276년이다. 코빌라이카간은 타라치(Tarachi, 塔刺赤)<sup>38)</sup>를 탐라 다로가치(Darugachi, 達魯花赤)<sup>39)</sup>로 임명하여, 1276년 8월 말 160마리를 제주도로 가져와 수산평(오늘날 성산읍 수산리)에 방목했다.<sup>40)</sup> 160마리의 구성은 아즈라가(Ajirgan, азрага[н], 種馬)와 암말로 이루어진 몇 개의 집단이라고 보이며, 전투마인 거세마(Agtan mori, агт[ан] морь)<sup>41)</sup> 집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5) 박지원의 몽골인식에 대해서는 줄저, 『조선과 몽골 - 최덕중, 박지원, 서호수의 여행기에 나타나는 몽골인식 -』, 서울: 소나무, 2010, pp.686-694를 참조.

36) 梁誠之(1415~1482), 『訥齋集』卷四「軍國祕計二事」: “元置牧場,自是馬大蕃息”; 徐居正(1420~1488), 『四佳集』卷五「送濟州節度使梁公詩序」: “至元中,以房星所野,置牧場,終高麗之世,或置或廢”; 鄭斗卿(1597~1673), 『東溟集』卷十一「洗馬歌」: “往者胡元牧龍種,房精在天龍在野,至今龍媒漢墾下”; 成海應(1760~1839), 『研經齋全集』外集 卷四十二「食貨議下編」: “濟州古耽羅國也,天駟照之,故產良馬,元世祖放大宛馬種”; 上同, 『研經齋全集』續集 冊十六「耽毛羅辨」: “元則設萬戶等官,置牧馬場,其爲隣國人所覬覦者,亦可知也”; 丁若鏞(1762~1836), 『與猶堂全書』第六集地理集○第二卷○疆域考「北路沿革續」: “其耽羅之島,昔元世祖牧馬之場,今元子孫甚衆,措於島上,戍兵數萬以衛之”; 徐有榘(1764~1845), 『金華知非集』卷十二「擬上經界策下」: “蓋元至元中,以耽羅之爲房星分野,牧馬於此,其種漸殖於諸島,然四五百年不復易種,今皆爲果下款段矣”. 이 인용문 속에 등장하는 房星은 二十八宿의 하나로 馬를 관장하는 네 개의 별이다. 따라서 天駟 혹은 房駟라고도 한다. 房精은 房星의 정기를 말한다.

37) 徐居正(1420~1488), 『四佳集』卷二「濟州觀德亭重新記」: “麗季,奇皇后僑置牧場,至于皇明,復隸我國,盖州在海中,地廣幾四五百里,居民八九千戶,牧馬亦數萬匹,其物產饒倍於他郡”. 申叔舟(1417~1475), 『保閑齋集』卷十五「送金同年好仁安撫濟州序」에도 “濟州自元季,放馬置吏卒,爲避亂之計,蒙漢雜處,恃險反覆”처럼 이와 유사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38) 타라치는 1283년 9월 코톨록-카이미시 공주(Khutulug Khayimish Beki, 1259~1297)의 주선으로 鄭孚의 딸과 결혼하였다. 타라치의 계보에 대해서는 줄고, 「몽골사에서의 이어도 항로」를 참조.

39) 南九明(1661~1719)의 『寓庵集』卷一「詩·書事」에는 “牛馬連山雜鹿麋,村村籬落半枇杷,邊功尚頌金方慶,胡語多傳達魯花(Daruga),聖化均霑知禮讓,偷風未祓喜紛拏,朝廷不許便宜策,只恐將來怒獸呀”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곳의 達魯花는 達魯花赤의 준말이라기 보다는 그대로 제주도에 전승되는 지도자나 책임자, 행정관을 뜻하는 다로가(Daruga)를 나타낸 말일지도 모른다. 사실 『高麗史』에 표기된 達魯花赤은 어학적으로 성립키 어려우며, 역사적으로 무언가 오해가 생겨 그렇게 표시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말은 『高麗史』 표기의 원형인 『元史』에도 표기되어 있지만 당대 문집에서는 達魯花(Daruga)란 표기가 오히려 더 일반적이다.

40) 『高麗史』「忠烈王 1276年 8月」條: 元遣塔刺赤爲耽羅達魯花赤,以馬百六十四來牧.

41) 거세마인 악탄-모리는 전투에 동원되기 때문에 軍馬란 뜻의 체르긴-모리(cherig-yin mori, цэргийн морь)라고도 불린다.

조선의 군주 가운데 탐라의 유목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던 인물은 정조(正祖, 1752~1800)이다. 그는 탐라의 지식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타라치(塔羅赤, Tarachi)가 원나라 사신으로 올 때 소·말·낙타·당나귀·양 등을 싣고 와서 수산평(首山坪)에서 길렀다고 하는데 지금도 낙타와 양의 종자가 있느냐?<sup>42)</sup>

몽골 말이 들어오면 그것을 사육하는 전문 집단이 들어오게 마련이다. 이들은 목마사육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목축 기술, 낙인찍는 법 등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 습속까지 가져오게 된다. 현재 말에 관련된 제주 방언은 중세 몽골어 치더르(chidör, чөдөр : 앞의 두 발과 뒤의 한 발을 묶는 끈)의 흔적인 지달 등 많은 어휘가 몽골어에서 유래되었다.<sup>43)</sup> 말에 관련된 몽골의 영향은 오늘날 제주도 사람들이 말의 코를 약간 자르는 습속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는 질주 때 숨을 편하게 쉬도록 해주는 몽골의 습속에서 유래된 것이다. 말이나 소를 모는 자들을 뜻하는 테우리도 “몰다”라는 뜻을 지닌 중세 몽골어 타오보리(taguburi, туувар)에서 유래된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탐라의 몽골 말을 제주마(濟州馬)<sup>44)</sup>, 제마(濟馬)<sup>45)</sup>, 탐라마(耽羅馬)<sup>46)</sup> 등 3개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전승되는 조랑말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조랑말은 군마에서도 명마로 치는 조로모리(Jiruga mori, жороо морь) 걸음걸이(주법)를 지닌 말인데, 이러한 걸음걸이를 구사하는 말은 기마사술(騎馬射術)을 업으로 삼는 유목사회가 아니면 실제 교육시키기가 매우 어렵다.<sup>47)</sup> 당시 이러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조선시대에 이러한 주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오늘날 계승된 조랑말은 아마 목동들이 구술로 내려온 고대 탐라 시절의 명마에 대한 추억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 탐라에서 말과 관련된 대표적인 상품인 말총갓과 말총망건은 조선의 문화의 상징하는 물품의 하나였지만<sup>48)</sup>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거의 사라졌다.

42) 正祖(1752~1800), 『弘齋全書』 卷五十一 「策問四·耽羅: 濟州三邑儒生試取○甲寅」: “塔羅赤之爲元使也, 載牛馬駝驢羊來, 牧于首山坪, 駝羊今有種歟”

43) 고대 몽골의 말사육법이나 기마도구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줄고, 「대몽골(원)제국 시대의 양마법(養馬法)과 기마장비」 『제주도연구』 43, 2015, pp.1-88을 참조.

44) 李學達(1770~1835), 『洛下生集』 冊二十 「東事日知: 濟州馬」: “先是忠烈王三年, 元朝以耽羅爲房星分野, 遣塔羅赤, 載馬牛駝驢羊來, 放山水坪, 馬畜蕃息, 設達魯花赤府及軍民總管府, 此濟州牧馬之始也”

45) 朴允默(1771~1849), 『存齋集』 卷四 「濟馬」: “聞說耽羅種, 勁狠不可名, 近人輒蹄齧, 依風時一鳴, 回勒試跨鞍, 噴沫任縱橫, 使左必欲右, 令我坐不平, 素性雖甚惡, 百金價不輕, 若遇王良手, 可能順其情, 聞昔凝霜白, 我太祖所御八駿之一, 即濟州所產, 青史垂其名, 所產不在地, 驚驥由天成”

46) 金永壽(1829~1899), 『荷亭集』 卷五 「馬說」: “耽羅之馬, 歲貢京師三百匹, 以牡不以牝”

47) 조로모리 주법에 대해서는 줄지,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서울: 민속원, 1999, pp.52-57을 참조.

말총으로 만든 옷인 종의(鬃衣) 역시 외국인이 선호하는 물품이었지만 조기에 단종되었다.<sup>49)</sup> 조선 사대부들은 남자들이 쓰는 전립형태 모자가 북방스타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한탄하고 있는데,<sup>50)</sup> 제주도의 경우 그 강도가 더욱 심했다. 탐라의 병거지는 매우 특이해 탐라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모자만 보면 금방 식별이 될 정도이다.<sup>51)</sup>

조선 사대부들의 문집에는 여인들의 의복이나 모자에 대한 기록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조선여인 의복이 몽골풍이고, 머리 땡는 형태나 머리에 쓰는 차액(遮額), 족두리(足頭裡)나 다리[首髻]가 몽골의 유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52)</sup>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한탄하면서 아무 대안 제시도 없이 왕에게 그런 것들을 고칠 것을 건의하는 일도 많았다. 『성종실록』에는 명나라 사신들이 수채(首髻: 다리)와 몽골개[獐狗]를 요구한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sup>53)</sup>

다리는 생머리로 만든 북방여인들의 가발로 미국영화 스타워즈의 여왕머리에 도 등장하는 유명한 머리스타일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에서 받아들이는

48) 갓이나 망건은 元代 중원지역에서 유래된 것이지만(成海應(1760~1839), 『研經齋全集』 外集 卷五十八 「子餘筆記類 ○蘭室譚叢三: 網巾」: “徐渭路史云世傳網巾之制,始自洪武中,見朝天宮道士創此,問其義,道士以萬法歸一對,天下如式服之,按元人謝宗可有詩曰,烏紗未解滌塵綽,一網清風雨鬢寒,篩影細分雲縷潤,某紋斜界雪絲乾,不須漁父燈前結,且向詩翁鏡裏看,頭上任渠籠絡盡,有時怒髮亦衝冠,詳味此詩,元時亦有網巾,豈至洪武初,乃懸一切之法歟”), 말총으로 만드는 말총망건(馬尾網巾)은 고려에서 시작되었다. 그 최초의 제작지점은 아마도 말이 풍부했고 몽골 장인들이 살았던 탐라였을 것이다. 『文宗實錄』 「2년(1452) 3월 28일」條에는 “망건(網巾)은 머리털을 감싸는 물건인데, 말꼬리로써 그물처럼 맺는다(網巾, 韜髮物, 以馬尾結之如網)”라는 제작법이 수록되어 있다. 탐라의 말총갓에 대해 李德懋(1741~1793)는 “탐라의 갓은 매미날개보다 얇다(耽羅薄於蜩)”(『靑莊館全書』 卷九 「雅亭遺稿: 笠聯句」)고 감탄했으며, 金鑣(1766~1821)도 그것을 “耽羅細量笠”(『薄庭遺藁』 卷十二 「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교했다.

49) 말총으로 만든 옷인 마의의 존재와 인기에 대해서는 成海應(1760~1839), 『研經齋全集』 外集 卷五十八 「子餘筆記類 ○蘭室譚叢三: 鬃衣」에 “舊有鬃衣,守濟州者每織造以來,馬鬣由此翦盡,崔溥者嘗漂到中國,中國人問有鬃衣否,答無有,曰前日李暹之來,多貨鬃衣,今汝獨無,眞寒儒也,成宗二十一年,嘗設其禁”처럼 묘사되어 있다.

50) 趙克善(1595~1658), 『治谷集』 卷十 「目官」: “西北人多戴毛氈笠,蓋近胡俗也,自戊午渡遼之役興,國中或有戴毛氈笠者,轉相視效,遍及四方,丁卯胡變之作,士大夫亦或戴之,武人則雖大官,無不盡然,毛氈笠或謂之戰笠,此乃戰爭之兆也歟”

51) 李載毅(1772~1839)의 『文山集』 卷十 「遊松家島普門寺記」에는 탐라인의 병거지에 대한 기록이 “喬之東,有山屹然,環島數十里,土沃而民多,其幅圓之大,比高稍廣,余欲一覽,選日,與數三親知,出東津,載簫筍,舟行逶迤,泊島之浦口,蓋喬之屬島也,居民出浦而待久矣,頭着繩戰笠,酷尙耽羅人”처럼 실려 있다.

52) 조선여인복장과 머리 꾸밈형태, 모자 등이 몽골의 유풍이라는 기록 중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梅山集』 卷十五 「答李釋舒正觀,癸巳三月」: “俯示兩編,眞見既立,命辭自正,非直考據精博,表裏殫盡之爲可重也,先王制禮,切切乎衣章容飾,所以別於夷狄禽獸也,吾邦衣冠文物,壹遵中華,有帝者作,必來取法,而獨婦人服飾,尙襲獐子之餘,辮髮繞首,窄袖短衣,而下施裙裳”; 趙克善(1595~1658), 『治谷集』 卷十 「目官」: “我國婦人,以玄錦或紫錦全幅二尺二寸,中屈之爲兩重,以厚紙貼其裏以戴之,從額覆頂,垂于後以加肩背,謂之遮額,音從釋諺,自光海中年以來,率用玄錦爲表,以絮爲裏,而空其中,貼戴頭上,如着頭然,謂之足頭裡,音皆從字音,其制圓裁,一片如月形,置其中,又橫裁七片,而上狹下廣,以狹頭環綴於圓裁處,而當額一片最短,左右各二片,參差漸長,後二片均之最長,跨頂下至于後頂縫合,其武穹然而圓,有大中小三品,一時好尙,遂變國俗,遮額之制絕無矣,議者以爲此,亦近於胡服,乃服胡之兆也”; 任憲晦(1811~1876), 『鼓山集』 卷八 「禮疑瑣錄」: “簇頭出於胡元,與獐俗之鬚髻無異,士大夫家婦女,恐不可以時王之制而着之,漢潮亦嘗云爾”; 申箕善(1851~1909), 『陽園遺集』 卷十二 「贈正二品資憲大夫, 內部大臣, 行嘉善大夫吏曹參判兼侍講院贊善, 成均館祭酒, 經筵官, 書筵官全齋任先生諡狀」: “冠婚喪祭,一遵古儀,衣冠服飾,不隨謬俗,以婦人簇頭出於胡元,不可謂時王之制,祭之日必令婦人着華冠唐衣之屬,其遇變禮,斟酌情文而必考據先儒之說,不敢自斷”

53) 『成宗實錄』 「11年(1480) 4월 11日」條: “下書忠清·全羅·慶尙道觀察使,濟州牧使曰,前此太監之來,皆求婦女首髻及獐狗,今預頒,勿拘多小,隨所得以進”. 몽골개는 조선 초기에 함경북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온 지역에 존재했지만 태종 이래 명나라의 강력한 요구로 말미암아 조선중기부터는 거의 사라졌다. 몽골개의 특징과 태종 때 명나라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졸저, 『조선과 몽골』 pp.470~475를 참조.

각지의 공물 중 유독 다리만큼은 제주도의 특산물로 공납케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 몽골문화의 중심지였던 제주도가 이후에도 몽골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 그 만드는 기술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리는 1756년(영조 32) 정월 부녀자 체계금지령(髻髻禁止令) 이후 목제로 만든 띠구지로 변모되었는데, 다리[加髻 = 首髻] 금지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족(土族)의 부녀자들의 가채(加髻)를 금하고 속칭 족두리(簇頭里)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가채의 제도는 고려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곧 몽골의 제도이다. 이때 사대부가의 사치가 날로 성하여, 부인이 한번 가채를 하는 데 몇 백 금(金)을 썼다. 그리고 갈수록 서로 자랑하여 높고 큰 것을 숭상하기에 힘썼으므로, 임금이 금지시킨 것이다.<sup>54)</sup>

사실 몽골문화의 유산인 다리의 공납은 조선시대의 탐라인들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것 중의 하나였다. 그 공납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여주는 일례가 1553년 고윤호(高允好) 등이 올린 “백성의 머리털은 한번 깎고 나면 4~5년 동안은 긴 머리가 될 수 없다”<sup>55)</sup>라는 저항의 상소문이다. 이 상소문에 대해 정부는 공납 2년 유예의 혜택을 내렸지만, 그 조치를 바라본 사관(史官)조차 “대저 다리는 폐지할 수 없는 상공(常貢)이 아니고 단지 부인네 머리 장식에 사용될 뿐인데, 이것이 어찌 제왕(帝王)의 정당한 세금이란 말인가. 온 고을의 백성이 비록 그 머리털을 다 깎는다 하여도 마련할 수 없다.”<sup>56)</sup>라는 사평(史評)을 남길 정도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 부임해온 관리나 유배되어온 학자 가운데 다리 공납으로 인한 고통을 묘사한 기록을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마 이것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탐라 문화 원천과 변화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과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도 탐라에는 몽골의 문화를 간직한 순다리[sün tarag, сүү[n] тарар]나 탐라버터[耽羅酥油, Tamna sagali, Тамна сааль], 메밀전병 등의 음식이나 유물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문집에서 탐라의 메밀 이외의 다른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sup>57)</sup>

54) 『英祖實錄』 「32年(1756) 1月 16日」條：“禁土族婦女加髻，代以俗名簇頭里，加髻之制，始自高麗，即蒙古之制也，時士大夫家奢侈日盛，婦人一加髻，輒費累百金，轉相夸效，務尚高大，上禁之”

55) 『明宗實錄』 「8年(1553) 5月 29日」條：“民之頭髮，一經剪取，四五年間，不得長髮”

56) 『明宗實錄』 「8年(1553) 5月 29日」條：“大抵首髻之爲物，非恒貢不可廢者也，只爲婦人高髻而用之而已，則是豈帝王以正供之(之)義乎。舉州之民，雖盡其頭髮而不得辦”

57) 메밀에 대한 기록은 李萬敷(1664~1732)의 “주민들은 오직 메밀만 삶아 먹는다(居人惟炊蕎)”(『息山集』續集卷二「寄舍弟持國謫所」)라는 목격담이 존재한다. 메밀과 기장, 조는 몽골고원에서 재배되는 식물로 고대로부터 유목민들의 곡물로 애용되었다. 메밀은 몽골어로 sagag(carar)이나 sagadai(сагадай[n])이라 부르는데 통칭 타타르 메밀이라 불린다. 또 씨앗의 형태가 삼각형이라 삼각형쌀(gurbaljin budaga, гурвалжин будаа)이라 불리기도 한다. 조와 기장은

## 5. 맺는 말

이상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본 제주의 유목문화를 조선시대 문집 1095개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요약해 결론지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제주를 부르는 명칭이다. 본 조사대상인 1095개의 문집에서 탐라라는 명칭은 422번, 제주라는 명칭은 총 443번 언급되었다. 이 명칭은 복수의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며, 사용례도 공적문서나 사적기록을 가리지 않고 탐라와 제주를 혼용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본 조사대상인 1095개의 문집에서 약 40%에 이르는 문집이 탐라(422)와 제주(443)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 조선 사대부들이 제주를 언급할 때 말과 유배에 대한 기록이 110 대 197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선 사대부들에게 제주는 말과 유배의 고향으로 각인이 되어있다는 것과 같다.

셋째, 말을 언급할 때 코빌리카간을 함께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느 누구도 코빌리카간을 비난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선 사대부들의 태도는 조선시대 몽골식 제사의식의 흔적이나 여인들의 몽골의상 스타일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비교해 볼 경우 의외라 할 정도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들도 탐라와 코빌리카간과의 역사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탐라는 역사적 유산으로 볼 경우 역시 코빌리카간의 섬이라는 상징을 지닌다.

넷째, 문집분석을 통해본 조선 사대부들의 탐라 유목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인데 그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고 매우 피상적이라는 점이다. 즉 산천지리의 유람을 제외하고는 원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접촉이나 대면관찰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집을 통해 탐라의 시대별 인류학지를 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원인은 언어와 습속의 차이 등의 생활조건과 음사(淫祀)와 주자학(朱子學)이라는 사상적 차이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 관리나 유배자를 불문하고 그들에게 제주도는 기후조건이 나쁘고 통역관인 역설이서(譯舌吏胥)가 곁에 있어야만 주민들과의 대화가 가능한 고통스러운 이역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탐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대신 굴림서원(橋林書院)으로 대표되는 주자학적 문교(文教)의 도입과 전파라는 문화 바꾸기를 시도했다. 따라서 이들의 기록에는 한라산이나 바다, 명승지 등에 언급은 많아

---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몽골-아모오(Monggol amu[n], Монгол амуу[н])라고 부른다. 한국에 가장 많은 외래 식물이 들어온 때가 대원올로스 시기이다.

도 100여명의 무당이 벌이는 곳이나 수많은 지역에 산재한 굿당에서 행하는 제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 조선시대 문헌의 제주관련 기록을 전부 조사하여 DB로 구축한다면 이러한 일면이 더욱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유목문화는 몽골의 흔적이고, 유배문화는 조선의 흔적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초를 이루는 탐라문화이다. 탐라인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자신들의 근원인 삼성이 단군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따라서 탐라(제주)사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럴 때 탐라(제주)에 스며든 유목문화나 유배문화가 눈에 보일 것이며,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활용할 것인가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제주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래의 탐라문화, 13~14세기의 몽골문화, 유교문화(주자학)를 구분해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자들의 협업작업이 몹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료의 해석과 역주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통해 탐라 역사변천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역사적으로 탐라는 바닷길의 중심에 서 있는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일종의 독립 제후국과 같은 나라이다. 따라서 탐라는 고대부터 육지보다도 더 주변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확대가 늘 존재했다. 탐라의 역사에서 코빌라이카간으로 대표되는 몽골의 유목문화와 굴림서원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주자학적 유배문화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역사적인 눈으로 탐라를 바라볼 경우 그 둘을 다 이용하여 탐라의 복합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오늘날의 필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주도특별자치시나 연구기관에 대한 제언이다. 지나온 역사는 현재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원칙을 준다. 필자는 탐라(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리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이루는 인문학적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한 단계로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탐라(제주)관련기사의 정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제2세션

# 중국과 일본의 유배역사와 문화

- 당오대(唐五代) 유배 관리의 시기와 지역분포에 관한 정량(定量) 분석  
· 상용량(무한대학교, 중국)
- 아마미에 유배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 츠하 다카시(류큐대학 명예교수, 일본)
- 당송시기 유배지 치엔저우에 대한 약술  
· 주앙이원(사천사범대학교 문학원 교수, 중국)





제2세션

당오대 유배관리의 시기와 지역분포에 관한  
정량 분석

상용량 (무한대학교, 중국)



## 唐五代贬官之时期与地域分布的定量分析

尚永亮 (武汉大学)

唐五代三百四十余年間，有姓名可考并有貶地記載的貶官共2828人次。从其分布时期看，中晚唐人次最多；而列前九位者依次为宪宗、文宗、玄宗、宣宗、懿宗、德宗、武后、代宗、高宗诸朝。从其分布地域看，南方是唐王朝流貶官员的主要地区，岭南道、江南西、东道和山南东道因荒远偏僻，更成了处置貶官的

首选之地，就中岭南道、江南西道所辖39州共有貶官721人次，占唐五代貶官总数的25.5%，故最值得重视。

作为一种特殊的政治文化现象，貶谪与貶谪文学已引起文史学界的积极关注，但在研究方法上，多数研究者还是运用传统的历史文化批评法，而相对缺乏对唐五代貶官之整体数量及其分布时期、分布地域的实证性的考察。这样一来，既易于导致其理论分析与历史实际一间有隔，也不易获得对唐五代三百四十余年貶官情形的动态把握。有鉴于此，本文尝试以统计学的方法，对唐五代貶官之时空分布及其发展变化进行定量分析，以期对此一论题的研究有所拓展，有所深化。

在时期划分上，我们依据传统的初、盛、中、晚四唐说，加上五代，共分为五个大的时段。在地域划分上，则依据唐之十五道进行考察。其中地处秦岭、淮水以北者七道，即关内、陇右、河东、河北、河南、京畿、都畿诸道，大致属于北方地区；地处秦岭、淮水以南者八道，即剑南、山南东、山南西、淮南、岭南、江南东、江南西、黔中诸道，基本属于南方地区。

将通过阅读多种文献史料所得数据按上述时空划分法制成表格，便有了如下所示唐五代貶官人次时空分布总表：

表1 唐五代贬官人次时空分布表<sup>1)</sup>

时期 地域		初唐	盛唐	中唐	晚唐	五代	总计
北方	京畿道	26	26	35	41	6	134
	关内道	20	4	13	10	25	72
	都畿道	17	18	42	70	9	156
	河南道	36	52	4	63	41	196
	陇右道	19	3	3	2	5	32
	河北道	27	27	5	13	12	84
	河东道	35	34	34	23	22	148
南方	淮南道	33	18	30	28	11	120
	山南东道	20	38	73	77	34	242
	山南西道	37	29	37	33	1	137
	江南东道	43	57	95	75	7	277
	江南西道	44	64	180	94	20	402
	剑南道	58	26	22	31	18	155
	黔中道	17	31	26	9	5	88
	岭南道	97	75	123	134	7	436
其他 <sup>2)</sup>		69	41	28	8	3	149
总计		598	543	750	711	226	2828

据表1可知，唐五代有姓名可考并有贬地记载的贬官共2828人次<sup>3)</sup>，而唐五代共342年，求其平均数，则每年约有贬官8.27人次。

从时期分布看，初唐598人次，盛唐543人次，中唐750人次，晚唐711人次，五代226人次。其中除五代人次较少外，其它四个时期，初、盛唐较接近，中、晚唐较接近，而以中唐和晚唐人次最多。因五个时段长短不同，若以贬官频率而论，初唐95年，年均6.3人次；盛唐53年，年均10.2人次；中唐61年，年均12.3人次；晚唐80年，年均8.9人次；五代53年，年均4.3人次，其中仍以中唐为最。

从地域分布看，南方与北方悬殊颇大。北方822人次，南方1995人次<sup>4)</sup>，为北方的

1) 此表所统计的贬官对象仅为有姓名、时期及贬地可考者。其中观察使、节度使之贬地皆归入其所治州，如宣歙观察使归宣州（江南西道），陕虢观察使归陕州（都畿道），江西观察使归洪州（江南西道），湖南观察使归潭州（江南西道），鄂岳观察使归鄂州（江南西道），西川节度使归益州（剑南道），东川节度使归梓州（剑南道），平卢军归青州（河南道）。

2) 此行数据包括被贬往“南裔”、“岭南”、“岭外”、“岭表”、“南方”、“远郡”、“远州”、“外州”、“远处”等地的逐臣人次。

3) 若将有关文献记载中可见及的贬官数综合统计，则唐五代约有贬官3641人次。

4) “南方”一栏的数据包括贬往“南方”、“岭南”、“南裔”、“岭外”、“岭表”然未言具体州郡的贬官人次，此类贬官共计138人次，其中初唐66人次，盛唐38人次，中唐26人次，晚唐8人次。

2. 43倍。而在南方诸道中，数量最多的是岭南道，高达436人次<sup>5)</sup>，其下依次是江南西道，402人次；江南东道，277人次；山南东道，242人次；剑南道，155人次；至于山南西道、淮南道、黔中道，则人数稍少，分别为137、120、88人次。在北方诸道中，以河南道最高，为196人次；其它依次为都畿道，156人次；河东道，148人次；京畿道，134人次；河北道、关内道、陇右道最少，分别仅为84、72、32人次。若将南北方综合起来看，则岭南道、江南西道贬官人次达400以上，是唐五代贬官最集中的地区，属于第一层级。江南东道、山南东道次之，贬官人次都在200以上，属于第二层级。河南道、剑南道、河东道、山南西道、淮南道、京畿道、都畿道的贬官人次在200—100之间，大抵属于第三层级。至如关内道、河北道、陇右道、黔中道均在百人以下，属于第四层级。在这四个层级中，第一、第二层级全部是南方地区，第三层级有三道属南方地区，四道属北方地区，第四层级除黔中道外，其他三道全部属于北方地区。

上述统计结果说明，中唐是贬官最盛的时期，而南方则是唐王朝流贬官员的主要地区。在南方诸道中，岭南道、江南西、东道和山南东道因其荒远偏僻，更成了处置贬官的首选之地。相比之下，北方的贬官就少了许多。

在大致了解了唐五代不同时期、不同地域贬官的总体情形后，我们再来考察唐五代各朝贬官在不同地域的分布情况。（表2略）

表2分列了唐五代二十六朝的贬官情形。五代割据政权的贬官情形与唐代差异较大，如除去五代的223人次，则唐代21朝289年中，有姓名、地域可考的贬官总数为2456人次，求其平均数，则年均贬官8.5人次。再以此平均数与上述诸朝立朝时间、年贬官人次作一比照和换算，我们就会发现一个新的关于贬官人次多寡的序列：宪宗朝(17.3)、文宗朝(15.9)、玄宗朝(9.5)、宣宗朝(9.0)、懿宗朝(8.4)、德宗朝(8.2)、武后朝(7.8)、代宗朝(7.1)、高宗朝(4.5)。这就是说，宪、文、玄、宣四朝年均贬官人次都在九朝平均数之上；而宪宗一朝在14.5年间贬官251人次，年均17.3，较之唐代平均数高出一倍有余，较之九朝平均数高出近一倍，位居榜首。

进一步看，各朝贬官的分布地域也有差别。初唐之太宗、高宗、武后、中宗诸朝，

5) 如将贬地为“岭南”、“南裔”、“岭外”、“岭表”的贬官人次计入岭南道，则其数据可达574人次。

贬地已以岭南为主；盛唐玄宗一朝，贬赴岭南者高达71人次<sup>6)</sup>，遥遥领先于其它地域；而德、宪、穆、敬诸朝，除岭南道继续领先外，贬赴江南西道者亦居高不下。进入晚唐，文宗、宣宗、懿宗、僖宗、昭宗诸朝的贬官仍以岭南道为夥，其它则多在江南西、东道以及山南东道或都畿道、河南道，展示了与中唐时期略有不同的一些新的特点。

在前列二表的基础上，我们将唐五代贬官分布地域进一步细化到州、府，对各道所辖州、府的贬官人次作一统计。（表3略）

表3显示的是唐五代十五道299个州、府的贬官情况。根据贬官所涉及州、府的多寡，各道依次排列如下：岭南道（50）、剑南道（32）、河南道（26）、河北道（24）、河东道（22）、江南西道（20）、江南东道（19）、关内道（19）、黔中道（17）、山南东道（16）、山南西道（15）、淮南道（14）、陇右道（14）、都畿道（6）、京畿道（5）。据此可知，唐五代贬官分布的地域十分广阔，其中尤以岭南道、剑南道所辖州为多。

下面，再依南北方各道贬官人次的多寡，对其所辖州贬官人次作一统计，从中既了解各具体地区之与贬官关联的密切程度，又考察其不同时期的动态发展，并总结某些规律。

其一，贬官20人次以上州，是唐五代贬官最集中也最值得重视的地区。其中岭南道的崖州、端州、桂州、循州，江南西道的饶州、虔州、连州、郴州、潭州、抚州、永州、澧州、袁州、朗州，江南东道的睦州，山南东道的荆州、商州、夔州，山南西道的梁州，淮南道的扬州，大都荒远穷恶，是贬谪南方官员的首选之地；其贬官数量的总和，共508人次，占南方贬官总数（1995）的25.46%，占唐五代贬官总数（2828）的17.96%，因而在唐五代贬官与地域关系的研究中，具有举足轻重的作用。相比之下，北方诸道贬官20人次以上州要少一些，如河南道的登州、都畿道的洛阳、陕州、河南府，河东道的蒲州，京畿道的华州、同州、京兆府、岐州等，大都距长安较近，生活条件相对优越。但若就贬官数量看，其总和294人次，占北方贬官总数（822）的35.77%，占唐五代贬官总数的10.4%，其重要性亦不容忽视。

6) 此数据未包含贬地为“岭南”、“南裔”、“南方”、“岭外”及“岭表”者。

其二，在南方诸道中，岭南道、江南西道所辖诸州最值得重视。就其贬官10人次以上州计，岭南道19个，共有贬官319人次，占该二道贬官总人次（838）的38.07%，占唐五代贬官总数的11.28%；江南西道20个，共有贬官402人次，占该二道贬官总人次的47.97%，占唐五代贬官总数的14.21%；二者相加，共有贬官721人次，占唐五代贬官总数的25.5%。也就是说，近十分之三的唐五代贬官都集中到了上述地区。进一步看，江南西道虽然在贬官总量上不及岭南道，但由于后者地域分散（有贬官者50州），每州平均8.72人次；前者地域相对集中（有贬官者20州），每州平均20.1人次，故其多数州的贬官人次均远远超过了岭南道相关州的数量，形成唐五代贬官史上的一个独特现象。

其三，若干州在不同时期的贬官史上具有较为突出的地位。初唐时期，以剑南道的雋州贬官最多，到了中唐，情况发生了较大的变化，原有的均衡被打破，一些州成为贬官最常“光顾”之地，其较突出者是江南西道的饶州（12）、连州（16）、虔州（17）、永州（14）、道州（12）、潭州（10）、郴州（11）、吉州（11），岭南道的崖州（14）、韶州（10）、雷州（10）、端州（9）。与中唐相比，晚唐除部分区域有所沿袭外，又有一些不同，主要贬官地域有京畿道的华州（20）、同州（9）。

综括唐五代三百四十余年的贬官情形，可以看出各时期、各地域间均存在许多差异。虽然从绝对数量上看，中唐时期与岭南道、江南西道等地贬官人次最多，也最值得重视，但这并不是说，其它时期、其它地域不重要。事实上，各个时期、各个地域都有其独特性，都有其可资发掘和利用的与当时政治、文化相关，与贬官生存状态相关的大量资料。认真梳理、研究这些资料，无疑可以扩大并深化唐五代贬官的整体研究和个案研究。







## 당오대(唐五代) 유배 관리의 시기와 지역분포에 관한 정량(定量) 분석

상용량 무한대학교(尚永亮 武漢大學)

당오대(唐五代) 340 여년간, 이름을 고증할 수 있고, 유배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유배 관리는 모두 2,828명에 이른다. 그 분포시기를 보면, 중당인(中唐人)의 수가 가장 많다. 그 수가 많은 순서는 헌종(憲宗)·문종(文宗)·현종(玄宗)·선종(宣宗)·의종(懿宗)·덕종(德宗)·무후(武后)·대종(代宗)·고종(高宗) 등의 조대(朝代)로 매겨진다. 분포지역으로 보자면, 남방은 당(唐) 왕조에서 관원들을 유배시키는 주된 지역으로, 영남도(嶺南道)·강남서(江南西)·동도(東道)와 산남동도(山南東道) 등은 황폐하고 편벽하여, 관리들을 유배형벌로 처벌하는 적격지가 되었다.

그 중 가장 으뜸으로 뽑는 곳은 바로 영남도(嶺南道)·강남서도(江南西道)가 관리하던 39주(州)로, 유배된 관리가 모두 합쳐 721명에 이르러, 당오대(唐五代) 유배관리 전체 총수의 25.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 하다.

특수한 정치문화현상으로서 유배(혹은 폄적貶謫)와 유배문학(혹은 폄적문학貶謫文學)은 이미 문학 역사학계의 적극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연구방법상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역사문화 비평법을 운용하고 있어, 당오대(唐五代) 유배 관리(혹은 폄적 관리 貶官)의 전체 수량 및 그 분포시기·분포지역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는, 이론적 분석과 실제 역사 사이의 일정 간격을 초래하기 쉽고, 또 당오대(唐五代) 340 여년 유배 상황에 대한 동태적 파악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문은 통계적인 방법을 시험적으로 이용하여, 당오대(唐五代) 유배 관리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 및 그 발전변화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이 논제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개척되고 심화되어지길 기대한다.

시대구분 상, 전통적인 초(初)·성(盛)·중(中)·만(晩) 사당설(四唐說)에서 오대(五代)를 더하여, 모두 다섯 개의 기간으로 나누었다. 지역구분 상에서는 당

(唐)의 십오도(十五道)에 의거하여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 중, 진령(秦嶺)·회수(淮水) 이북에 위치한 칠도(七道), 즉 관내(關內)·농우(隴右)·하동(河東)·하북(河北)·하남(河南)·경기(京畿)·도기(都畿)의 여러 도(道)는 대략 북방지역에 속한다. 진령(秦嶺)·회수(淮水) 이남에 위치한 팔도(八道), 즉 검남(劍南)·산남동(山南東)·산남서(山南西)·회남(淮南)·영남(嶺南)·강남도(江南東)·강남서(江南西)·검중(黔中)의 여러 도(道)는 기본적으로 남방지역에 속한다.

우리는 여러 문헌사료에 대한 윤독에서 얻어진 수치를 통해, 위에서 서술한 시간 공간 구분법에 따라 표를 제작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당오대(唐五代) 시기 유배관리의 연인원 시간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는 전체 표를 얻게 되었다.

[표] 1 당오대(唐五代) 유배 관리 인원수 시공간 분포표<sup>1)</sup>

시기 지역		초당 (初唐)	성당 (盛唐)	중당 (中唐)	만당 (晚唐)	오대 (五代)	총계
북방 北方	京畿道	26	26	35	41	6	134
	關內道	20	4	13	10	25	72
	都畿道	17	18	42	70	9	156
	河南道	36	52	4	63	41	196
	隴右道	19	3	3	2	5	32
	河北道	27	27	5	13	12	84
	河東道	35	34	34	23	22	148
남방 南方	淮南道	33	18	30	28	11	120
	山南東道	20	38	73	77	34	242
	山南西道	37	29	37	33	1	137
	江南東道	43	57	95	75	7	277
	江南西道	44	64	180	94	20	402
	劍南道	58	26	22	31	18	155
	黔中道	17	31	26	9	5	88
	嶺南道	97	75	123	134	7	436
기타 <sup>2)</sup>		69	41	28	8	3	149
총 계		598	543	750	711	226	2828

[표] 1에 근거하여, 당오대(唐五代)에 이름이 남아 있어 고증이 가능하고,

- 1) 이 표가 통계를 낸 유배 관리 대상은 성명, 시기 및 유배지를 고증할 수 있는 이들이다. 그중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의 유배지는 모두 주(州) 관청 소재지로 귀속했다. 예를 들어, 선흠(宣歙) 절도사는 전주宣州(江南西道)로, 섬궤(陝虢) 관찰사는 섬주陝州(都畿道)로 귀속하였으며, 강서(江西)관찰사는 홍주洪州(江南西道)로, 호남(湖南)관찰사는 담주潭州(江南西道), 악악(鄂岳)관찰사는 악주鄂州(江南西道), 서천(西川)절도사는 익주益州(劍南道), 동천(東川)절도사는 재주梓州(劍南道), 평로군(平盧軍)은 청주靑州(河南道)로 귀속하였다.
- 2) 이 항의 통계수치는 ‘남예(南裔)’·‘영남(嶺南)’·‘영외(嶺外)’·‘영표(嶺表)’·‘남방(南方)’·‘원군(遠郡)’·‘원주(遠州)’·‘외주(外州)’·‘원처(遠處)’ 등지로 편적된 축신(逐臣)들의 연인원수를 포함한다.

유배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 유배관리는 모두 2,828명에 이르며<sup>3)</sup>, 당오대(唐五代) 342년 동안 그 평균값을 구해보면, 매년 약 8.27명의 유배 관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기적 분포로 볼 때, 초당(初唐) 598명, 성당(盛唐) 543명, 중당(中唐) 750명, 만당(晩唐) 711명, 오대(五代) 226명이다. 그중 오대(五代)의 인원수가 비교적 적은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네 시기 중 초당과 성당이 비교적 비슷하고, 중당과 만당의 수가 서로 비슷하다. 중당과 만당 때 인원수가 가장 많았다. 다섯 시기의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배관리의 빈도로 보자면, 초당(初唐) 95년동안 연평균 6.3명, 성당(盛唐) 53년은 연평균 10.2명, 중당(中唐) 61년은 연평균 12.3명, 만당(晩唐) 80년은 연평균 8.9명, 오대(五代) 53년은 연평균 4.3명이며, 그중 중당(中唐)이 가장 많다.

지역분포로 볼 때, 남방과 북방은 자못 큰 차이가 있다. 북방은 822명, 남방은 1,995명<sup>4)</sup>으로 북방의 2.43배이다. 그러나 남방의 여러 도(道) 중, 가장 많은 수는 영남도(嶺南道)로 연인원 436명에 달하며<sup>5)</sup>, 그 다음이 차례대로 강남서도(江南西道) 402명, 강남동도(江南東道) 277명, 산남동도(山南東道) 242명, 검남도(劍南道) 155명이고, 산남서도(山南西道)·회남도(淮南道)·검중도(黔中道)는 숫자가 조금 적어 각각 연인원 137·120·88명이다. 북방의 여러 도 중에는 하남도(河南道)가 가장 숫자로 196명에 이른다. 그 다음은 도기도(都畿道) 156명, 하동도(河東道) 148명, 경기도(京畿道) 134명이며, 하북도(河北道)·관내도(關內道)·농우도(隴右道)가 가장 수가 적어, 각각 84·72·32명에 불과하다. 만약 남방과 북방을 종합해서 보자면, 영남도(嶺南道)·강남서도(江南西道)의 유배 관리는 연인원 400명이상이 되어, 당오대 유배관리들이 가장 집중한 지역으로 첫 번째 등급에 속한다. 강남동도(江南東道)·산남동도(山南東道) 두 번째로, 유배관리는 연인원 200명이상이 되어, 두 번째 등급에 속한

3) 만약 관련 문헌의 기록 중에 언급된 유배관리의 수를 종합하여 통계를 내면, 당오대(唐五代)는 대략 연인원 3,641의 유배 관리가 있었다.

4) ‘남방(南方)’란의 통계수치는 ‘남방(南方)’·‘영남(嶺南)’·‘남예(南裔)’·‘영외(嶺外)’·‘영표(嶺表)’로 편적되었으나, 구체적인 주(州) 군(郡)의 언급이 없는 유배 관리의 연인원수를 포함하는데, 이런류의 유배관리는 전체 연인원 138명으로, 그 중 초당(初唐)은 66명, 성당(盛唐)은 38명, 중당(中唐)은 26명, 만당(晩唐)은 8명이다.

5) 만약 유배지를 ‘영남(嶺南)’·‘남예(南裔)’·‘영외(嶺外)’·‘영표(嶺表)’로 하는 유배관리의 연인원수를 영남도(嶺南道)에 포함하면, 그 통계수치는 574명에 달한다.

다. 하남도(河南道)·검남도(劍南道)·하동도(河東道)·산남서도(山南西道)·회남도(淮南道)·경기도(京畿道)·도기도(都畿道)의 유배관리는 연인원 200에서 100명 사이로, 대략 세 번째 등급에 속하다. 관내도(關內道)·하북도(河北道)·농우도(隴右道)·검중도(黔中道)는 모두 연인원 100명 이하로서, 네 번째 등급에 속한다. 이 네 가지 등급 중, 첫 번째·두 번째 등급은 모두 남방지역이고, 세 번째 등급 삼도(三道)는 남방지역에, 사도(四道)는 북방지역에 속하며, 네 번째 등급 가운데 검중도(黔中道)를 제외한 기타 삼도(三道)는 모두 북방지역에 속한다.

상술한 통계 결과는 관리들의 유배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 중당(中唐)이며, 남방은 당나라 관리들의 대표 유배지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남방의 여러 도(道)중에 영남도(嶺南道), 강서남·동도(江南西·東道)와 산남동도(山南東道)는 황폐하고 편벽되어 있어, 관리들을 유배형벌로 처벌하는데 제일 먼저 손꼽는 곳이 되었다. 북방으로 유배된 관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수였다.

당오대(唐五代) 여러 시기, 여러 지역의 유배 관리의 총체적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거친 후, 우리는 당오대 각 조대(朝代)별로 각각 다양한 지역으로 유배된 유배 관리의 지역분포 상황에 대해 다시 고찰하였다. ([표] 2 생략)

[표] 2는 당오대 26조(朝)때 유배된 관리들의 정황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오대 할거(割據)정권의 유배 관리 상황은 당대와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오대(五代)의 연인원 223명을 빼고, 당대(唐代) 21조(朝) 289년 중에 성명·지역을 고증할 수 있는 유배관리의 총수는 2,456명에 달하며, 그 평균을 구해보면 연평균 8.5명이다. 다시 이 평균수와 상술한 여러 조대에서 조정 관리가 되는 시기·년간 유배 관리의 수로써 대조 환산해보면, 연간 유배 관리의 수에 있어 새로운 서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즉, 헌종조(憲宗朝: 17.3명)·문종조(文宗朝: 15.9명)·현종조(玄宗朝: 9.5명)·선종조(宣宗朝: 9.0명)·의종조(懿宗朝: 8.4명)·덕종조(德宗朝: 8.2명)·무후조(武后朝: 7.8명)·대종조(代宗朝: 7.1명)·고종조(高宗朝: 4.5명)의 순이다. 말하자면 곧 헌(憲)·문(文)·현(玄)·선(宣) 네 조대에서는 연평균 유배되었던 관리의 수가 아홉 조대 평균수보다 모두 상위에 있고, 헌종(憲宗) 한 조대에서는 14.5년간 유배 관리가 연인원 251명, 연평균 17.3명으로 당대에서 평균수보다 배 이상 높으며,

아홉 조대의 평균수보다 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 가장 우위를 차지한다.

더 나아가 보자면, 각 조대에서 유배되었던 관리의 분포지역 또한 차이가 있다. 초당의 태종(太宗)·고종(高宗)·무후(武后)·중종(中宗)조에는 유배지가 주로 영남 지역 위주였다. 성당 현종(玄宗) 한 조대에 영남으로 유배된 사람은 71명에 달해<sup>6)</sup>, 다른 지역을 한참이나 앞선다. 그러나 덕(德)·헌(憲)·목(穆)·경(敬) 조대에는 영남도(嶺南道)가 계속해서 수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빼고도, 강남서도(江南西道)로 유배되어지는 사람들 역시 많은 수를 차지한다. 만당(晩唐)에 들어서면, 문종(文宗)·선종(宣宗)·의종(懿宗)·희종(僖宗)·소종(昭宗)조대에서 유배되었던 관리는 영남도가 여전히 많았고, 기타 강남도(江南西)·동도(東道) 및 산남동도(山南東道) 혹은 경기도(都畿道)·하남도(河南道)도 많아져 중당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인다.

앞에서 배열한 두 표를 토대로 삼아, 우리는 당오대 유배 관리 분포지역을 주(州)·부(府)로까지 더 세분화시켜, 각 도(道)가 관리하는 주(州)·부(府)로 유배된 관리수를 통계 내었다.([표] 3 생략)

[표] 3은 당오대 십오도(十五道) 299개 주(州)·부(府)의 유배관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유배 관리가 거쳐 간 주(州)·부(府)의 숫자에 근거하여, 각 도(道)를 아래와 같이 배열한다.

영남도嶺南道(50)·검남도劍南道(32)·하남도河南道(26)·하북도河北道(24)·하동도河東道(22)·강남서도江南西道(20)·강남동도江南東道(19)·관내도關內道(19)·검중도黔中道(17)·산남동도山南東道(16)·산남서도山南西道(15)·회남도淮南道(14)·농우도隴右道(14)·도기도都畿道(6)·경기도京畿道(5).

이에 따르면, 당오대 유배 관리들이 분포한 지역은 매우 넓으며, 그중 특히 영남도(嶺南道)·검남도(劍南道)가 관할하는 주(州)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다시 남북방 각 도(道)의 유배관리의 연인원의 많고 적음에 의거하여, 그 관할 주(州) 유배관리의 연인원에 대하여 통계를 냈다. 이를 통해 각 구체적인 지역이 유배관리와의 밀접한 관련 정도를 이해하고, 다른 시기의 동태적인 발전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몇몇 규칙성을 총결하고자 한다.

6) 이 통계수치는 유배지를 ‘영남(嶺南)’·‘남예(南裔)’·‘남방(南方)’·‘영외(嶺外)’ 및 ‘영표(嶺表)’로 하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첫째, 유배된 관리가 연인원 20명 이상인 주(州)는 당오대 유배관리가 가장 집중되어 있고 가장 중시할만한 지역이다. 그 중 영남도(嶺南道)의 애주(崖州)·단주(端州)·계주(桂州)·순주(循州), 강남서도(江南西道)의 요주(饒州)·건주(虔州)·연주(連州)·침주(郴州)·담주(潭州)·무주(撫州)·영주(永州)·예주(澧州)·원주(袁州)·낭주(朗州), 강남동도(江南東道)의 목주(睦州), 산남동도(山南東道)의 형주(荊州)·상주(商州)·기주(夔州), 산남서도(山南西道)의 양주(梁州), 회남도(淮南道)의 양주(揚州)는 대부분 황폐하고 궁핍하여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남방으로 관리를 유배할 때 일순위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 유배 관리의 총수는 508명으로, 남방으로 유배된 관리 총수(연인원 1,995명)의 25.46%를 점하고 있다. 당오대 유배 관리의 총수(2,828명)의 17.96%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오대 유배 관리와 지역관계의 연구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북방지역의 여러 도(道) 중 유배 관리가 20명이상인 주(州)는 조금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하남도(河南道)의 등주(登州)·도기도(都畿道)의 낙양(洛陽)·함주(陝州)·하남부(河南府), 하동도(河東道)의 포주(蒲州), 경기도(京畿道)의 화주(華州)·동주(同州)·경조부(京兆府)·기주(岐州)등은 대부분 장안(長安)과 가까워, 생활조건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편이다. 그러나 유배 관리의 숫자로 보자면, 총수가 294명으로 북방지역으로 유배된 관리의 총수(822명)의 35.77%를 차지하며, 당오대 유배 관리의 10.4%를 차지한다. 그 중요성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둘째, 남방지역의 여러 도(道) 가운데, 영남도(嶺南道)·강남서도(江南西道)가 관할하는 여러 주(州)는 가장 중시할 만하다. 유배관리가 연인원 10명이상인 주(州)를 계산해보면, 영남도가 19개 총 319명의 유배 관리가 있어서, 이 두 도(道) 유배 관리의 총 연인원수(838명)의 38.07%를 차지하며, 당오대 유배관리 총수의 11.28%를 차지한다. 강남서도(江南西道)는 20개 총 402명의 유배관리가 있어서, 이 두 도(道)로 유배된 관리의 47.97%를 차지하며, 당오대(唐五代) 유배관리 총수의 14.21%를 차지한다. 양자를 서로 더하면, 총 721명의 유배관리가 있어 당오대 유배관리 수의 25.5%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십분의 삼에 가까운 당오대 유배관리들이 모두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살펴보면, 강남서도(江南西道)는 비록 유배관리의 총수량에 있어서는 영남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후자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유

배관리가 50州에 있다)있어, 각 주(州) 평균은 8.72명이 된다. 전자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집중(유배관리가 20州에 있다)되어 있기 때문에, 매 주(州) 평균은 연인원 20.1명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 주(州)의 유배 관리 수는 모두 영남도와 관련된 주(州)보다 훨씬 많은 수를 나타낸다. 이점은 당오대 유배 관리사(貶官吏)에 있어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부 주(州)는 일정기간 유배 관리사 상 비교적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초당 시기, 검남도(劍南道)의 휴주(舊州)는 유배 관리가 가장 많았으나, 중당에 이르러, 상황이 크게 변한다.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고, 몇몇 주(州)가 유배된 관리들이 가장 자주 “찾아 주는” 곳이 된다. 비교적 두드러지는 곳은 강남서도(江南西道)의 요주饒州(12)·연주連州(16)·건주虔州(17)·영주永州(14)·도주道州(12)·담주潭州(10)·침주郴州(11)·길주吉州(11), 영남도(嶺南道)의 애주崖州(14)·소주韶州(10)·뢰주雷州(10)·단주端州(9)이다. 중당 시기와 비교할 때, 만당은 몇몇 지역에서 변화를 찾을 수 없지만, 이전과 달라진 유배지는 경기도(京畿道)의 화주華州(20)·동주同州(9)가 있다.

당오대(唐五代) 340여 년간의 유배 관리의 상황을 총괄해보면, 각 시기 각 지역 간에 전반적으로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비록 절대수량에서 보자면, 중당(中唐)시기와 영남도(嶺南道)·강남서도(江南西道) 등지의 연인원 유배관리 수가 가장 많아 중시될 만하지만, 이는 결코 기타 시기 기타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각 시대 각 지역은 모두 그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당시 정치 문화와 관련하여 발굴과 이용의 가치가 있으며, 유배관리의 생존 상태와 관련한 대량의 자료적 의미를 가진다. 이들 자료를 진지하게 분석 연구한다면, 당오대 유배관리의 전체 연구와 개별연구를 확대 심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제2세션

## 아마미에 유배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츠하 다카시 (류큐대학 명예교수)



## 奄美に流された西郷隆盛

津波 高志（琉球大学名誉教授）

### 1. はじめに

西郷隆盛（さいごうたかもり）は1827年薩摩藩（現在の鹿児島県）の下級武士の家に生まれ、後に江戸幕府を倒す倒幕軍の総指揮官になり、1868（明治元）年江戸城を無血開城させたことで有名である。1871（明治4）年から1873（明治6）年までの2ヶ年間、明治政府の首班を務めた。その間、諸種の改革を行ったが、当時の朝鮮王国との国交回復問題で政府内に対立が生じ、それが原因で政府を辞し、鹿児島に戻った。1877（明治10）年、新政府に不満を抱く旧薩摩藩の下級武士たちとともに挙兵して敗れ、49歳でこの世を去った。

日本の中学校や高等学校の歴史教科書では、西郷は明治新政府内で征韓論を唱え、それが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ために下野したとされている。しかし、それとはまったく逆に、西郷は軍隊を使わずに、外交交渉するための大使派遣論を主張したとする説もある<sup>1)</sup>。いずれにしても、江戸時代末期から明治初期にかけての激動期の日本史に登場する著名な人物である。

西郷は30代の一時期、奄美に流された。本発表では、日本史におけるいわば表舞台の西郷ではなく、奄美における流配の身の西郷について取り上げたい。そこでの生活およびそこ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報告したい。

ちなみに、本発表では、濟州島のように数多くの知識人が流配された事例を扱うわけではない。私が知る限り、濟州島のような流配の島は日本では見当たらない。本発表のように特定の個人的な事例を拾い上げていくしかないようである。

---

1) 本部廣哲『西郷隆盛－沖永良部島の南洲塾－』（海風社、1996）。

## 2. 流配地

西郷は1862年から1864年まで約1年半、薩摩藩主の父親である島津久光の怒りに触れ、奄美に流された。ただし、「奄美」という言い方は大雑把なので、まず、それに関して若干の説明をしておきたい。

「奄美」は正確に言えば、「奄美諸島」のことである。奄美諸島は八つの有人島からなり、今日の行政区分では鹿児島県大島郡である（地図1参照）。もともとは琉球王国の版図に入っていたが、1609年薩摩の侵略によって薩摩藩の直轄領になった。西郷が流されたのは、そのうちの沖永良部島（おきえらぶじま）である（地図1・地図2参照）。

西郷の流配は奄美諸島が薩摩藩の直轄領になってから250年余り後のことである。当時、薩摩藩から派遣された沖永良部島の代官は奄美諸島最南端の与論島まで管轄していた<sup>2)</sup>。したがって、薩摩藩からすれば、藩内におけるもっとも南の果てに西郷を閉じ込めた、という感覚であったと思われる。

## 3. 島での生活

当初、西郷は壁のない吹きさらしの牢獄に、役人二人の厳しい監視付きで、4ヶ月間閉じ込められていた（そこは復元されて観光名所の一つになっている。写真1・写真2参照）。しかし、そこでは健康上の問題があるので、島の横目（よこめ・今日の警察官に相当）の土持正照（つちもちまさてる）が代官（だいかん・藩から派遣された最高の支配者）と相談して、自身で新しく建てた家の牢座敷（家屋内の牢獄）に移した。そこでは監視も緩やかで、比較的自由のきく生活が送れた<sup>3)</sup>。

西郷は牢獄の中でも学問に励み、思索に耽った。その結果、感得し到達した思想が「敬天愛人」である。その核心は、人間個人としては天意に従い、我見我欲を離れること、また社会的には天理に従って人民を愛護することであった<sup>4)</sup>。牢屋の前に建てられた「敬天愛人」の碑の案内板には、その思想が「本島発展の基をなしている」と説明されている（写真3・写真4参照）。

西郷は私塾を開き、土持正照を始め、20人ほどの少年達も教育した。牢獄の案内板によれば、西郷は牢獄の中、教えを受ける少年達は牢獄の外に座した。特に土持には「政治は愛である。故に為政者は愛を以て人民にのぞまねばならぬ」と説いて

2) 与論町誌編集委員会『与論町誌』（1988）。

3) 先田光演『沖永良部島の歴史』（1987）。

4) 上田滋『西郷隆盛の思想—道義を貫いた男の心の軌跡—』（PHP研究所、1990）。

、座右の銘を書いて与えた。それが「与人役大体」と「横目役大体」である<sup>5)</sup>。

「与人（よひと）」とは、現在の村長（韓国の面長）であり、「与人役大体」には与人の心得が書かれている。それでは次のように教えている。

人民のしあわせ、ふしあわせは上に立つ役人がよいか、悪いかによって決まるものである。役人がよければ百姓みんながしあわせになるが、役人が悪ければ、その害は台風や日でりよりもひどく、人民を苦しめ、不幸にするものである。

まずよい役人とは、第一に百姓をかわいがり、百姓の喜びを自分の喜びと考え、百姓のふしあわせは、自分のふしあわせと考えて仕事をする役人である。

次に、よい役人とは、自分のための欲を持たない役人である。

次に、たとえ代官の命令でも、まず百姓のためになるかどうか考え、百姓をいためるようなことは絶対にしない役人である<sup>6)</sup>。

また、「横目役大体」では「罪人を罰するよりも、罪人が出ないように人民を指導せよ」と教えている<sup>7)</sup>。

さらに、西郷は「社倉趣意書」と題して、飢饉への備えについても自ら書いて土持に渡している。大まかな内容は、豊作の年に米など蓄え、飢饉に備えること、またその蓄えを貸し付け、その利息を百姓の福利厚生に当てるとするもので、その組織が「社倉（しゃそう）」であった<sup>8)</sup>。

#### 4. 島への影響

西郷の思想と教育は土持を始め、塾の少年達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土持は後に与人になり、少年達は成人して島の指導者になった。そして、島の振興発展に大きく貢献した。

和泊西郷南洲顕彰会『えらぶの西郷さん』（1988）によれば、明治以降の島における政治家や教育者は全てが西郷の弟子達であ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ないほどであった。

西郷の思想と教育が具体的に実践され、実を結んだのが社倉である。西郷が島を

5) 昇 曙夢『奄美大島と大西郷』（春陽社、1927）。

6) 和泊西郷南洲顕彰会『えらぶの西郷さん』（1988）。

7) 和泊西郷南洲顕彰会『えらぶの西郷さん』（1988）。

8) 昇 曙夢『奄美大島と大西郷』（春陽社、1927）。

去ってから約6年後の1870（明治3）年、土持を中心に沖永良部社倉が結成された。それは「飢饉の年に人びとを助けたばかりでなく、貧乏な人びとを助けたり、病院をたてたり、学資に困っている人びとを助けたりして、たいへん大きな働き」をしたのであった<sup>9)</sup>。

1899（明治32）年、沖永良部社倉は解散した。そのとき、多くの金が残っていた。その中から、1500円は「西郷隆盛謫居之地」の記念碑と「南洲文庫」を建てる費用に、500円は「土持正照翁彰徳碑」を建てる費用に寄付した。残りは島内の和泊村（わどまりそん）と知名村（ちなそん）に半分ずつ分け、両村の大事な基金になった<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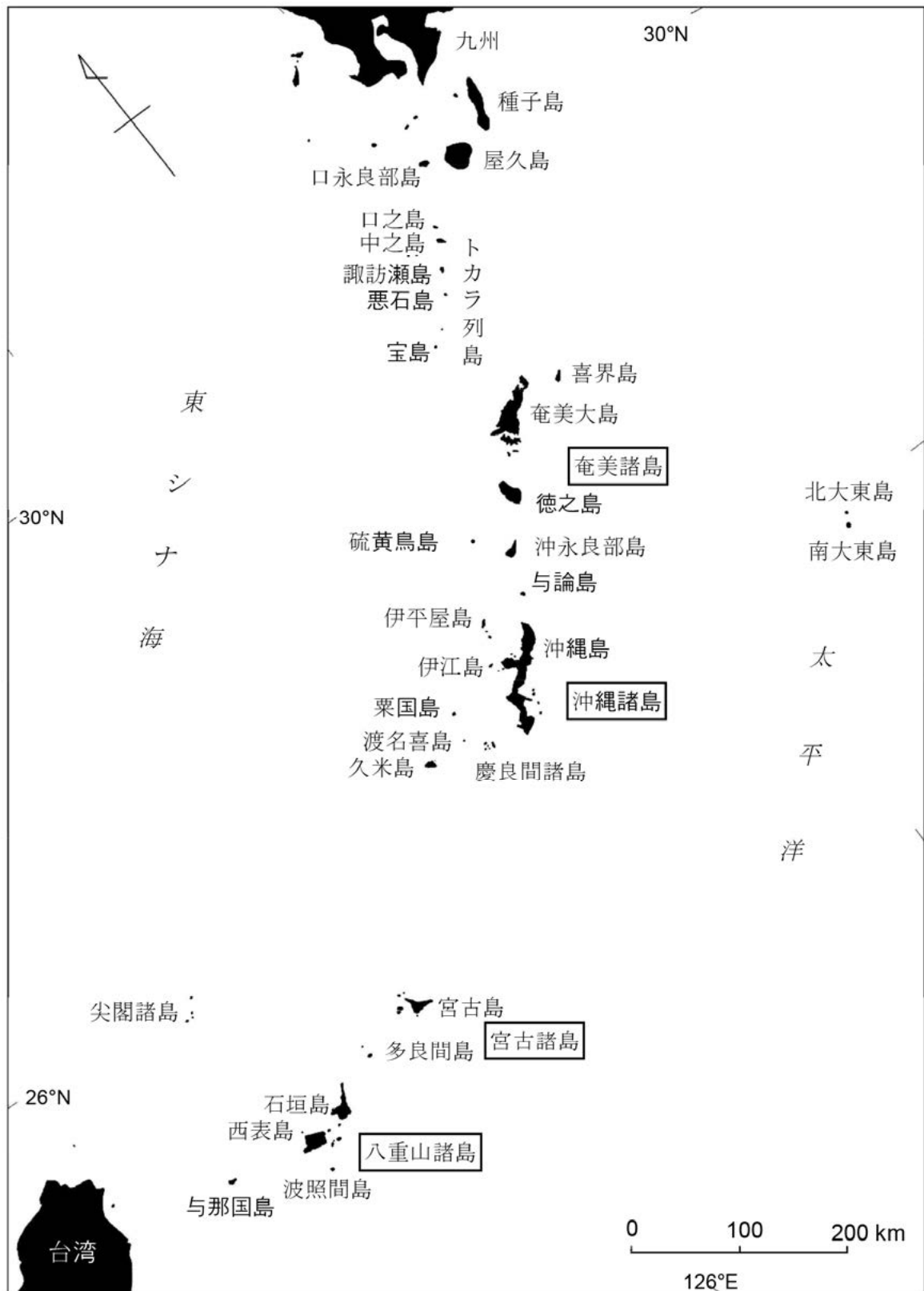
その後、島民達は西郷南洲（なんしゅう・西郷の雅号）に感謝し、偲ぶために1903（明治35）年、南洲神社を建立した（写真5参照）。その境内には西郷文庫も設置されている。

西郷隆盛の島内における足跡は上陸地点から全て史跡に指定されている（写真6・写真7参照）。と同時に、それらは全て観光地になっている。つまり、観光資源にもなっているのである。それも今日的な意義として注目すべき点で、決して看過してはならないであろ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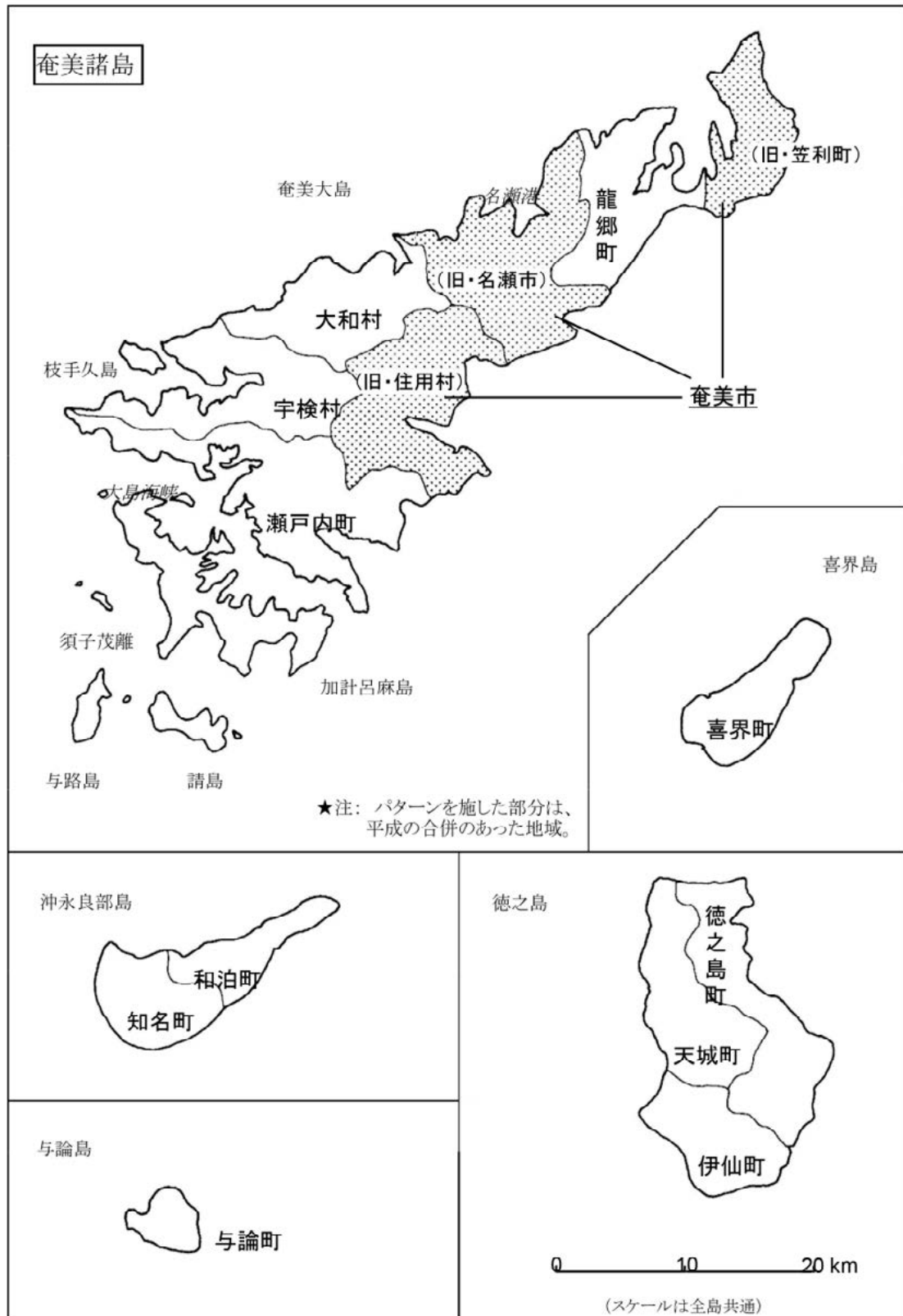
---

9) 和泊西郷南洲顕彰会『えらぶの西郷さん』（1988）。

10) 和泊西郷南洲顕彰会『えらぶの西郷さん』（1988）。



<地図 1 琉球弧の島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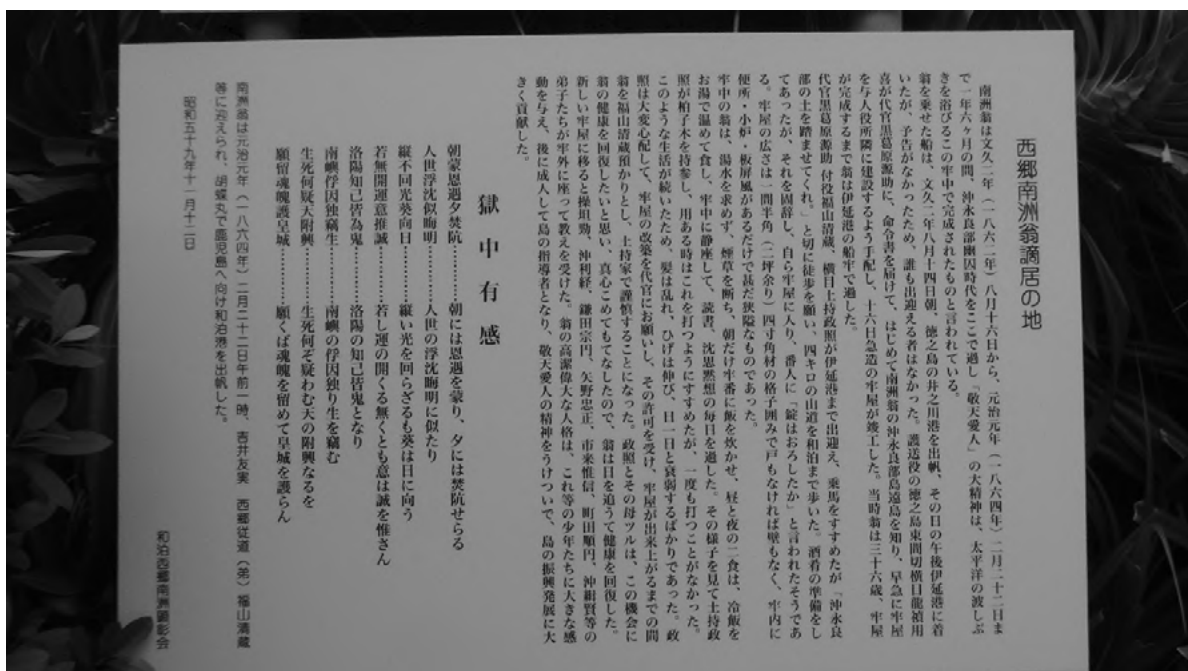


<地図 2 奄美諸島の市町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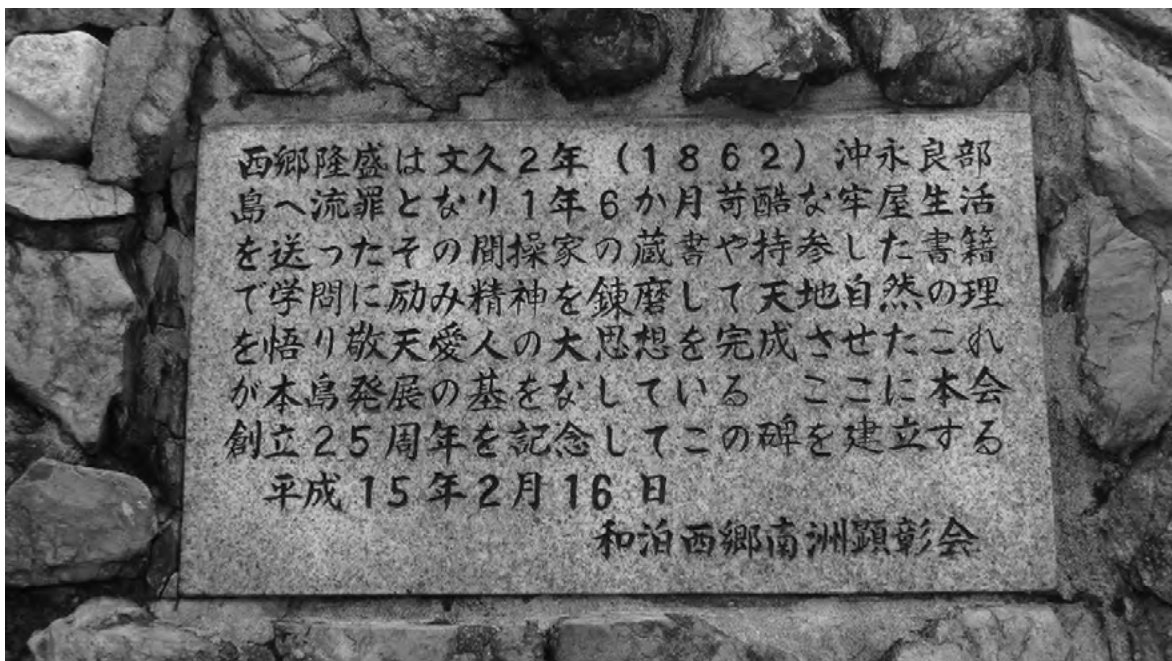
<写真1 吹きさらしの牢>



<写真2 牢の案内板>



<写真3 敬天愛人の碑>



<写真4 敬天愛人碑の案内板>



<写真5 南洲神社>



<写真6 上陸の地記念碑>



<写真7 上陸の地説明板>

#### 附記

本稿で用いた写真7枚は全て沖永良部島和泊町文化課職員の北野堪重朗氏に提供して頂いた。記して感謝申し上げる次第である。

## 아마미에 유배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츠하 다카시(류큐대학 명예교수)

### 1. 들어가며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는 1827년 사츠마번(현재의 가고시마현)의 하급 무사의 집에서 태어났고, 후에 에도 막부를 쓰러뜨린 막부 타도군의 총지휘관이 되었으며, 1868년(메이지 원년) 에도성(江戸城)을 무혈 개성(開城)한 것으로 유명하다. 1871(메이지 4)년 부터 1873(메이지 6)년까지 2년간 메이지 정부의 수장을 지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개혁을 행했으나, 당시의 조선 왕국과의 국교 회복 문제로 정부 내에 갈등을 빚어 그 원인으로 정부를 떠나 가고시마(鹿児島)에 돌아왔다. 1877(메이지 10)년 신정부에 불만을 품고 옛 사츠마번의 하급 무사들과 함께 거병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49세로 세상을 떠났다.

일본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사이고는 메이지 신정부 내에서 정한론(征韓論)을 주창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로, 사이고는 군대를 이용하지 않고 외교 협상하기 위해 대사 파견론을 주장했다는 설도 있다<sup>1)</sup>. 어쨌든 에도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격동기의 일본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다.

사이고는 30대의 한 시기 아마미에 유배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사에서 이른바 정식 무대의 사이고가 아니라, 아마미에서 유배 몸의 사이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다. 그곳의 생활 및 거기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보고하려고 한다.

참고로 본 발표에서는 제주도처럼 수많은 지식인이 유배된 사례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한, 제주도와 같은 유배의 섬은 일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본 발표처럼 특정 개인적인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1) 本部廣哲 『西郷隆盛－沖永良部島の南洲塾－』 (海風社, 1996)

## 2. 유배지

사이고는 1862년부터 1864년까지 약 1년 반, 사츠마번 영주의 아버지인 시마즈 히사미츠(島津久光)의 노여움을 사서 아마미에 유배되었다. 단 「아마미(奄美)」이라는 표현은 조잡하여 우선 그것에 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싶다.

「아마미」는 정확히 말하면, 「아마미 제도(奄美諸島)」라는 것이다. 아마미 제도는 8개의 유인도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날 행정 구분으로는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오시마군(大島郡)이다(지도 1 참조). 원래 류큐 왕국의 판도에 들어 있었는데, 1609년 사츠마의 침략으로 사츠마번의 직할령이 되었다. 사이고가 유배된 곳은 그 중 오키에라부지마(沖永良部島)이다(지도 1 · 지도 2 참조).

사이고의 유배는 아마미 제도가 사츠마번의 직할령이 되어서 250여년 후의 일이다. 당시 사츠마번에서 파견된 오키에라부지마의 대관은 아마미 제도 최남단의 요론섬(与論島)까지 관할하고 있었다<sup>2)</sup>. 그래서 사츠마번에서 보면 번(藩) 내에서 가장 남쪽 끝에 사이고를 가두었다는 감각이었다고 생각된다.

## 3. 섬에서의 생활

당초 사이고는 벽 없는 노천 감옥에서 관리 두 사람의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4개월간 갇혀 있었다(그곳은 복원되어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다. 사진 1· 사진 2 참조). 그러나 그곳에서는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섬의 관리(요코메, 오늘날 경찰관에 해당)의 츠치모치 마사테루(土持正照)가 대관(代官, 번에서 파견된 최고의 지배자)과 상의하여 자신이 새로 지은 집의 감옥 사랑채(가옥 내의 감옥)로 옮겼다. 거기에서는 감시도 느슨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sup>3)</sup>.

사이고는 옥중에서도 학문과 사색에 빠졌다. 그 결과 깨달아 도달한 사상이 「경천애인(敬天愛人)」이다. 그 핵심은 인간 개인으로서는 천의(天意)에 따라 자신의 야욕을 버리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는 천리(天理)에 따라 인민을 애호하는 것이었다<sup>4)</sup>. 감옥 앞에 세워진 「경천애인」 비석의 안내판에는 그 사상이 「본섬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사진 3 · 사진 4 참조).

2) 与論町誌編集委員会 『与論町誌』 (1988)

3) 先田光演 『沖永良部島の歴史』 (1987)

4) 上田滋 『西郷隆盛の思想一道義を貫いた男の心の軌跡一』 (PHP研究所, 1990)

사이고는 사숙을 열고 츠치모치 마사테루를 비롯하여 20명가량의 소년들도 교육시켰다. 감옥의 안내판에 따르면 사이고는 옥중에서 가르침을 받는 소년들은 감옥 밖에 앉았다. 특히 츠치모치에게는 「정치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은 사랑으로 인민에게 기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교하고, 좌우명을 써서 주었다. 그것이 「여인역대체(與人役大體)」와 「횡목역대체(横目役大體)」이다<sup>5)</sup>.

「여인(與人)」이란 현재의 촌장(한국의 면장)이며, 「여인역대체(與人役大體)」에는 여인의 마음가짐이 써져 있다. 즉,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인민의 행복, 불행은 위에 있는 관리가 좋은지 나쁜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관리가 좋으면 백성 모두가 행복해지지만, 관리가 나쁘면 그 해는 태풍과 가뭄이 보다 심하여 인민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든다.

우선 좋은 관리는 첫째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백성의 불행은 자신의 불행으로 생각하며 일을 하는 관리들이다.

다음으로 좋은 관리는 자신을 위한 욕심을 갖지 않는 관리이다.

다음으로 설사 대관의 명령이라도 먼저 백성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절대로 안하는 관리이다<sup>6)</sup>.

또한 「횡목역대체(横目役大體)」에서는 「죄인을 벌하기보다 죄인이 나오지 않도록 인민을 지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sup>7)</sup>.

더욱 사이고는 「사창 취의서(社倉趣意書)」라는 제목으로 기근의 대비에 대해서도 스스로 써서 츠치모치에게 주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풍년에 쌀 등을 비축하여 기근에 대비하기, 또 그 비축을 빌려줘서 그 이자를 백성의 복리 후생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 조직이 「사창」이었다<sup>8)</sup>.

#### 4. 섬의 영향

사이고의 사상과 교육은 츠치모치를 비롯, 학원 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츠치모치는 나중에 관리[與人]가 되었고, 소년들은 자라서 섬의 지도자가 되었다.

5) 昇曙夢 『奄美大島と大西郷』(春陽社, 1927)

6) 和泊西郷南洲顕彰会 『えらぶの西郷さん』(1988)

7) 和泊西郷南洲顕彰会 『えらぶの西郷さん』(1988)

8) 昇曙夢 『奄美大島と大西郷』(春陽社, 1927)

다. 그리고 섬의 진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와도마리 사이고 난슈 현창회(和泊西郷南洲顕彰会)『에라부의 사이고 씨(えらぶの西郷さん)』(1988)에 의하면, 메이지 이후의 섬에서 정치인이나 교육자는 모두 사이고의 제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사이고의 사상과 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결실을 맺은 것이 사창(社倉)이다. 사이고가 섬을 떠난 지 약 6년 후 1870(메이지 3)년, 츠치모치를 중심으로 오키노에라부 사창이 결성되었다. 그것은「기근의 해에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학자금이 궁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매우 큰 기능」을 했던 것이다<sup>9)</sup>.

1899(메이지 32)년, 오키노에라부 사창은 해산되었다. 그때 많은 돈이 남아 있었다. 그 중 1500엔은「사이고 다카모리 적거지」의 기념비와「난슈(南洲)문고」를 세울 비용으로, 500엔은「츠치모치 마사테루 옹 창덕비」를 세울 비용으로 기부했다. 나머지는 섬 내의 와도마리 마을(和泊村)과 치나 마을(知名村)에 각각 절반씩 나눠 두 마을의 중요한 기금이 되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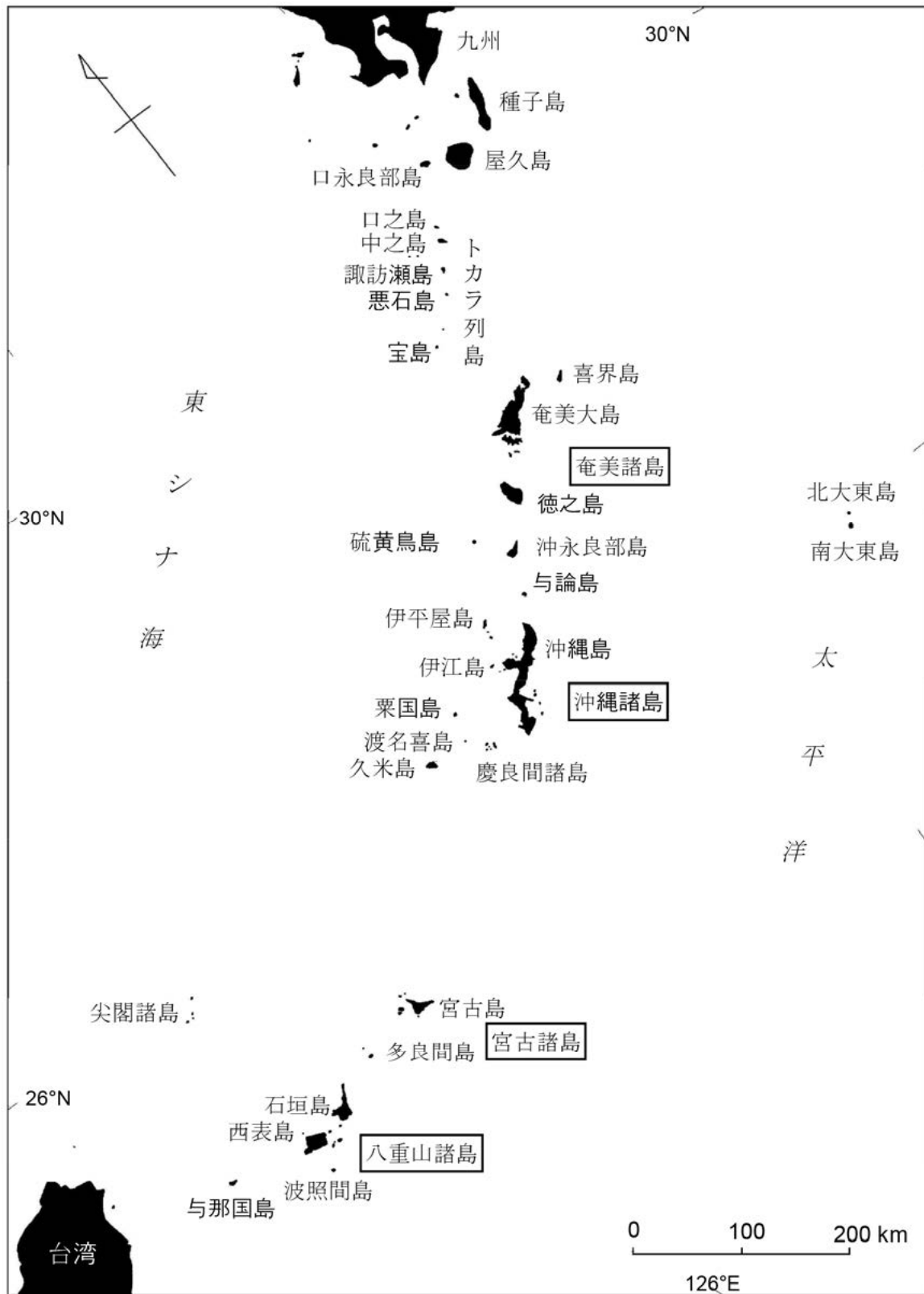
그 뒤 주민들은 사이고 난슈(西郷南洲, 사이고의 아호)에게 감사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1903(메이지 35)년 난슈 신사를 건립했다(사진 5 참조). 그 경내에는 사이고 문고도 설치되어 있다.

사이고 다카모리의 섬 내의 발자취는 상륙 지점부터 전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사진 6 · 사진 7 참조). 동시에 그것들은 전부 관광지로 되어 있다. 즉, 관광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현대적인 의의로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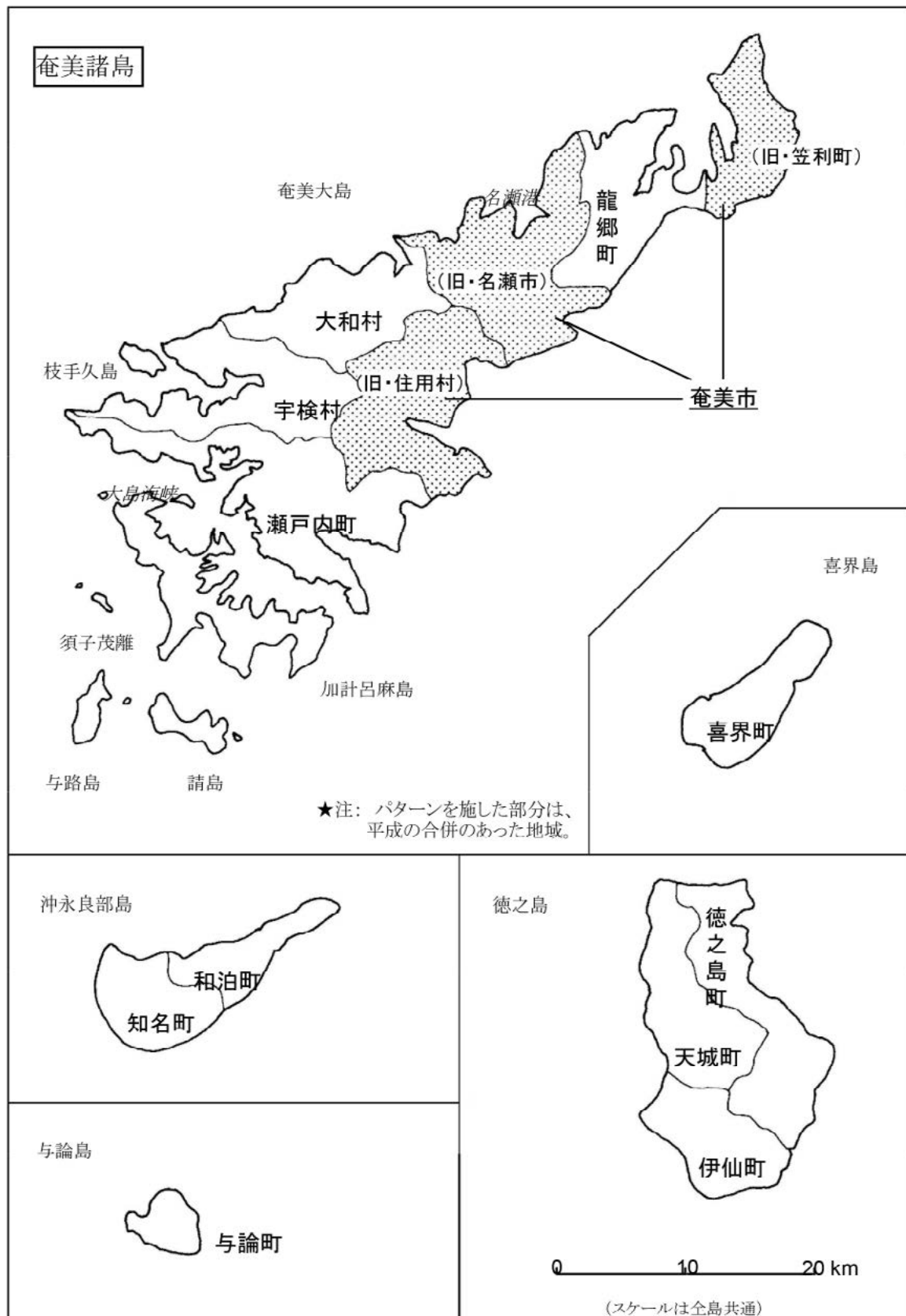
9) 和泊西郷南洲顕彰会 『えらぶの西郷さん』 (1988)

10) 和泊西郷南洲顕彰会 『えらぶの西郷さん』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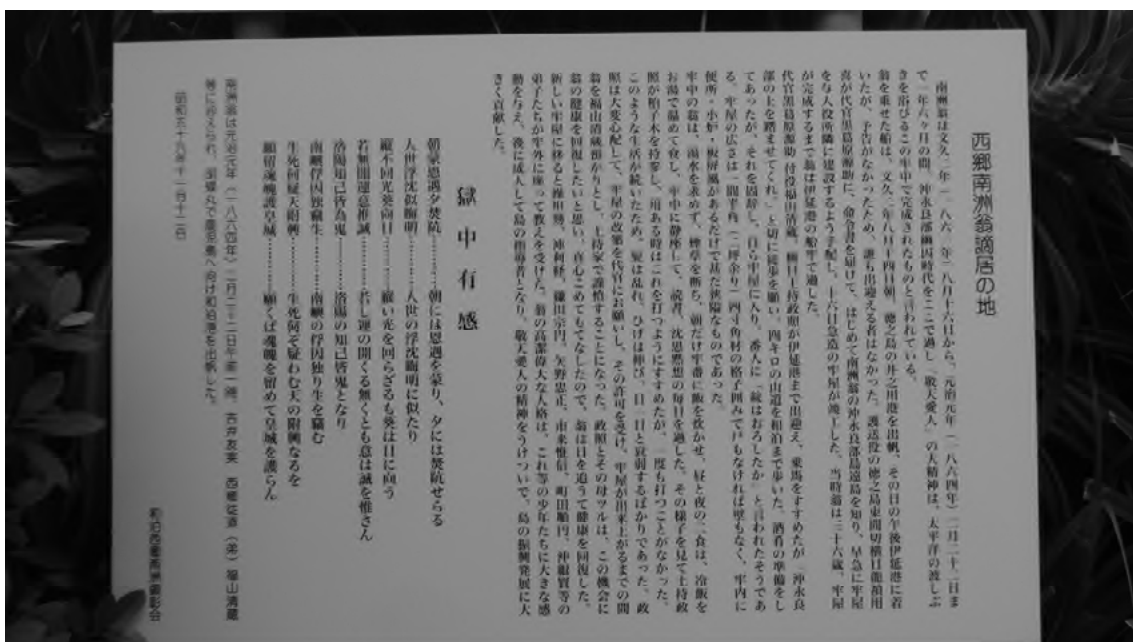
<지도 1> 류큐호(琉球弧)의 섬들



〈지도 2〉 아마미 제도(奄美諸島)의 시정촌(市町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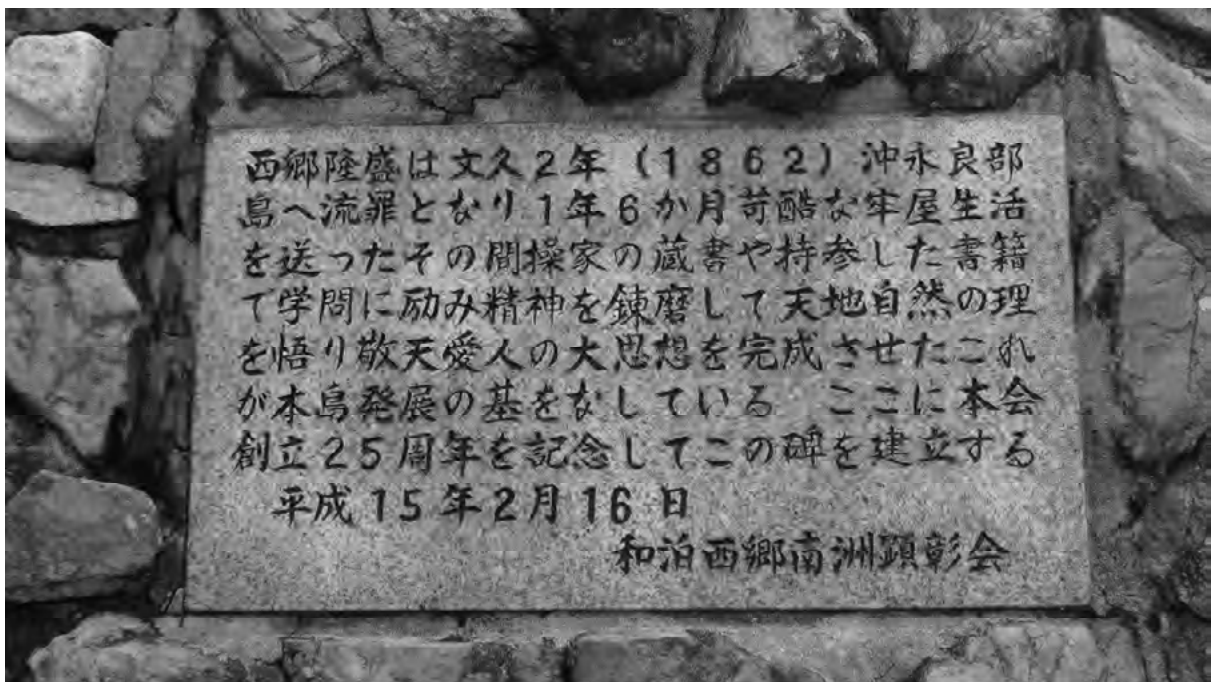
〈사진1〉 노천 감옥



〈사진 2〉 감옥의 안내판



〈사진 3〉 경천애인 비석



〈사진 4〉 경천애인비 안내판



〈사진 5〉 난슈(南洲) 신사



〈사진 6〉 상륙지 기념비



〈사진 7〉 상륙지 설명판

#### \* 부기

본고에서 사용한 사진 7장은 전부 오키에라부지마 와도마리쵸 문화과 직원 北野堪重朗 씨가 제공하여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제2세션

## 당송시기 유배지 치엔저우에 대한 약술

주앙이원 (사천사범대학교 문학원, 중국)





# 略论唐宋时代的流放地黔州

(四川师范大学文学院 庄逸云)

## 당송시기 유배지 치엔저우에 대한 약술 略論唐宋時代的流放地黔州

중국 사천사범대학교 문학원 주앙이원 교수  
四川師範大學 文學院 莊逸雲

## 一、黔州沿革及其地理位置

### ❖ 黔州沿革

唐代：

- 1、北周武帝保定四年（564年），设奉州。
- 2、北周武帝建德三年（574年）改奉州为黔州
- 3、隋开皇十三年（593年）设彭水县，为黔州治所。后隋炀帝改为黔安郡，但唐高祖武德元年（618年）复改为黔州。

## 一. 치엔저우(黔州) 연혁 및 그 지리적 위치

### ❖ 치엔저우 연혁

당대(唐代)：

1. 북주(北周) 무제 보장(武帝 保定)4년(564), 평저우(奉州) 설치.
2. 북주 무제 건덕(建德)3년(574), 평저우를 치엔저우로 개칭.
3. 수(隋) 개황(开皇)13년(593), 평수이(彭水)현(縣) 설치, 치엔저우의 지방관청으로 지정. 이후 수양제가 치엔저우 군(郡)으로 칭하였으나, 당 고조(高祖) 무덕원년(武德元年, 618) 다시 치엔저우로 고침.

4、唐太宗贞观元年（627年），在全国设十道，形成道、州、县三级制。  
黔州隶属于江南道。

5、唐玄宗开元二十一年（733年），分十道为十五道，其中江南道分置  
江南东道、江南西道、黔中道。黔州属于黔中道。

6、唐大历十二年（777年），设置黔州观察使，治所在黔州。大顺元年  
（890年）建号武泰军节度使。

唐代黔州辖六县：彭水、黔江、洪杜、洋水、信宁、都濡。大致包括  
今天的彭水、酉阳、黔江、武隆等地。

4. 당 태종(太宗) 정관원년(貞觀元年, 627), 전국에 십도(十道)를 설치하여,  
도·주·현(道·州·縣) 삼급제(三級制)를 구성. 치엔저우는 장난도(江南  
道)에 예속됨.

5. 당 현종 개원(玄宗 開元) 21년(733), 십도를 십오도(十五道)로 나누고 그 중  
장난도(江南道)를 장난 동도·장난 서도·치엔 중도(江南東道·江南西  
道·黔中道)로 나눠 설치. 치엔저우는 그 중 치엔중도에 예속됨.

6. 당 대력(大歷) 12년(777), 치엔저우 관찰사(觀察使)를 두고, 치엔저우를  
다스림. 대순원년(大順元年, 890)에 무태군절도사(武泰軍節度使)를 세움.

당대 치엔저우는 6현(縣)으로 분할: 평수이(彭水)·치엔장(黔江)·홍두(洪  
杜)·양수이(洋水)·신닝(信寧)·뚜루(都濡).

대략 지금의 평수이(彭水)·여우양(酉陽)·치엔장(黔江)·우룽(武隆) 등지를  
포함.



## 宋代:

7、北宋至道三年（997年），设全国为十五路，后又分别析为十八路、二十三路。黔州先后隶属峡西路、夔州路。

8、南宋绍定元年（1228年），黔州升为绍庆府，辖彭水黔江二县，领羁縻州49个。

## 송대(宋代):

7. 송 지도(至道)3년(997), 전국에 십오로(十五路)를 설치, 후에 십팔로・이십삼로(十八路・二十三路)로 나뉨. 치엔저우는 연이어 시아시로・쿠우저우로(峡西路・、夔州路)로 예측됨.

8. 남송 소정원년(紹定元年, 1228), 치엔저우는 샤오칭부(紹慶府)로 승격되어, 평수이・치엔장 2현으로 분할되었으며, 속주(羈縻州) 49개를 거느림.



## ❖ 黔州，其治所即今重庆市彭水县

1. 彭水县境，商至春秋属巴国，秦属黔中郡。西汉建元初（前140年），置涪陵县，治所在今彭水郁山镇。东汉建安六年（201年），析涪陵县地置涪陵、永宁、信安、汉葭4县。北周保定四年，废涪陵等县，置奉州。建德三年，改奉州为黔州。隋开皇十三年（593年），置彭水县，隶属黔州。南宋绍定元年，隶属绍庆府。

## ❖ 치엔저우 지방관청은 지금의 충칭시(重慶市) 평수이현(彭水縣)

1. 평수이현 경계는 상(商)에서 춘추(春秋)시대까지 파국(巴国)에 속하며, 진(秦) 때는 치엔중부(黔中郡)에 속함.
  - 서한(西漢) 건원초(建元初, B. C140), 푸링현(涪陵縣)을 설치하고 그 관청을 지금의 평수이 위산진(鬱山鎮)에 둠.
  - 동한(東漢) 건안(建安)6년(201), 푸링현 땅을 나눠 푸링·용녕·신안·한지아(涪陵·永寧·信安·漢葭) 4 현을 설치.
  - 북주 보정(保定) 4년, 푸링 등의 현을 폐지하고, 평저우(奉州) 설치.
  - 건덕(建德) 3년, 평저우를 치엔저우로 개칭.
  - 수(隋) 개황(開皇)13년(593), 평수이현(彭水縣)를 두고, 치엔저우에 예속시킴.
  - 남송(南宋) 소정원년(紹定元年), 소경부(紹慶府)에 예속.



2、明洪武四年（1371年），废绍庆府，彭水县改属重庆府。

3、1984年11月10日，正式挂牌成立彭水苗族土家族自治县。

1997年改属重庆直辖市。

4、彭水县概况：面积3903平方公里，辖3街道18镇18乡，户籍人口约69万人。是以苗族、土家族为主的少数民族自治县。

2. 명(明) 홍무(洪武)4년(1371), 소경부(紹慶府)를 폐지, 평수이현을 충칭부(重慶府)로 다시 예속시킴.

3. 1984년11월10일, 평수이 묘족 토가족 자치현(彭水苗族土家族自治县)으로 정식현판을 걸고 성립. 1997년 충칭직할시(重慶直轄市)로 다시 예속됨.

4. 평수이현 개황: 면적3,903km<sup>2</sup>, 3가도(街道)18진(鎮)18향(鄉)으로 분할되어 있고, 호적상 인구는 약 69만명으로, 묘족·토가족(苗族·土家族) 위주의 소수민족자치구임.





## 지금의 위산진(鬱山鎮)



## 지금의 평수이현성 (彭水縣城)



## 二、黔州是唐宋时期重要的流放地

- ❖ 唐高祖子李元軌和越王通謀，被流放黔州：“越王敗，坐嘗通謀，徙黔州，檻車載至陳倉，薨。（《新唐書本傳》）
- ❖ 唐太宗子李承乾因謀反罪被流放黔州：“會承基連齊王事系獄當死，即上變……廢為庶人，徙黔州。”（《新唐書本傳》）
- ❖ 唐太宗子李明和廢太子李賢通謀，被流放黔州：“永隆中，坐太子賢事，降王零陵，徙黔州。”

## 二. 당송(唐宋)시기 중요 유배지, 치엔저우

- ❖ 당 고조의 아들 이원궤(李元軌)는 월왕(越王)과 함께 획책하다 치엔저우로 유배되었다: “월왕이 패하자, 일찍이 그와 함께 획책을 하여, 치엔저우로 유배되어, 함거에 실려 진창에 이르자, 사망하였다. (越王敗，坐嘗通謀，徙黔州，檻車載至陳倉，薨.)”（《新唐書本傳》）
- ❖ 당 태종의 장자 이승건(李承乾)은 모반죄로 치엔저우로 유배되어 졌다: “호위무사 승기가 제왕 이우와 연계한 일은 옥에서 죽어야 마땅하나, 황제께서 생각이 변하여…서인으로 폐하여, 치엔저우로 유배하였다. (會承基連齊王事系獄當死，即上變……廢爲庶人，徙黔州.)”（《新唐書本傳》）
- ❖ 당 태종의 아들 이명(李明)과 폐태자 이현(李賢)이 함께 획책하여, 치엔저우로 유배되어 졌다: “영릉 년간에 태자 현의 일로 인하여, 영릉왕으로 강등되어, 치엔저우로 유배되었다(永隆中，坐太子賢事，降王零陵，徙黔州.)”



- ❖ 唐高宗子李忠被以谋反罪名流放黔州：“忠寢惧不聊生，至衣妇人衣，备刺客。数有妖梦，尝自占。事露，废为庶人，囚黔州承乾故宅。”  
(《新唐书本传》)
- ❖ 唐大臣长孙无忌被以谋反罪名流放黔州：“遂下诏削官爵封户，以扬州都督一品俸置于黔州，所在发兵护送。”(《新唐书本传》)
- ❖ 高丽国权臣泉男建反唐，事败，被流放黔州：“诏以高藏政不由己，授司平太常伯……男建配流黔州。”(《旧唐书·东夷传》)
- ❖ 宋代文人黄庭坚被责以修史不实的罪名贬谪黔州：“凡有问，皆直辞以对，闻者壮之。贬涪州别驾、黔州安置。”(《宋史本传》)

- ❖ 당 고종의 아들 이충은 모반죄명으로 치엔저우로 유배되어졌다: “충이 점점 살지 못함을 두려워하여, 부녀자 옷을 입고 자객을 준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차례 묘사스러운 꿈을 꾸고, 일찍이 스스로 황위를 차지하려 하였다. 일이 드러나자, 서인으로 패해져, 치엔저우 승건의 고택에 수감되었다.(忠寢懼不聊生, 至衣婦人衣, 備刺客. 數有妖夢, 嘗自占. 事露, 廢爲庶人, 囚黔州承乾故宅).”  
(《新唐書本傳》)
- ❖ 당 대신 장손무기(長孫無忌)는 모반죄명으로 치엔저우로 유배되었었다: “결국 조서를 내려 관직 작위 봉토 호봉을 삭탈하고, 양주도독 일품으로 봉하여 치엔저우로 안치하고, 소재지에 병사를 보내어 호송토록 하였다.(遂下詔削官爵封戶, 以揚州都督一品俸置於黔州, 所在發兵護送.)”(《新唐書本傳》)
- ❖ 고구려의 권신 천남건(泉男建)이 당(唐)을 반대하다, 일이 패하자, 치엔저우로 유배되어졌다 “조서를 내려 고장은 정사를 제 추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 사평태상백을 제수하였다. …… 남건은 치엔저우로 유배된다.(詔以高藏政不由己, 授司平太常伯……男建配流黔州.)”(《舊唐書·東夷傳》)
- ❖ 송대 문인 황정건(黃庭堅)은 사서편찬이 부실하다는 죄명으로 책망받아 치엔저우로 폄적되었다: “무릇 질문이 있으면, 모두 직접적인 말로써 대답하여, 듣는 이들이 그를 용감하다 여겼다. 푸저우별가로 폄적되어 치엔저우로 안치되었다.(凡有問, 皆直辭以對, 聞者壯之. 貶涪州別駕·黔州安置.)”(《宋史本傳》)

643년 唐太宗 李世民的 장자 이승건(李承乾)  
치엔저우로 유배, 645년 적거지에서 죽음



1095-1098년, 황정견(黃庭堅) 치엔저우로 폼적





### 三、黔州作为流放地的特点

#### ■ 一般意义的“边恶之州”

- 1、贞观十四年（640年）“流罪三等，不限以里数，量配边恶之州。”（《旧唐书·刑法志》）

### 三. 유배지로서의 치엔저우의 특징

#### ■ 일반적 의미에서의 “변경의 열악한 주(州)”

1. 정관(貞觀) 14년(640):

“里的 수에 제한되지 않고, 변방 열악한 주(州)로 추측하여 배치한다. (流罪三等，不限以里數，量配邊惡之州.)” （《舊唐書·刑法志》）

## 2、黔州符合“边恶之州”的特征：

(1) 偏远：离京约2500里，远离政治中心。

黄庭坚《竹枝词》：“鬼门关外莫言远，五十三驿是皇州。”“鬼门关外莫言远，四海一家皆兄弟。”

(2) 蛮荒：地理环境恶劣、蛮夷杂居、文化落后。

唐·吕颂《为张侍郎乞入覲表》：“素多瘴疠，山峡重深，毒雾蒸云，常在窗户…出门无路，举目唯山。”黄庭坚《谪居黔南十首》：“苦雨初入梅，瘴云稍含毒”。《梦李白诵竹枝词三叠》“竹竿坡面蛇倒退，摩围山腰胡孙愁。”

## 2. 치엔저우(黔州)는 “변방 열악한 주”의 특징에 부합한다.

(1) 편벽함: 경성(京城)에서 약 2,500리, 정치중심과 멀리 떨어짐.  
黄庭坚《竹枝词》：“귀문관 밖 멀다 말하지 말게, 쉰 세 번째 역을 지나야 京都라네(鬼門關外莫言遠，五十三驛是皇州)”，“귀문관 밖 멀다 말하지 말게, 사해 안이 일가족이니 모두 형제같거늘(鬼門關外莫言遠，四海一家皆兄弟.)”

(2) 낙후함: 지리적 환경이 열악하고, 오랑캐와 섞여 살고 문화적으로 낙후함.

唐·吕颂《爲張侍郎乞入覲表》：“본래부터 역병 많고, 산골짜기는 겹겹이 깊으며, 독안개가 피어올라 구름같이 늘 창문에 머물러 있으니…문을 나서면 길이 없고, 눈을 들어보아도 오직 산 뿐입니다.(素多瘴癘，山峽重深，毒霧蒸雲，常在窗戶…出門無路，舉目唯山.)”

黄庭坚《谪居黔南十首》：“苦雨初入梅，瘴云稍含毒”。

《梦李白诵竹枝词三叠》

“竹竿坡面蛇倒退，摩围山腰胡孙愁。”

据《唐书·南蛮传》等文献记载，以黔州为中心的黔中道聚居了涪陵蛮、五溪，蛮、玕柯蛮等部族。至今彭水仍为苗族土家族自治县。

黄庭坚《谪居黔南十首》：

“곳은 비 처음 장마에 접어들자, 역병 구름 조금 독을 머금고 있네	苦雨初入梅, 瘴云稍含毒.”
------------------------------------------	-------------------

《夢李白誦竹枝詞三疊》

“죽간의 경사면에 뱀은 뒤로 물러나고, 산허리를 싸고 감으며 <胡孫愁>를 읊네	竹竿坡面蛇倒退 摩圍山腰胡孫愁.”
------------------------------------------------	----------------------

《唐書·南蠻傳》등 문헌기록에 근거하면, 치엔저우를 중심으로 하는 치엔중도(黔中道)에는 푸링만(涪陵蠻)、우시(五溪), 만(蠻)、양커만(玕柯蠻) 등의 부족이 모여 산다. 현재까지 핑수이(彭水)는 여전히 묘족 토가족 자치현(苗族土家族自治縣)이다.



## ■ 边恶之州中的“善地

《宋史·黄庭坚传》：“贬涪州别驾，黔州安置。言者犹以处善地为飢法。以亲嫌，遂徙戎州。”

## ■ 변방 열악한 주(州) 중에서는 “좋은 곳(善地)”

《宋史·黄庭坚傳》：“푸저우 별가로 폄적되어, 치엔저우에 안치되었다. 오히려 좋은 곳에 거처하도록 법을 어기었다고 말이 나와, 친혐때문에, 결국 룡저우로 옮겨갔다.(貶涪州別駕, 黔州安置. 言者猶以處善地爲飢法. 以親嫌, 遂徙戎州.)”



## 1、距离：

唐律，流刑三等：分别为二千里、二千五百里、三千里。事实上则“不限以里数，量配边恶之州”。唐代的三大流放地依次为岭南道、黔中道、剑南道。岭南道距离京城的里程，最近者为3700余里，最远者6800余里。黔中道之黔州距离京城的里程则为2500余里。

## 1. 거리

<당율(唐律)>에는 유형(流刑)을 이천 리, 이천오백 리, 삼천리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실상 “리(里)의 수에 제한되지 않고, 변방 열악한 주(州)로 추측하여 배치한다.” 당대(唐代)의 삼대 유배지로는 차례대로 링난도(嶺南道), 치엔중도(黔中道), 지엔난도(劍南道)가 있다. 링난도가 경성에서 떨어져 있는 이정(里程)은 가장 가까운 곳은 3,700여리, 가장 먼곳은 6,800여리이다. 치엔중도(黔中道)의 치엔저우(黔州)가 경성에서 떨어져 있는 이정은 2,500여 리이다.

## 2、交通：

黔中道虽交通闭塞，但黔州一地，水系发达，交通便利。  
乌江为长江支流，郁江又为乌江支流，唐宋时期航路皆畅通  
无阻。柳宗元《黔之驴》谓“黔无驴，有好事者船载以入”  
即为间接证据。

## 3、经济：

盐丹业兴旺

## 2.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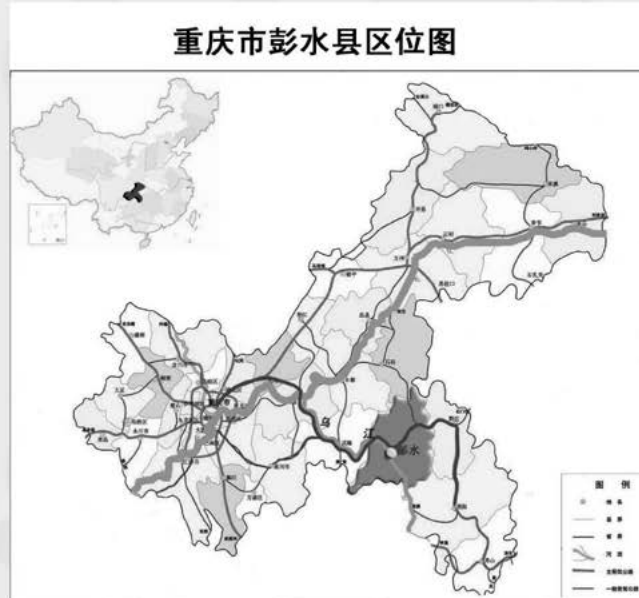
치엔중도(黔中道)는 비록 교통이 불편하나, 치엔저우(黔州)일대는 수계(水系)가 발달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우장(烏江)은 장강(長江)의 지류이고, 위장(鬱江)은 또 우장의 지류로서, 당송(唐宋)시기 항로는 막힘 없이 잘 통하였다.

유종원(柳宗元)《黔之驢》에 이르길: “치엔 지방에는 나귀가 없는 땅인데, 일 만들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배에 싣고 들어왔다.(黔無驢, 有好事者船載以入)”라 하였는데, 즉 이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 3. 경제

염단업(鹽丹業) 왕성한 발전.

## 치엔저우 평수이현(彭水縣)의 우장(乌江) 위장(鬱江) 수계



## 치엔저우 평수이현(彭水縣)의 우장(乌江) 위장(鬱江) 수계





## ■ 黔州的盐丹业

- 天下之赋，盐利居半。盐业是国家重要的经济命脉。刘禹锡《賈客词小引》：“五方之賈，以财相雄，而盐賈尤炽。”

黔州（彭水郁山）拥有天然盐井。唐代时共41口。（《新唐书·食货志》）北宋梅尧臣《送鲜于秘丞旆通判黔州》云：“壶头山下俗，巴妇曲中听。汲井熬盐白，烧田种谷青。”截至1981年，郁山盐产量达476吨，销往周边38个县。

## ■ 치엔저우의 염단업(鹽丹業)

- 천하의 세금 중에서, 소금의 이윤이 반을 차지한다. 소금업은 국가의 중요한 경제 명맥이다.

유우석(劉禹錫)《賈客詞小引》：“각지 각처의 장사 중 재화로써 우열을 겨루면, 소금장사가 특히 치열하다.(五方之賈，以財相雄，而鹽賈尤熾.)”

치엔저우(평수이 위산)는 천연의 염정을 보유하고 있다. 당대에 모두 41곳이 있었다.（《新唐書·食貨志》）

북송(北宋) 매요신(梅堯臣)《送鮮于秘丞旆通判黔州》：“호두산 아래 풍속을, 파부곡에서 듣나니. 우물물을 길어 소금을 하얗게 만들고, 밭을 태워 곡식을 푸르게 심는구나.(壺頭山下俗，巴婦曲中聽．汲井熬鹽白，燒田種谷青.)”

1981년에 이르러, 위산(鬱山) 소금생산량은 476톤에 이르며, 주변 38개 현(縣)에 판매된다.

- 黔州富含丹砂矿藏，涪陵、彭水、黔江等地均产丹砂。郁江又称丹涪水。黔中丹砂在唐代为贡品。

丹砂为水银、丹药及红色矿物染料的重要来源。

#### ■ 黔州的其他资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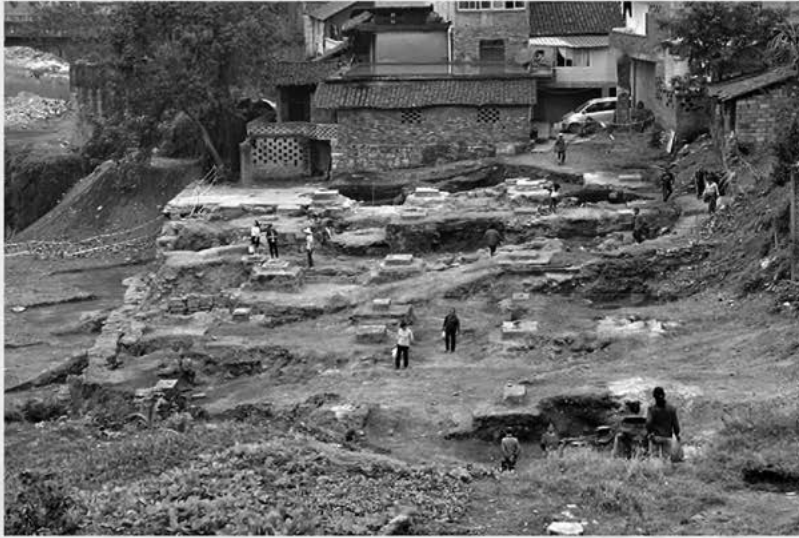
据新旧《唐书》、《太平寰宇记》、《太平御览》等文献记载，黔州除了水银、朱砂之外，还出产黄金、象牙、犀角、蜡、丹漆、麻布、竹布等。

- 치엔저우는 주사(丹砂)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푸링(涪陵)·펑수이(彭水)·치엔장(黔江) 등지는 모두 주사를 생산하다. 위장(鬱江)은 또 ‘단푸수이(丹涪水)’라 일컬어진다. 치엔장 주사는 당나라 때 공물(貢物)이 되었다.

주사는 수은, 단약 및 붉은 색 광물염료의 중요 원료이다.

#### ■ 치엔저우의 기타 자원

新舊《唐書》·《太平寰宇記》·《太平御覽》등 문헌기록에 따르면, 치엔저우는 수은과 단사 이외에, 또 황금, 상아, 물소뿔, 초, 붉은 옷, 삼베, 무명 등을 생산하였다.





## 四、流人与流放地黔州的交互影响

- ❖ 唐代前期, 皇室成员和权臣的流放, 使得黔州逐渐进入人们的视野。

- ❖ 文人的流放, 促进了黔州当地文化的发展。

黄庭坚与当地官员、文人相互酬唱; 且指点后学、教授子弟。《与七兄司理书》: “此司理谭存之, 忠州人, 两儿皆勤读书, 一已十七岁, 一与相同岁, 延在斋中令共学, 差成伦绪。日为之讲一大经、一小经, 夜与说老杜诗, 冀年岁稍见功耳。”

## 四. 유배인과 유배지 치엔저우의 상호 영향

- ❖ 당대(唐代) 시기, 황실 인사들과 권신의 유배로 치엔저우는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 ❖ 문인(文人)의 유배는 치엔저우 현지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황정견과 현지 관원, 문인들은 서로 시(詩)와 사(詞)를 주고받았다. 또 후학을 지도하고 자제를 가르쳤다.

《與七兄司理書》: “이곳 사리참군(司理參軍) 담존지는 충주인으로, 두 아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여, 한 아이는 이미 열일곱 살이고, 다른 한 아이는 黃相과 같은 나이어서, 서재에 불러 둘이 함께 공부하게 하니, 거의 운서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낮에는 이들을 위해 경서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두보의 시를 읽으니, 시간이 지나 다소간 성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此司理譚存之, 忠州人, 兩兒皆勤讀書, 一已十七歲, 一與相同歲, 延在齋中令共學, 差成倫緒. 日爲之講一大經・一小經, 夜與說老杜詩, 冀年歲稍見功耳.)”

- ❖ 黔州의 산明水秀、風土人情, 亦給文人帶來靈感, 促進其創作。

黃庭堅在黔州期間, 作關於當地的詩詞、書信、序跋55篇, 書法作品十餘種。其《答洪駒父書》云: “老夫紹聖前, 不知作文章斧斤, 取舊所作讀之, 皆可笑。紹聖以後, 始知作文章。”

- ❖ 치엔저우의 아름다운 산수 풍토와 인심 또한 문인들에게 영감을 가져와 그 창작을 촉진시켰다.

황정견은 치엔저우에 있는 기간에 현지에 관한 詩詞, 書信, 序跋 55편을 지었으며, 서예작품도 10여종이 있다. 《答洪駒父書》에서 이르길, “나는 소성 년간 이전에는 문장을 지으며 다듬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예전에 지은 것을 얻어 읽어보면, 모두 우습기만 했다. 소성 년간 이후, 비로소 문장을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老夫紹聖前, 不知作文章斧斤, 取舊所作讀之, 皆可笑. 紹聖以後, 始知作文章.)”